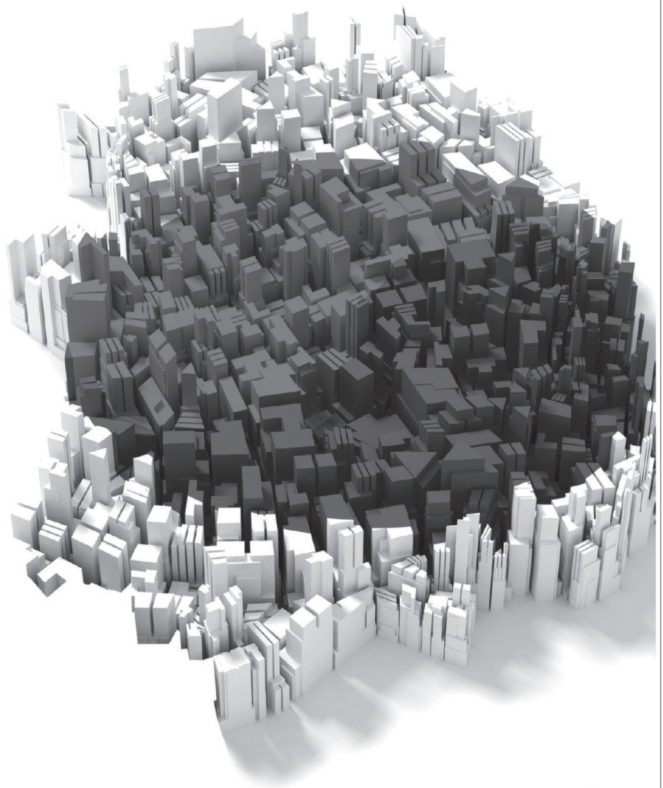


2020. 12. 31 통권

제11호

#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

Korean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Association





## 발간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세계적으로 유래없이 지속되고 사회·경제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에도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가운데 어느 때보다도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자국 내 방역 강화는 물론, 국제협력을 통하여 코로나19 극복에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예측하기 어렵고 극심해지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새로운 도전과 과제가 주어진 만큼 앞으로도 새롭게 부상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과 연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번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제11호에서는 ‘군(軍) 대(對)테러 체계 향상 방안에 관한 연구’, ‘공군 간부의 다문화수용성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접촉이론을 중심으로 일반국민의 지수와 비교분석-’, ‘엘리트 무도선수의 인권의식에 따른 성취목표성향 및 운동몰입에 미치는 영향’,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경호무도로서 태국 무에타이 적용방안’,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가정적 요인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으로 총 6편의 논문이 게재되었습니다.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 제11호의 발간과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힘써주신 연구자분들과 심사위원, 편집위원, 학회 임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참여,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환경속에서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한국국가안보 국민안전학회 편집위원장 장 항 배

한국국가안보 국민안전학회 회장 박준석

## 차 례

- 군(軍) 대(對)테러 체계 향상 방안에 관한 연구  
정병윤 ..... 7
- 공군 간부의 다문화수용성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접촉이론을 중심으로 일반국민의 지수와 비교분석-  
홍창현 · 정주호 ..... 37
- 엘리트 무도선수의 인권의식에 따른 성취목표성향 및 운동몰입에 미치는 영향  
김대근 · 정성배 · 성낙훈 ..... 69
-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경호무도로서 태국 무에타이 적용방안  
김한진 · 김진환 ..... 91
-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영애 ..... 115
- 가정적 요인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김상수 ..... 141

## Contents

- A Study of the Measures to Develop Military Counter Terror System  
Jung, Byung Yun ..... 7
- A Study on the Influence Factors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on Air Force  
Officials-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Index of the General Public Focused  
on the Theory of Contact-  
Hong, Chang Hyun· Jung, Ju Ho ..... 37
-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nd Exercise Commitment according to Human  
Rights Awareness of University Athletes  
Kim, Dae Geun· Jung, Seong Bae· Seong, Nak Hun ..... 69
- Applying the Security Guard Martial Art of Thailand Muaythai for the safety  
of the people  
Kim, Han Jin· Kim, Jin Hwan ..... 91
- A Study On the Influence of Self-esteem of Youth on the Adaptation of School Life  
Park, Young Ae ..... 115
- A Study on the Influence of Domestic Factors on the Violent Behavior of School  
Violence-Based on the police's countermeasures-  
Kim, Sang Su ..... 141



# 군(軍) 대(對)테러 체계 항상 방안에 관한 연구

정 병 윤



## 군(軍) 대(對)테러 체계 향상 방안에 관한 연구

정 병 윤\*

### [ 국문초록 ]

‘9.11테러’를 기점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동시다발 복합테러가 전 세계적으로 사라지지 않고 있고, 2019년 60개국에서 1,663건의 테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국제테러단체는 우리나라를 ‘악마의 연합군’, ‘62개 십자군 동맹국’이라고 지칭하면서 테러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인구밀집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동시다발 복합테러가 발생할 경우 한정된 경찰력으로 효율적인 대응이 제한될 것이며,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하기 위해 군 병력이 언제든지 대테러작전에 지원될 수 있도록 좀 더 발전적인 테러 대응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음에 목적을 두고 연구하였다.

우리나라 및 군의 테러 대응체계 발전을 위해 군·경 대테러작전부대의 동시투입 및 통합운영, 대테러작전 전담부대로 군사경찰 특수임무대 운영, 군·경 대테러작전부대 합동성 강화 및 합동훈련장 설치 등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테러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삶을 영위하고 국가안보가 튼튼해 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주제어:** 대테러체계, 대테러작전, 대테러작전부대, 군사경찰, 특수임무대

---

\* 국방부 특수전사령부 헌병단(제1자자)

목 차
I. 서 론
II. 우리나라 테러 대응체계
III. 군(軍) 대(對)테러체계 및 부대
IV. 군(軍) 대(對)테러체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V. 결 론

## I. 서 론

테러리즘은 9.11테러를 기점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동시다발 복합테러로 발전하여 전쟁의 공포만큼이나 위협적인 존재로 진화하였고, 미국 중심 서방국가들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군사공격으로 알카에다·ISIS 등과 같은 국제테러단체들의 세력을 약화시켰으나 테러는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작년 한 해에만 전 세계 60개국에서 1,663건(1일 평균 4.6건)의 테러가 발생할 정도로 빈번하였다.

국제테러단체는 한국을 ‘악마의 연합군’, ‘62개 십자군 동맹국’에 포함하여 테러 대상국으로 지목하였고, 국내적으로는 체류 외국인 및 북한 이탈주민의 증가와 청년 실업률 증가 등으로 상대적 박탈감에 의한 사회적 불만을 자생적 테러리즘으로 표출할 가능성이 커졌으며, SNS를 통한 테러단체 선전·선동 활동 및 테러자금법 위반 혐의자 등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 테러로부터 안심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한국은 인구밀집도가 높고 도심지역에 다중이용시설·공공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이 집중되어 뉴테러리즘을 일으키기에 적합한 환경과 장소를 동시에 제공해 주고 있고, 이러한 현대사회구조에서는 동시다발 대형 복합테러 시 한정된 경찰력으로 효율적인 대응이 제한될 것이며,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전국 주요 도시에 배치되어 있는 군 병력이 언제든지 대테러작전에 지원될 수 있게 좀 더 발전적인 체계

를 정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연구하였다.

## II. 우리나라 테러 대응체계

우리나라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대테러업무의 최상위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대테러센터’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하여 국가 테러대책위원회의 사무처 역할 및 지원업무를 총괄 수행하고 있다. 대테러센터는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설치된 상설조직으로 총 32명의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3부(기획총괄부·협력조정부·안전관리부) 1실(대테러종합상황실)로 편성되어 있으며(국무총리실 대테러센터, 2017: 50), 테러방지법 제6조에 명시된 국가 대테러 활동 관련 임무분담 및 협조사항 실무 조정, 장단기 국가대테러활동 지침 작성·배포, 국가 중요행사 대테러안전대책 수립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테러방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203호, 2016.6.4. 시행) 제22조(테러경보의 발령)에 의거 대테러센터장은 테러위험 징후를 포착한 제한적인 경우<sup>1)</sup>에 테러경보를 발령할 수 있고, 테러경보는 대테러센터장이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령하며, 발령 즉시 국가테러대책위원장(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 시 또는 주의단계 이하의 테러경보 발령 시에는 심의 절차 생략이 가능하다(국무총리실 대테러센터, 2017: 72). 테러경보는 테러 발생 위협의 정도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아래 <표 1>)로 구분한다.

테러징후 또는 테러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즉시 관련 사항을 유관기관의 장과 대테러센터장에게 통보하고, 국민에게 공개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테러징후 또는 테러 발생을 가장 먼저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는 기관의 장에게 상황전파의 1차적 책임이 있다(대한민국 국방부, 2018: 89).

테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인지한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히 초동조치하여야 하며, 국내 일반테러사건의 경우에는 테러 사건 발생지역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담당하고, 테러사건대책본부가 설치된 경우에는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이 담당한다. 군사시설 테러는 국방부, 국내 일반 테러는 경찰청, 국외 테러는 외교부, 항공테러는 국토교통부, 해양테러는 해양

1) 객관적인 상황인식의 공유와 같은 경보발령의 합리적인 상황이 존재하여야 함.

경찰청 등 5개 테러사건대책본부로 구분되어 있다.

〈표 1〉 테러경보 발령 및 조치

구 분	테러 발생 가능성	발령 시기	조 치
관심단계 (4단계)	발생 가능성 낮음	테러 첩보 입수, 국제테러 빈발	테러정후 감시활동 강화
주의단계 (3단계)	발생 가능	구체적인 테러 첩보 입수, 테러조직 및 연계자의 국내 잠입 기도	대테러 관계기관 협조체계 가동
경계단계 (2단계)	발생 가능성 높음	직접적 테러 위협, 테러조직·테러 용의자의 국내 잠입 활동 포착	대테러 실전대응 준비
심각단계 (1단계)	발생 확실시	명백한 테러 첩보 입수, 테러 이용수단 도난·강탈	대책본부 설치 등 총력대응 체계 구축

※ 자료: 대한민국 국방부(2018: 88) 재구성.

### Ⅲ. 군(軍) 대(對)테러체계 및 부대

군(軍)의 테러 대응 활동은 국가 테러 대응체계 속에서 수행되며, ‘국방부 대테러 활동 훈령’ 제3조(적용 범위)와 제4조(기본지침)에 따라 군사시설<sup>2)</sup>에 대한 테러 예방·대응을 위한 대테러 활동 즉, 국방부 소속의 대테러특공대·대테러특수임무대는 군사시설 안에서 테러 사건이 발생 시 출동하여 진압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함참은 군사시설 이외의 테러 사건 발생 시 군 테러사건지원본부를 운영하고, 경찰력의 한계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여 테러사건대책본부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군사시설 밖에서도 경찰의 대테러작전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군이 군사시설 외에서 작전할 수 있는 요건인 ‘① 경찰력 한계·② 긴급한 지원·③ 테러사건대책본부장 요청’ 중 경찰력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는 대량 인명피해와 피해 범위가 넓어져 초동작전에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근거한 군사시설(대한민국 국방부, 2018: 99)로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권이 미치며, 군사(軍事)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일체를 말한다(국방부 대테러활동 훈령 제2조 제16항, 기타 세부 군사시설 범위는 제16항의 각호 참조).

실패한 이후라고 볼 수 있어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시기를 놓칠 수 있다.

군은 북한 및 적으로부터의 평시 국지도발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전면전 대비태세를 완비한 가운데 국내·외에서 발생 가능한 테러 예방 및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군의 대테러 관련 훈령을 제정하여 대테러 장비와 물자를 확보 및 전력화하고 대테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안보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을 평화롭고 안정되게 뒷받침할 수 있어 국민안전에 기여해 나가고 있다.

테러 발생 시 대응과 관련하여 북한에 의한 대공공의점(또는 대공협의점)<sup>3)</sup>이 없는 경우에 군사시설 내에서는 국방부 대테러활동 훈령에 의거 대테러작전을 수행하고, 대공공의점이 있는 경우에는 통합방위법<sup>4)</sup>에 의거 침투 및 국지도발대비작전<sup>5)</sup>을 실시한다. 통합방위법과 테러방지법 및 국방부 대테러활동 훈령의 적용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건의 성격이 명확히 판명될 때까지 통합방위법에 의한 대응 활동과 병행하여 테러방지법 및 국방부 대테러활동 훈령에 의한 대테러작전을 수행하게 된다.

군의 테러 대응은 합참 주관 군사시설 내에서의 테러 대응과 군사시설 외에서의 테러를 지원하기 위한 대응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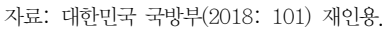
## 1. 군사시설 내(內) 테러 대응체계

군사시설에 대한 테러 발생 시 아래 [그림 1]과 같이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군사시설 테러사건대책본부와 현장지휘본부를 통제하여 대테러작전을 수행한다.

3) 대공공의점(對公容疑點)이란 공산주의자로 의심받을 만한 점을 의미하는 말로 군에서 적(북한)의 침투 정황 유무와 관련된 정보를 분석할 때 사용한다.

4) 통합방위법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있어서 국가 총력전의 개념에 입각하여 국가 방위요소를 통합·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 북한의 무장간첩 침투에 대비하기 위해 1997.1.13. 법률 제5264호로 제정(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 2020.12.11. 검색) 되었으나, 뉴테러리즘의 특성인 공격 주체가 불분명한 테러단체의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5) 국지도발대비작전(局地挑發對備作戰, Local Provocation Counter Operation)은 적이 일정 지역에서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영역에 가하는 일체의 위해행위에 대비하는 작전을 말한다(합동참모본부, 2010: 53).



또한, 테러사건대책본부는 군 중앙대테러합동조사팀 및 군 중앙협상팀의 신속한 출동 및 임무 수행 여건을 보장하여야 하며, 테러사건대책본부장은 테러 대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신·정보·화생방정밀분석·의료·국제협력 등 필요한 전문분야별로 지원팀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군사시설 테러사건대책본부장(본부장: 합참 의장)은 군사시설 내에서 테러 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건 현장의 대응 활동을 총괄하기 위하여 현장지휘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현장지휘본부장은 자·해·공역·시설 책임부대장으로 한다.

현장지휘본부장은 관할구역 내 위치한 군사시설에서 테러가 발생 시 현장지휘본부를 운영하며, 자·해·공역 책임이 없는 부대는 시설책임 부대장이 현장지휘본부장이 되어 운영한다. 단, 동일사건에 2개 이상의 부대가 관련된 경우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테러사건대책본부장이 현장지휘본부 설치 부대를 지정한다. 현장지휘본부는 현장 상황판단 및 대응조치, 민·관·군·경 통합작전 및 지원체계 유지, 대테러작전부대 지휘통제 및 군 지역협상팀 운영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현장지휘본부장은 테러의 양상·규모·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협상·초동조치·구조·소방·구급·제독 등 필요한 전문조직을 추가 구성하거나 상급부대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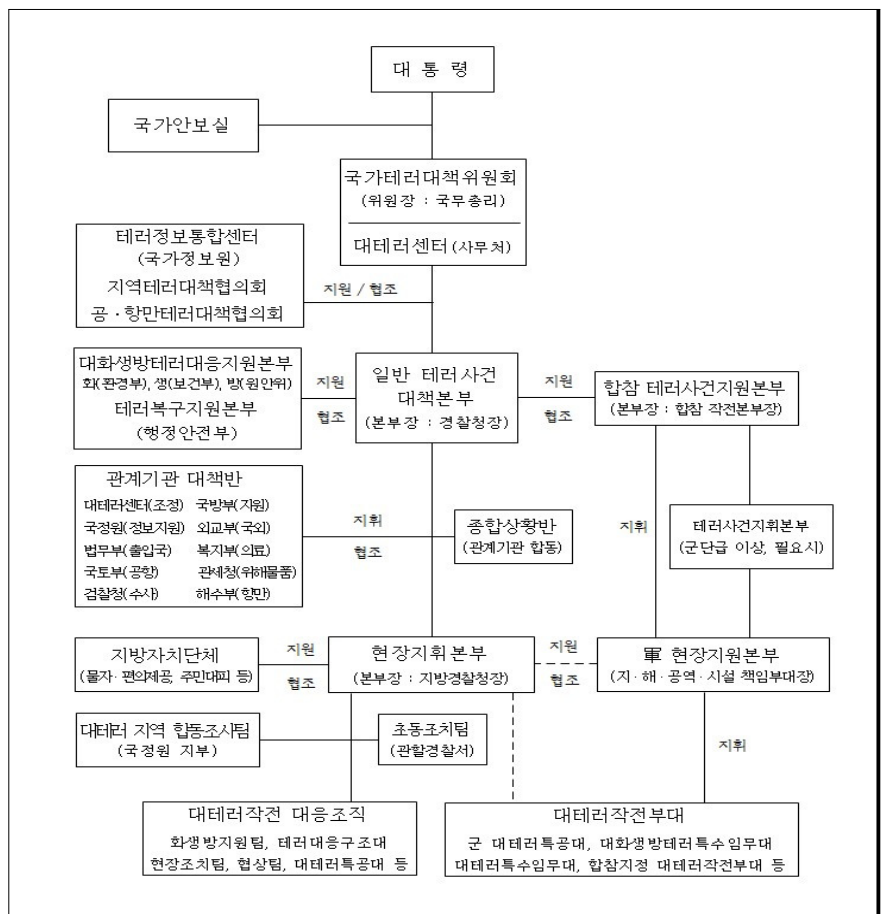
## 2. 군사시설 외(外) 테러 대응체계

군사시설 외에서 테러 발생 시 군은 합참에 테러사건지원본부를 편성하여 경찰 주도 일반테러사건대책본부를 지원하며, 군사시설 외 테러 대응을 위한 군의 지원은 아래 [그림 2]와 같다.

군사시설 외 지역에서 테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여 관계기관이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운영하는 경우 합참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 후 합참 군사지휘본부 내에 테러사건지원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합참 작전본부장이 테러사건지원본부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테러사건지원본부장은 테러사건대책본부장의 요청이 있거나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통신·정보·화생방 등 필요한 전문분야별 지원팀을 편성하여 파견한다.

군사시설 외 테러 발생 시 합참의 위기 평가 결과에 따라 군 현장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으며, 테러사건지원본부장이 통제한다. 군 현장지원본부는 아래 <표 2>와

같이 테러 유형별로 구분하여 설치·운영하고, 군 현장지원본부장은 임무 수행을 위해 테러사건지원본부 또는 상급·인접부대에 협상반과 대테러작전부대 및 장비·물자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테러 유형별로 주관기관 테러사건대책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병력·장비·물자 등을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한다(대한민국 국방부, 2018: 105).



자료: 대한민국 국방부(2018: 104) 재인용.

[그림 2] 군사시설 외(外) 테러 대응 체계도

〈표 2〉 테러 유형별 군 현장지원본부장

구 분	군 현장지원본부장
일반 테러 시	지역 책임 부대장(장성급 지휘관)
화생방 테러 시	지·해·공역 책임 부대장
항공기 테러 시	공역 책임 부대장
해양 테러 시	해역 책임 부대장
공항·항만 내 테러 시	시설 책임 부대장

자료: 국방부 대테러활동 훈령(제21조) 재구성.

### 3. 군(軍) 대테러작전부대

군 대테러작전부대는 국가지정 대테러작전부대와 합참지정 대테러작전부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국가지정 대테러작전부대는 대테러특공대와 대테러특수임무대, 대화생방테러특수임무대로 구분하여 편성되어 있다. 대테러특공대는 육군 특수전사령부 소속 707특수임무단과 해군 특수전전단 소속 특수임무대대를 운영하고 있고, 대테러특수임무대는 특수전사령부 예하 6개 여단 특수임무대·수도방위사령부 35특공대대·해군 특수전전단 3개 특전대대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화생방테러특수임무대로 화생방방호사령부 소속 24화생방특수임무대대가 있다. 합참지정 대테러작전부대는 대테러초동조치부대, 화생방신속대응팀, 폭발물처리반, 위험성폭발물개척팀, 신속대응부대 등으로 구분하여 편성되어 있다.

우리나라 대테러특공대는 테러 대상에 따라 민간인 및 민간시설에서 테러가 발생한 경우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이 대테러작전을 수행하고, 군인 및 군사시설에서 테러가 발생한 경우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 및 해군 특수전전단 특수임무대대가 대테러작전을 수행하며, 테러 발생지역에 따라 육상에서 테러가 발생한 경우 경찰청 및 육군 707특수임무단이, 해상에서 테러가 발생한 경우 해양경찰청 및 해군 특수임무대대가 대테러작전을 수행하게 된다(양철호, 2017: 79).

국가급 군 대테러작전부대를 추가 지정할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테러대책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이외 대테러작전부대 추가 지정은 합참의장이 지정·운영한다.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군 대테러작전부대 현황은 다음 <표 3>, <표 4>와 같다.

<표 3> 국가급 군 대테러작전부대 현황(2020.8.1. 기준)

구 분	부 대
대테러특공대 (2개 부대)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 해군 특수전전단 특수임무대대
대테러특수임무대 (20개 부대)	육군 특수전사령부 6개 여단 특수임무대 육군 2개 군단 군사경찰 특수임무대 육군 2개 군단 특공연대 특수임무대(2021.8.1. 부) 육군 2개 사단 군사경찰 특수임무대(2021.8.1. 부) 육군 2개 특공여단 특수임무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35특공대대 해군 특수전전단 3개 특전대대 해병대 특수수색대 특수임무대 공군 5공중기동비행단 259특수임무대대 특수임무대
대화생방테러특수임무대(1개 부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24화생방특수임무대대

자료: 국방부 대테러활동 훈령(제2조 제9항, 제23조) 재구성.

국방부 소속의 대테러작전부대는 군사시설에서 테러 사건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 출동을 원칙으로 한다. 대테러작전부대 출동 및 작전승인권한은 다음 <표 5>와 같으며, 진압작전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통해 시행한다. 단, 테러범이 무차별 인명 살상을 자행하는 등 긴급한 대응조치가 불가피한 경우 현장지휘본부장은 대테러특공대 또는 대테러특수임무대에 긴급 대응작전<sup>6)</sup>을 명할 수 있으며, 현장지휘본부장이 긴급 대응작전을 명한 경우, 즉시 이를 국방부장관과 테러사건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대테러초동조치부대의 경우 명시된 임무는 없으나 상황에 따라 긴급 대응작전을 수행할 수도 있다(대한민국 국방부, 2018: 102).

6) 무력진압작전이 시행되기 이전에 테러범에 의한 인질 살상·폭파위협·협상 결렬 등 테러 상황의 변화로 긴급사태 발생 시 현재까지 수집된 첩보를 기초로 수행하는 진압작전이다(육군본부, 2015: 3-25).

〈표 4〉 합참지정 군 대테러작전부대 현황(2020.8.1. 기준)

부 대	비 고
대테러초동조치부대	육군 20여 개 부대 등 총 50여 개 부대
폭발물처리반	육군 20여 개 부대 등 총 40여 개 부대
위험성폭발물개척팀	육군 등 20여 개 부대
화생방신속대응팀	육군 20여 개 부대 등 총 30여 개 부대
지역 대화생방테러특수임무대	화생방방호사령부 1, 육군 10, 해병 1
신속대응부대	육군 등 10여 개 부대

주: 국방부 대테러활동 훈령(제2조 제9항, 제23조)을 토대로 연구자 구성.

〈표 5〉 군 대테러작전부대 출동 승인권자

승인권자	대테러작전부대
합동참모의장 (군사시설 테러사건대책본부장)	대테러특공대, 대테러특수임무대, 신속대응부대, 대화생방테러특수임무대
지역·해역·공역·시설 책임 부대장(현장지휘본부장)	대테러초동조치부대, 지역대화생방테러특수임무대, 화생방신속대응팀(CRRT) <sup>7)</sup> , 폭발물처리반(EOD) <sup>8)</sup> , 위험성폭발물개척팀(EHCT) <sup>9)</sup>

자료: 국방부 대테러활동 훈령(제26조) 재구성.

우리나라의 경우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8조(대테러특공대 등) 제4항에 의거 군 대테러특공대 출동 및 진압작전은 원칙적으로 경찰력의 한계라는 상황적 요건과 테러사건대책본부장의 요청이라는 절차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군사시설 외 테러 발생 시에도 지역 책임부대에서 지방경찰청 등과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sup>10)</sup> 체결이 되어 있는 경우 초동조치단계에서 대테러작전부대의 자동 출동 및 초동조치 등 제한적인 지원<sup>11)</sup>은 가능하다(대한민국 국방

7) CBRN(Chemical Biological Radiological and Nuclear) Rapid Response Team.

8) Explosive Ordnance Disposal.

9) Explosive Hazards Clearance Team.

10) 당사 간의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식 계약을 맺기 전에 우선 작성하는 문서(양해각서)로 법적 효력의 문서는 아니지만 조약과 같은 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부, 2018: 105).

군사시설 외에서 주체가 불분명한 테러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건 성격이 명확히 판명될 때까지 대테러작전부대는 출동 준비 및 초기 지역 전개 후 작전을 준비하고, 기타 초동조치부대는 통합방위개념에 의거 현장에 즉각 출동하여 유관기관의 대응을 지원한다.

우리나라에 비해 테러 대응체계가 발전된 국가들은 군 병력 투입을 위한 절차를 단순화하고 있다. 미국은 ‘Patriot Act of 2001(애국법)’ 제104조에 화생방 및 대량살상 무기와 관련된 긴급상황 발생 시 법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군 병력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영국은 ‘Civil Contingencies Act of 2004(비상대책법)’ 제22조에 전쟁 및 테러 등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경우 국방위원회 승인을 거쳐 군을 투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Code de la defense(방위법)’에 내무부 장관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국방장관에게 군 병력 및 군 시설 사용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전수일, 2017a: 102).

#### 4. 군(軍)의 대테러작전 수행

군(軍)의 대테러작전을 살펴보기에 앞서 반테러와 대테러, 대테러활동과 대테러작전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반테러(反테러, Anti-Terrorism)는 테러에 반대한다는 입장 하에서 테러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원칙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전략적·공격적·예방적인 의미로 사용되며, 대테러<sup>12)</sup>(對테러, Counter-Terrorism)는 현재 진행 중이거나 발생된 테러에 대한 응징 차원의 대응 활동 또는 발생 가능한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전술적·방어적·현장 중심의 대응을 의미한다(대한민국 국방부, 2018: 148).

대테러활동이란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위험 인물의 관리, 테러에 이용될 수

11) 행정응원(行政應援)이라고 하며, 대등한 행정관청 상호 간에 일방이 직무집행 상 필요한 특정행위 또는 일반적 협력을 타방의 요청에 의하여 또는 자발적으로 타방관청의 권한행사에 협력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경찰응원(경찰직무응원법), 소방응원(소방법), 군사응원(위수령) 등과 같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때에는 요구받은 관청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 2020.12.12. 검색).

12) 대테러는 테러 사건 발생이후 취해지는 대응활동의 체계적인 수단 및 방법으로 주로 정부기관 주도로 이루어지는 특성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대테러활동’이라 하며, 군사적으로는 ‘대테러작전’이라 한다(합동참모본부, 2010: 101).

있는 위험물질 등 테러 수단의 안전관리, 인원·시설·장비의 보호, 국제행사의 안전 확보, 테러 위협에의 대응 및 무력진압 등 테러 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테러방지법 제2조). 즉, 테러가 발생할 수 없도록 테러 사건을 예방하고 대비하는 ‘테러 예방’과 테러 사건 발생 시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테러 대응’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활동 개념이다(양철호, 2017: 74).

대테러작전(對테러作戰, Combatting Terrorism)은 ‘테러 사건이 발생되기 이전에 예방·저지 활동을 하거나 테러 사건 발생 이후 취해지는 대응 활동의 체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방어적 의미(Anti Terrorism)와 공세적 의미(Counter Terrorism)를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합동참모본부, 2010: 101), 육군 대테러작전 교범에는 ‘개인 및 단체, 국가 및 군사시설을 대상으로 한 각종 테러에 대응하는 작전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육군본부, 2015: 1-14), 테러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예방·저지 활동에 주력하고 테러가 발생한 이후에는 전문화된 대테러특공대에 의한 진압작전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김선범, 2008: 53).

대테러작전은 개인·단체·국가 및 군사시설을 대상으로 한 각종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제반 활동으로 대테러작전부대에 의한 대테러작전은 무력진압(武力鎮壓) 작전으로 이루어진다. 무력진압 작전에 앞서 협상팀에 의해 협상이 진행되고 평화적 협상 결렬 시 무력진압 작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무력진압 작전을 실시한다.

무력진압 작전은 항공기·폭발물·인질·화생방·고층건물 등 테러 현장의 유형에 따른 작전 형태별 특성을 파악하고 정확한 정보수집을 통한 주도면밀한 계획 수립 및 충분한 예행연습으로 작전의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어야 하며, 신속한 작전으로 단 시간 내에 종결할 수 있어야 한다.

대테러작전은 테러 유형과 지형·여건(상황) 등에 따라 다르나 통상적으로 계획수립·작전준비·작전실시 단계로 나누어 실시된다.

계획수립 단계에서는 상황평가·임무분석·방책수립·방책분석·방책선정·계획작성 및 하달 등 작전에 참여하는 모든 대테러작전부대들이 조치해야 할 사항들을 망라하여 빈틈없이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작전계획은 작전 진행 과정을 가시화(可視化)하는 것으로 작전수행 과정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과정이어야 한다. 특히, 방책(方策)을 수립하고 분석 및 선정하는 과정에서 수립된 여러 가지 방책 중 요망하는 최종상태의 임무달성 적합성 여부, 할당된 부대와 자산(資産)을 이용하여 계획된 시간 내에 적을 제압할 수 있는 실행 가능성, 예상

되는 위협과 얻을 수 있는 이익의 비교를 통한 수용 가능성, 작전 목표달성에 필요한 시간과 부대를 통한 최종상태 등이 포함된 완전성 등을 평가하여 최선의 방안을 선정하여야 한다.

작전준비 단계에서는 작성된 대테러작전 계획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반 준비활동을 하는 과정으로 이를 통해 완전무결(完全無缺)한 작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작전의 성공확률을 높여야 한다. 작전준비 간에는 테러 관련 첩보와 정보를 최신화하여 공유하고 공중·육상 등을 통한 침투계획과 침투자산을 할당하여 원활한 작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작전실시 단계에서는 계획되고 연습된 작전제대별 조치사항과 순서에 맞게 일격(一擊)에 무력진압을 가해 단시간 내에 종결될 수 있도록 신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된 작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상황판단과 결심 및 대응이 순차적 또는 순환적으로 지속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며, 핵심 및 고가치 표적 추적과 처리, 작전의 효율성 및 작전부대원의 생존성(生存性) 보장대책도 강구되어야 한다.

작전이 종결된 후에는 반드시 평가를 통해 수정 및 보완할 수 있는 절차도 필요하다. 평가는 변화하는 상황이 작전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분석하고 판단하여야 하며, 계획수립·작전준비·작전실시 등 모든 작전 수행과정에서 순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테러범은 무력진압 작전을 통해 체포되더라도 전쟁포로(戰爭捕虜)의 대우는 받지 못한다. 테러범은 전투원의 지위에 필요한 군복이나 기타 특유의 기장(器仗) 착용, 공공연한 무기휴대, 집단행동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의 지휘, 전쟁법에 따른 작전 수행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아 체포되더라도 전쟁포로의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로 취급받게 된다.

군사 및 작전보안으로 인하여 대테러작전부대의 테러 유형별 대테러작전 수행체계를 상세하게 기술하지 못함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 5. 군(軍)의 테러 예방 및 대응 활동 수행

오늘날 테러는 정치·종교·이념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기나 장소, 대상을 가리지 않아 무차별적이고 피해는 대형화되는 등 초국가적 형태의 위협 수단이 되고 있으며, 테러단체가 저렴한 생화학 무기를 이용하거나 상상할 수 없는 핵무기 등을

사용하는 메가테러리즘<sup>13)</sup>의 경우 엄청난 재난이 발생할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다양한 평화유지군 활동을 통한 파병 활동으로 국제테러단체의 표적이 될 수 있으며, 다인종·다문화 시대에서 종교·문화적 이질감(異質感)이 테러 행위로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테러 행위는 포괄적 안보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조치할 수 있는 대응 활동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 테러리즘의 특성을 고려해 본다면 테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는 물론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이를 복구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만큼 테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테러 대응활동의 핵심이 예방이 되어야 할 것은 자명(自明)한 사실이다.

국방부 대테러활동 훈령 제35조(정보의 수집·보고·전파), 제36조(테러정보의 전파), 제38조(국가·군 중요행사에 대한 안전활동) 등을 통해 예방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제40조(상황전파), 제41조(초동조치), 제42조(사건대응 및 사후처리) 등을 통해 대응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대테러 예방 활동을 위해 대테러 정보기관은 테러 정보의 수집·분석·전파에 주력 및 정보공유체계를 유지하고, 테러 관련 정보를 입수한 부대·기관은 군 대테러정보협의회(운영 책임부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통보하여야 하며,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입수된 테러 관련 첩보를 종합·분석하여 관련부대(기관)에 신속히 전파하여야 한다.

군사시설에 대한 테러가 발생하거나 테러 위협 징후를 인지하였을 경우 각급 부대(기관)의 장은 관련 상황 및 조치사항을 합참(지휘통제실)으로 보고하고, 합참은 장관 보고 및 대테러센터에 통보하며, 테러사건대책본부장(합참의장)은 테러 사건 종결 시까지 관련 상황을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조치 및 처리하고, 진행상황을 국방부장관 및 국가테러대책위원장(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각급 부대(기관)의 장은 테러가 발생한 경우 최단시간 내에 출동하여 현장통제 및 증거멸실(證據滅失) 방지를 위해 현장보존 조치하고, 테러의 확산방지를 위한 초동조치를 실시하며, 화재방 테러가 발생한 경우 오염확산 방지를 위한 원점제독을 신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지·해·공역·시설 책임부대장은 관할지역 내 군사시설에 대

13) '메가테러리즘과 미국의 세계질서전쟁'(구춘권, 2005.)에서 메가테러리즘(megaterrorism)은 최대한 많은 인명을 살해함으로써 사회를 공포와 충격으로 몰아넣는 초국가적이고 무차별적인 최근 테러리즘의 경향을 의미한다.

한 테러 발생 및 주체가 불분명한 테러나 의심상황 발생 시 대테러초동조치부대·화생방신속대응팀(CRRT)·폭발물처리반(EOD)·위험성폭발물개척팀(EHCT)·지역대화생방테러특수임무대 등을 지원하고, 군사시설 외 테러 발생 시에는 출동 준비 및 최기지역 전개 후 작전을 준비하고 관계기관 테러사건대책본부장의 요청에 의해 지원한다(국방부 대테러활동 훈령 제26조). 단, 지방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대테러 초동조치 관련 MOU를 체결하여 초동조치 단계에서 자동 출동을 체결한 경우에는 체결 협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대한민국 국방부, 2018: 108).

사건 발생 초기에는 위기관리 절차에 따라 조치하다가 테러로 판단 시 합참은 테러사건대책본부를 가동하여 대응하고, 테러사건대책본부장은 필요시 현장지휘본부 운영 및 지휘통제·사후처리 등 테러 관련 제반 사항을 전반적으로 총괄한다. 군사시설 내에서 인질 테러가 발생한 경우 현장지휘본부는 지역관할 군사경찰 부대장에 의한 지역협상팀을, 국방부조사본부장은 중앙협상팀을 운영하여 비폭력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며, 협상에 의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무력진압 작전을 수행하게 된다.

국방부는 2019년 국가 중요행사 및 지역행사 대테러 안전활동 지원 367회, 총기 및 탄약 발견 신고 등 테러 관련 상황으로 지역 대테러 합동조사 참여 115회, 대테러 작전부대 보강(707대테러특공대 작전지역대 4 → 5개) 등을 통하여 테러 대응역량을 강화하였다(테러정보통합센터, 2020: 25).

## IV. 군(軍) 대(對)테러체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 1. 군 대테러체계 문제점

#### 1) 테러 발생시 군 전력투입 제한 및 대테러작전 지연 초래

현(現) ‘테러방지법’ 및 ‘동 시행령’에 명시된 바와 같이 경찰 위주의 대테러작전을 시행하고 있고, 군은 군사시설에 대한 테러 발생 시 대테러작전을 시행하면서 군사시설 외의 테러 발생 시에는 ① 경찰력의 한계, ② 긴급한 지원이 필요, ③ 국가테러대책본부장의 요청이라는 단서조항(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8조)으로 군 대테러특공대의 투입이 제한되어 있어 자칫 골든타임을 놓쳐 대량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

(放置)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테러 중 주체가 불분명한 테러가 발생했을 경우 테러 대응을 주도해야 할 정부 대응기관 지정이 지체되어 역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으며, 북한에 의한 테러 발생 시에도 대공용의점 여부에 따라 경찰(테러방지법) 또는 군(통합방위법) 주도 작전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어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

최근 테러 양상이 테러 발생 30분 이내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량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발달된 도심지에서 테러 후 도주가 용이하다는 점만 착안해 보더라도 초기대응을 통한 테러 확산방지를 위해 대테러작전부대의 신속한 투입이 필요한 상황에 비추어 군의 투입이 지체되고 최강의 무력을 운영하는 군의 대응을 통한 테러범들의 기선제압에 실패할 수도 있다.

미국·프랑스 등 대테러 경험이 많은 국가들이 대테러작전에 군 병력을 투입하도록 명문화되어 있는 것과 대조적인 우리나라의 군 전력투입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 2) 사법권이 없는 조직의 대테러작전 적법성 논란

자기방어에 폭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엄격히 제한되고, 일반적인 법 아래서 공격당하고 있는 사람은 무력을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자기방어에 사용된 무력의 강도는 반드시 공격자의 힘과 비례할 만큼만이어야 한다(정주섭, 2008: 133). 이러한 법 해석을 고려한다면 법 집행 기능이 없는 일반 전투부대원에 의한 테러범에 대한 무력진압은 향후 문제의 소지가 있다.

군사경찰은 형법과 군형법 등에 명시되어 있는 테러행위 관련 범죄<sup>14)</sup>를 군사법원법(제43조·제46조)에 의거 군사법경찰관리(軍司法警察官吏)로서 관장할 수 있어 발생한 강력범죄에 대하여 신속히 진압해야 할 당연한 의무로 볼 수 있는 반면, 군 대테러특공대인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과 각 여단 대테러특수임무대의 무력진압 작전은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군사시설에서 국방부장관에 의한 테러 대응 외 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

14) 형법에 규정한 ‘살인, 일반 건조물 등에의 방화, 소요, 특수폭행, 인질살해·치사, 방화, 폭발물 제조·사용’ 등의 테러 관련 범죄와 군형법에 규정한 ‘초소침범, 군용시설 등 손괴, 폭발물 피열, 노적군용물 등에의 방화’ 등의 테러 관련 범죄 전체.

의 명령이 아닌 국무총리 및 다른 테러대책본부장의 요청으로 군이 출동하여 무력진압할 때 위법성 여부가 추후 논란이 될 수 있다.

### 3) 뉴테러리즘 특성에 맞지 않는 훈련장 보유 및 훈련

현재 대테러작전부대원들은 일부 지역에 권역별로 구성된 권역화 훈련장과 시가지 훈련장을 사용하여 훈련하고 있으나 뉴테러리즘에 적합한 대테러작전과 관련된 전술을 숙달하기에는 훈련장 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훈련해야 할 부대 수에 비해 훈련장의 제한적인 수량으로 인하여 자주 이용하면서 숙달하기에는 훈련장 시설과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대테러 전술을 전문적으로 숙달할 수 있는 훈련장인 ‘47국가대테러훈련장’(경기 광주 소재)은 1982.1월 대통령 훈령 제47호 ‘국가 대테러활동 지침’에 의거 건립이 결정되어 대테러 임무를 수행하는 군 부대뿐만 아니라 국정원·경찰 등 관련 기관의 대테러 교육장소로 운용되고 있으나 시설이 낙후되어 뉴테러리즘 양상에 적합한 전술을 숙달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으며, 이 역시 대테러 전술을 숙달해야 할 대테러 작전부대(원) 수에 비해 장소가 협소하고 장거리 이격되어 있어 이동에 제한이 많은 단점이 있다.

‘47국가대테러훈련장’은 1982.1월 건립이 결정된 후 1985.6월 제1훈련장과 항공기 훈련장 완공, 1996.3월 제2훈련장이 완공되었으나 완공 후 20~30년이 흐르는 동안 몇 차례의 단편적인 시설보강 외 전체적인 리모델링 및 추가 예산 투입이 없어 훈련 여건이 열악하며, 뉴테러리즘 양상에 적합한 대테러 전술을 숙달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도태되어 있다.

9·11테러 이후 항공기 테러 위협은 증가하고 있으나 최신 기종의 훈련용 항공기를 미보유하고 있고, 복합 도심지 구조물 및 다중이용시설 등이 훈련장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아 뉴테러리즘 양상에 적합한 전술훈련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노후화된 훈련장에서 훈련성과 달성이 미흡하고 해외 대테러작전부대와 연합훈련 시 국력이 저하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 2. 군 대테러체계 발전방안

우리나라는 테러 발생 시 군의 투입을 배제하고 경찰 위주 대응이 법제화되어 있으나 경찰력만으로 초기진압 및 수습에 제한이 따른다는 전문가들의 분석(김태성, 2017: 108)이 있어 경찰과 군의 대테러 관련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보완하고, 동북아 지역 국가의 안보 불확실성과 동진(東進)하는 테러조직의 다양한 테러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테러 방지 시스템 마련과 함께 언제나 대응할 수 있는 대테러작전부대 육성이 필요하다.

### 1) 군·경 대테러작전부대 동시투입 및 통합 운영

최근의 테러리스트들은 도심 전투에 숙달되어 있으며 자동화기와 폭발물로 무장하고 다수가 여러 팀으로 나뉘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계속 움직이면서 총기난사·폭탄테러·인질극 등의 테러를 혼합적으로 자행하고 있다. 인도 뭄바이테러(9차례 연쇄 테러, 2008.11.26.)<sup>15)</sup>, 프랑스 파리 테러(6차례 연쇄 테러, 2015.11.13.)<sup>16)</sup>, 벨기에 브뤼셀공항 테러(3차례 연쇄 테러, 2016.3.22.)<sup>17)</sup> 등의 사례에서 잘 알 수 있다(전수 일, 2017b).

위 사례와 같이 최근 테러 양상인 30분 이내에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 테러를 감행하는 것을 보면 대테러특공대가 도착하기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고 자동화 무기와 폭탄으로 무장된 테러범들을 권총으로 무장된 일선 경찰들이 초기 대응하는 것도 쉽지는 않다. 각 광역시·도 단위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 대테러특공대뿐만 아니라 일정 지역에 한정되어 주둔하는 군 대테러특공대와 대테러특수임무대가 헬기를 이용하더라도 전국을 상대로 30분 이내에 현장 도착하기는 쉽지 않다. 테러의 확산을

15) 초기대응한 경찰의 무장력과 진압능력은 비참하였으며, 수도 뉴델리에 주둔하던 대테러부대인 국가 보안대(일명 Black Cats)는 테러 발생 8시간이 지나서 뭄바이에 도착함으로써 대테러작전에 실패하였다(188명 사망, 293명 부상). 뭄바이 테러 후 도시 내에서의 동시적이고 연쇄적인 공격과 상징성 있는 장소의 장악으로 도시 전체를 봉쇄하고 경직되게 할 수 있음을 뜻하는 ‘도시 포위(urban siege)’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육군교육사령부, 2020: 42-23).

16) 대규모 시가전과 같았던 연쇄 테러에 진압병력이 신속히 전개하지 못하였고, 인질 사건 3시간 만에 대테러특공대가 진압작전을 실시하였으나 테러범들은 폭탄 조끼를 터트려 자폭함으로써 대테러작전에 실패하였다(130명 사망, 350여 명 부상).

17) ISIS 조직원 3명에 의해 공항 내 발권 데스크 인근에서 사제폭발물이 든 여행용 가방이 폭발하였고, 테러 발생 전 화공약품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은신처에 방문하였으나 가택 조사를 하지 않아 테러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실패하였다(32명 사망, 250명 부상).

막기 위해 테러범은 가급적 빨리 사살되고 테러 현장은 차단·봉쇄 되어야 하기 때문에 테러 발생 장소와 테러 대응기관 및 군·경의 구분 없이 테러 발생 현장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대테러작전부대가 대테러작전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sup>18)</sup>.

뉴테러리즘 양상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가지 유형으로만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경계가 모호한 동시다발적 복합테러로 발생하고 있어 경찰력만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에 부족하여 미국·프랑스 등 주요국들은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군 병력을 투입하고 있다<sup>19)</sup>. 특히 미국은 테러 대응 단계별 대응기관과 역할체계를 정립하여 1급 사태의 경우 군에서 담당하도록 하였다.

〈표 6〉 미국 테러 대응 단계별 대응기관

단계	사건 규모	대응기관
I 급 사태	국가적 대응 필요 사건	(軍)합동특수작전사령부(JSOC)
II 급 사태	국내 주요사건	연방수사국(FBI)
III 급 사태	각 주(州) 주요사건	주(州) 경찰(SWAT)
IV 급 사태	각 카운티(도시) 사건	경찰관(보안관)

자료: 노재호(2019: 73) 재구성

테러의 아픔을 많이 겪은 미국은 정부의 능력을 초과할 경우 국가위기관리 차원에서 즉각 군대 지원을 법제화<sup>20)</sup>하여 군은 기본임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적극 지원하고 있는 추세로 발전하고 있으며(이상훈, 2017: 33), 프랑스의 경우 ‘새로운 테러 진압투입 작전계획(2016.4.19.)’을 발표하면서 주요 도시에 배치된 22개 특공대에 7개 부대를 추가하였고, 전국 750여 개 소규모 부대들이 테러·인질 사건

18) 테러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초동조치, 소방·경찰군 등 각 기관의 실무적 협조 시스템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박길준·이재만·양덕열, 2013: 53).

19) 미국의 경우 애국법 제정 이후 국방부에 ‘U.S. Northern Command’를 창설하여 국내 테러 발생 시 민간인 지원을 전담토록 하고 있고(신용욱, 2016: 57), 프랑스 역시 대테러경찰여단과 국가 군사 경찰 지원부대(GIGN)가 테러 발생 시 테러 진압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며(장석현, 2006: 77), 이스라엘의 경우 대테러 대응기관으로 국가경찰(INP)·군(IDF)·국경경찰(BP)이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임무 수행하는데 국내 일반 테러는 경찰이 담당하더라도 대규모 테러는 군이 대테러를 담당하도록 체계를 정립하고 있다(이치영·정성배, 2018: 18).

20) 전쟁 이외의 작전(MOOTW, military operations other than war)이라고 하며, 군이 전쟁 이외의 상황에서 평화유지, 대테러, 비전투원 소개, 인도주의적 작전, 선박보호, 민사지원 활동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발생 시 우선 투입되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편성하여 어디에서 테러가 발생하든 20분 내 테러 진압팀이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모든 작전병력이 투입되면 ‘특수투입협력사령관’이 지정되어 전체 작전을 지휘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임승찬, 2018: 36~37).

우리와 마주하고 있는 적인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분단 현실을 고려 시 북한의 대규모 게릴라전과 후방지역 도심 테러, 화생방 테러 등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군 대테러작전부대의 군사시설 외 지역에서의 대테러작전은 일정 부분 불가피한 선택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 법규와 인권을 준수한 가운데 대테러작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최근 테러의 특성인 여러 장소에서의 동시다발 및 연쇄 테러는 골든타임 내 신속한 대응을 통해 그 확산을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하나의 테러 사건이라도 다수의 대테러작전부대들이 동시에 대응한다면 신속한 진압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테러범의 우발행동에 대한 피해확산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테러 대상과 발생 장소에 대한 구분 없이 테러 발생 장소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대테러작전 부대가 먼저 출동하여 테러범 도주로 차단 및 2차 피해확산을 방지하고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대테러특공대가 출동하여 필요시 무력 진압 작전을 실시한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과 경찰로 구분되어 있는 대테러작전 부대를 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어 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 직속의 국가안보실에서 군·경찰·국정원 등 관련 기능을 통합 운영하고 작전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합참의장을 대통령 대테러작전보좌관<sup>21)</sup>으로 임명하여 작전을 보좌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테러 발생 시 각 부대별 권한 충돌과 지휘체계 일원화를 위한 조치도 동반되어야 한다.

## 2) 대테러작전 전담부대로 군사경찰 특수임무대 운영

우리나라도 북한에 의한 대규모 대남테러가 발생할 경우, 경찰 위주 대테러작전으로는 효율적 대비가 어려워 군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김태성, 2017: 24), 주체가 불분명한 테러가 발생한다면 초기 진압을 위해 군 병력 투입은 더욱 필요하다고 보여진다(임승찬, 2018: 85).

우리나라는 북한의 도발에만 중점을 둔 대비태세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대형화

21)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의장 대통령)는 필수참가자로 합동참모의장을 군사보좌관으로 편성하여 위급상황을 극복하고 있다(이완희 외, 2017: 55).

및 동시다발적 특성을 가진 뉴테러리즘에 군 특수작전 병력을 동원하는 것은 절차상으로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어 짧은 시간에 많은 희생자를 발생시키는 뉴테러리즘의 특성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어 전국에 일정하게 분산 배치되어 있고 기동성이 뛰어난 MC(Motorcycle)와 함께 편제되어 있으며 경량화된 군사경찰 특수임무대가 우선 출동하여 대테러에 대응한다면 초기에 대량 인명피해 예방 및 테러범 도주 차단이 가능할 것이다.

북한 테러 중심의 안보체제를 뉴테러리즘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군 대테러특공대는 국외에서 우리 국민과 기업 및 선박 등을 상대로 테러가 발생하거나 북한 개성공단 등지에서 우리 국민과 기업 등을 상대로 테러가 발생했을 때 대테러작전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국내에서 발생하는 대테러작전은 군사경찰 특수임무대에서 즉각 출동하여 경찰특공대와 합동작전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임무 영역을 확대 검토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물론, 계엄령이 선포되지 않은 가운데 단지 치안 목적으로 군 병력이 출동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에 상충될 수 있으나 테러로 인한 대량피해와 확산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법권을 가진 군사경찰이 출동하는 것은 국가안보 및 국민안전을 위한 치안유지에 다소 적합할 수 있다고 본다. 군사경찰은 아직 존치(存置)되고 있는 ‘헌병무기사용령’(대통령령 제4746호, 1970.3.16.)<sup>22)</sup>이 있고,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안’이 제21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2020.12.1.)되어 제8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제14조(무기의 사용) 등의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으로 있다. 경찰 위주로 대테러작전을 진행하는 것은 북한에 의한 뉴테러리즘 경향을 외면한 처사로 군사적 혹은 비군사적 상황에서도 군사경찰이 포괄적 안보 개념하에서 적극적으로 국가안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테러에 대한 예방활동 및 상황전파·초동조치·진압작전·사후처리·사건수사 등의 대응활동도 통합되어야 한다.

### 3) 군·경 대테러작전부대 합동성 강화 및 합동훈련장 설치

군과 경찰 대테러작전부대는 평소 테러 유형별 가상상황(假想狀況) 하에서 반복숙

22) ① 생명·신체·재산을 방위 시 정황이 급박하여 무기사용 불가피 시, ② 다수의 폭행 또는 우려 시 정황이 급박하여 무기사용 불가피 시, ③ 중한 현행범을 발견하여 3회 정지 명령 후 도주 시, ④ 직무집행 중 폭행 또는 우려 시 정황이 급박하여 자위상(自衛上) 부득이 한 때.

달을 통한 실전적인 교육 훈련으로 신속한 대응을 준비하고, 테러 현장에서 군·경 합동작전 시 임무 단계의 명확한 구분과 지휘체계 일원화를 통해 최단 시간 내 테러 진압작전이 종결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뉴테러리즘 특징에 비추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대량살상 무기와 방사능 무기 등을 이용한 테러에 대비한 대테러 전문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테러 진압 및 치료와 복구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성된 교육 훈련이 필요하며, 테러 발생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파악과 함께 악화 및 확대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감 있는 훈련장에서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 전술 역량을 숙달시켜야 한다.

현재 대테러센터에서 주관하여 군 대테러훈련장인 ‘47국가대테러훈련장’에서 군·경 대테러 합동훈련을 연례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47국가대테러훈련장’은 1985.6월에 준공되어 시설이 낙후(항공기·열차·버스 등 정도만 묘사 가능)되어 있고, 현 시대적 테러 양상에 맞는 전술훈련을 할 수 없는 훈련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쇼핑몰·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묘사(드론·AI·VR 등 4차 산업과 접목한 대테러 현장 구현)할 수 있는 세트장으로 구성된 제2·제3의 대테러훈련장 신설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47국가대테러훈련장’은 제1 대테러훈련장으로 시설 개선을 통해 지금의 위치에서 서울·경기권의 인구밀집지역 및 도심지역 등 다중이용시설 대테러작전에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훈련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제2 대테러훈련장은 산업시설이 많은 남부권 지역에 설치하여 국가 중요시설과 방위산업시설 및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대테러작전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대테러 전술훈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3 대테러훈련장은 동부권 지역에 설치하여 국가급 국제행사 및 항공기 등에 대한 대테러작전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훈련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개의 훈련장이 설치된다면 군·경 대테러작전부대들이 훈련장을 순환하면서 전문성을 갖출 수도 있을 것이다. <표 7>에 훈련장별 중점 훈련시설을 예문으로 제시하였으며, 다양하고 복잡한 뉴테러리즘의 각종 테러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과학화 훈련체계(LVCG)<sup>23)</sup> 적용으로 국가·군 대테러작전부대의 훈련성과 극대화과 해외 대테러작전부대와의 연합훈련 시 국격 향상에 기여 할 필요가 있다.

23) Live(실기동훈련), Virtual(가상훈련), Constructive(위게임모델), Game(게임).

〈표 7〉 대테러 훈련장별 중점 훈련시설(예문)

구분	훈 련 시 설
제1훈련장	VR(4차 산업 관련) 대테러 종합훈련, 다중이용시설(백화점 · 지하철 등), 지하시설(지하 공동구 · 벙커 등) 등 대응 훈련장
제2훈련장	국가 중요시설, 방위산업시설, 대량살상무기 등 대응 훈련장
제3훈련장	저격수 · 장애물 극복 / 국제행사 · 항공기 · 열차 등 대응 훈련장

주: 연구자 구성

## V. 결 론

우리나라는 테러 발생 시 경찰 위주의 대응이 법제화되어 있으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복합테러에 대응하기에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군의 테러 대응체계 발전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테러 발생 시 가장 가까운 지역에 위치한 대테러작전부대가 골든타임 내 테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군·경의 구분 없이 동시에 출동하고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통합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군에서 경찰과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사법권을 가진 조직인 군사경찰 특수임무대를 전·평시 구분 없이 대테러작전 전담부대로 임무수행 할 수 있도록 평시부터 육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테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테러작전부대가 현실감 있게 전술역량을 숙달할 수 있도록 합동훈련장을 설치하여 합동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테러는 종식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 평시부터 완벽하게 대응하는 것이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지키는 첩경(捷徑)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

- 구춘권 (2005). 메가테러리즘과 미국의 세계질서전쟁. 책세상: 서울.
- 정주섭 (2008). 테러리스트처럼 생각하라. 한경사: 서울.
- 김태성 (2017). 테러리즘 확산에 따른 한국군의 역할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노재호 (2019). 경찰 대테러 활동의 발전방안. 경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박길준, 이재민, 양덕열 (2013). 다중이용시설의 폭발물 테러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무도연구소지, 24(2), pp.45-56.
- 신용욱 (2016). 한국형 자생적 테러리즘에 대한 전문가 인식 연구. 경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양철호 (2017). 테러동향 변화에 따른 군·경 테러 대응체계 개선방향. 치안정책연구, 31(3), pp.61-89.
- 이상훈 (2017). 경찰 위기관리 역량 제고에 대한 연구: 접경지역 통합방위체계 중심으로. 한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치영, 정성배 (2018). 한국·미국·이스라엘의 대테러체계 및 조직연구.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7, pp.9-31.
- 임승찬 (2018). 테러방지법과 국가 테러 대응체계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가천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장석현 (2006). 국가중요시설의 대테러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8, pp.65-92.
- 전수일 (2017a). 이슬람 테러조직 성향분석과 한국의 대테러 정책연구: ISIL 중심으로. 용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2017b). 이슬람 테러조직의 성향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5, pp.9-31.

### 2. 기타자료

- 국무총리실 대테러센터 (2017). 테러방지법 해설. 대테러센터(NCTC).
- 김선범 (2008). 안정작전. 국방대학교.
- 대한민국 국방부 (2018). 軍 대테러 편람. 국방부.

육군교육사령부 (2020). 월간 작전환경 분석(3월호). 육군교육사령부.

육군본부 (2015). 야전교범 참고-5-1, 대테러작전. 육군본부.

이완희, 황성현, 오규철, 홍승표, 정수웅, 정재훈 (2017). 군 대테러정책의 현황분석과 강화방안 연구.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테러정보통합센터 (2020). 2019년 테러정세 및 2020년 전망. 테러정보통합센터(TIIC).

합동참모본부 (2010). 합동참고교범 10-2,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 합동참모본부.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 검색일 2020.12.11.(키워드: 통합방위법), 검색일 2020.12.12.(키워드: 행정응원).

【Abstract】

## A Study of the Measures to Develop Military Counter Terror System

Jung, Byung Yun<sup>\*</sup>

Starting with the September 11 attacks, simultaneous attacks against unspecified people have not disappeared around the world. Last year, 1,663 terrorist attacks have caused a lot of casualties in 60 countries and international terrorist groups singled out Korea as terror targeted country naming it 'coalition of devils' and '62 Crusader coalition countries'.

This study was intended to establish a more advanced terror response system so that military forces can support for anti-terrorism operations at any time to complement the lack of police forces as it would be hard to effectively response to simultaneous terrorist attacks with limited police forces in Korea, where population density is high.

In order to develop the terror response system of Korea and military, this study has proposed measures such as integrating and simultaneously deploying anti-terrorism operations units of military and police, operating military police special duty team as a unit dedicated to anti-terrorism operations, founding joint training centers and strengthening jointness of anti-terrorism operations units of military and police. It is expected to serve as a momentum for the people to lead lives that are not passed down from terrorism and to strengthen national security.

**Key Words:** Counter-terrorism System, Anti-terrorism Operations,  
Anti-terrorism Operations Unit, Military Police, Special Duty  
Team

---

<sup>\*</sup>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Special Forces Command Military police(The 1<sup>st</sup> Author)



# 공군 간부의 다문화수용성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접촉이론을 중심으로 일반국민의 지수와 비교분석 —

홍 창 현 · 정 주 호



Korean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Association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 공군 간부의 다문화수용성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 접촉이론을 중심으로 일반국민의 지수와 비교분석 -

홍 창 현\* · 정 주 호\*\*

#### [ 국문초록 ]

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급변하는 현상처럼, 군도 다문화 군대로 전환되어가고 있다. 병영 내 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갈등과 그로 인한 사건사고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따라서 병영 내 예견되는 갈등과 사건사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예방하기 위해 공군 간부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문화 경험특성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일반 국민의 다문화수용성 지수와 비교 분석을 통해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한 병영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연구진행은 공군 위관·영관 장교, 하·중사 및 상·원사 등 351명의 간부를 대상으로 계층별 층화표본 추출방식으로 표집단을 선정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결과는 SPSS 18.0을 통해 빈도분석과 t-test 및 분산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상관관계분석 및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공군 간부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수용성 차이를 확인하였고, 사회심리학적 이론 중 접촉이론과 같이 작·간접적인 다문화 접촉 경험이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2012년부터 진행된 일반국민과 미래공군의 입대자원인 청소년 대상 다문화수용성 연구결과를 비교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공군 간부의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맞춤형 다문화교육과 언론과 미디어를 활용한 다문화 간접경험 증대 등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주제어:** 다문화수용성, 다문화 군대, 다문화 장병, 병영정책, 접촉이론

\* 가천대학교 경찰안보학과 박사과정(제1저자)

\*\* 가천대학교 경찰안보학과 교수(교신저자)

목 차
I. 서 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V. 결 론

## I. 서 론

우리나라는 베이비붐 세대 이후 20세기 말부터 인구가 차츰 감소하면서 외국인 노동자 및 결혼 이민 등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장기체류 외국인은 1980년대 4만명 수준에서 2017년 기준으로 200만명을 넘어서면서 다문화 사회로 급변하고 있다(법무부, 2017). 이러한 변화는 다양한 문화유입에서 오는 긍정적인 면과 함께 문화적인 이질감으로 발생하는 갈등의 문제가 예측된다. 이에 따라 정부기관에서는 안정적인 다문화사회 대비책을 마련해 오고 있다(김만하, 2018).

다문화사회 현상은 군(軍)에서도 볼 수 있다. 다문화가정의 자녀의 증가 추세와 함께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장병들이 입대하고 있다. 2014년에 만 18세 징병검사 대상 중 약 1천 7백 명이었던 다문화가정 출신 대상자가 2020년에는 3천 6백 명을 넘어서고, 2030년에 이르면 전체 군 복무자의 약 5%가 다문화장병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국방부, 2016).

다수의 선행연구 및 통계를 살펴보면, 우리 사회는 다문화사회로 급변하고 있으나 다문화수용성 수준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주민 차별 및 혐오 발언 등 사회적 갈등상황이 증가 추세이고, 다문화 청소년은 외모와 문화차이, 언어적인 문제 등으로 친구들로부터 학대, 차별을 받아 ‘학교생활 부적응’이라는 사회적인 문

제가 대두되고 있다(정주호, 2019). Agnew(1992)의 일반긴장이론에서 신체적인 고통이나 부모의 학대, 동료들의 차별이나 집단따돌림 등으로 인한 부정자극은 우울감, 두려움, 실망감, 분노, 좌절 등의 부정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이러한 부정감정이 발생할 경우 개인들은 이것을 해소하는 한 가지 방법이 범죄 혹은 일탈이라고 한다(이중협, 2017).

다문화 청소년은 곧 다문화 군대의 일원이 될 것인데, 군내 갈등 및 부적응 상황은 쉽게 예측되고 서서히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 그러므로 안정적인 다문화 군대 정착을 위해서는 장병들, 특히 간부의 다문화수용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Berry와 Kalin(1995)은 다문화수용성의 부재는 문화가 다른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편견 및 차별을 낳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군 간부의 다문화수용성이 낮을 경우 다문화 군대로의 변화에 대한 저항이 커지고 소극적인 자세를 지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김만하, 2018).

학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다문화사회와 관련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지만, 다문화 군대에 대한 연구들은 비교적 최근에 진행되었고, 연구 분야 또한 다문화 장병의 적응과 관련한 병영정책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더구나 국방부에서는 다문화 장병에 대한 차별 금지를 이유로 복무중인 다문화 장병에 대한 노출을 제한하여 직접적인 연구·조사는 제한되었다. 현재는 다문화 장병이 소수인 상황에서 부대 관리 상 특별한 제한사항은 식별되지 않지만, 다문화 장병의 급증에 따른 일반 장병과의 갈등 가능성은 쉽게 예상된다. 이에 다문화 군을 대비한 일반장병의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한 연구가 절실하다.

하지만, 군 장병에 대한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연구의 범위는 다문화 장병의 수용 및 복무적응과 관련한 정책수립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연구 대상으로는 육군 병사 또는 초급 간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장병의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연구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심으로 이루어져, 다문화 접촉경험과 교육경험이 다문화수용성에 조절효과로서 미치는 영향 연구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군대로의 전환시기에 예견되는 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갈등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하고 범죄사고 예방을 위해 공군 간부의 다문화수용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 먼저,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바탕으로 공군 간부의 다문화수용성을 측정 한 후 접촉이론을 근거로 다문화

접촉경험, 교육경험, 활동경험이 공군 장병의 다문화수용성을 향상시키는지 살펴보고 병영정책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Ⅱ. 이론적 배경

### 1. 다문화사회와 다문화 군대

#### 1) 다문화사회

多文化(Multiculturalism)는 1971년 캐나다 연방정부가 이민자에 대한 동화정책을 대신해서 소수집단과 이민자 집단의 문화적, 민족적 정체성의 유지와 보존을 인정하고 수용한 정책에서 처음 사용되었고(문경희, 2008), 그 개념은 학자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김기수(2020)는 문화적 다양성의 존재 자체를 의미하고, 사회 구성을 목표로 하는 이념적 지향을 의미한다고 한다. 김순양(2013)에 의하면 다문화는 단순한 사회현상 그 자체를 넘어서 세계화 시대에서 추구되어야 할 가치이며 지향해야 할 개념으로서 의를 갖는다고 한다. 반대로 다문화의 의미를 다소 제한적으로 사용한다는 의견도 있다. 즉 주로 다인종화, 다민족화 경향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화적 현상의 다양화를 가리키는 것으로 ‘다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이다(구정화 외, 2010). 그리고 다문화는 사회, 가정, 군대, 정책 등 세부 분야와 결합하여 쓰인다.

다문화 사회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가 다소 상이 할 수 있으나 공통된 개념을 종합해 볼 때, ‘다문화 사회’란 한 국가의 고유문화와 새롭게 유입된 여러 다른 문화가 공존하며 차별과 편견없이 기본적인 권리를 향유하는 공동체 사회로 정의할 수 있겠다. 한국사회는 오랫동안 단일민족을 지향하며 소수 이주민을 ‘국민’으로 인정하는 데에는 소극적이었다(김태홍 외, 2011). 하지만 2000년 이후 취업, 결혼 등으로 이주민의 유입이 급속화 되면서 정부 차원에서 ‘외국인정책·다문화 가족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등 다문화사회를 대비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8).

#### 2) 다문화 군대

다문화 현상은 군도 예외가 아니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세대가 급격히 증가하면

서, 입영대상도 급증하고 있다. 초중고 다문화 학생은 2010년 31,788명에서 2017년 109,387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고, 다문화 가정 자녀의 입영은 2010년에 52명, 2013년에 306명, 2016년 557명 이상이 군복무를 하였고, 2025년에는 약 8천여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국방부, 2016).

이렇듯 우리 군이 다문화 군대로 전환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군은 국가방위라는 조직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절대적인 복종이 요구되며 개인에 대한 통제가 일반사회보다 강한 조직적 특성이 있다. 이러한 조직적 특성으로 인해 다문화 가정 자녀의 입영은 한국군의 선진화 기회라는 견해와 문화적 충돌로 인한 갈등으로 기강과 단결이 저해될 수 있다는 부정적 견해가 상존한다(최선애, 2010). 특히, 다문화 장병의 가정과 학교에서의 차별과 따돌림 등 부적응 경험이 복무 부적응으로 병영 내 범죄 피해 또는 가해 가능성이 있고, 다문화 장병의 급증으로 일반 장병과의 갈등 또는 다문화 장병의 파벌이 형성됨으로써 군의 조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부정적 인식이 있다(정현석, 2019).

이처럼 다문화 장병을 보는 인식 중 긍정적 인식은 강화시키고 우려되는 부정적 인 요소는 감소시켜야 할 것이다. 병영 내 갈등과 사고요인은 일반장병의 다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태도가 원인이 되어 다문화 병사의 부적응을 촉발할 수 있다. 따라서 군 간부의 다문화수용성을 제고하는 노력은 안정적인 다문화 군대로의 전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 2. 다문화수용성 개념과 구성요소

### 1) 다문화수용성 개념

학자마다,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용어·표현·접근방식 등에서 차이는 있으나 문화 간 차이점을 인지하고 특정 국가·인종·문화 등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없이 타 문화를 인정하는 것과 수용한다는 내용은 공통적이다(이강모,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수용성을 “문화 간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없이 구성원의 다양성과 보편적 가치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태도”로 정의하고자 한다.

## 2) 다문화수용성 구성요소

다문화수용성의 개념에 따라 구성요소는 달라질 수 있기에, 연구자마다 다문화수용성의 구성요소는 다르게 표현될 수 있지만, 국내 다문화수용성 관련 연구자의 다수는 여성가족부에서 개발한 한국형 다문화수용성 진단도구(KMCI)를 통해 접근하고 있는데, 한국인의 다문화수용성을 구성요소는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이라는 3개의 차원에 총 8개 하위요소로 구성되어 있다(한국여성정책연구, 2015). 본 연구에서도 한국형 다문화수용성 진단도구(KMCI)를 기초로 공공장병에 대해 설문을 진행하였다.

‘다양성’ 차원은 타 집단의 문화나 가치를 자신의 문화와 동등하게 인정하거나 다른 문화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갖지 않는 성향을 말한다. 하위 구성요소로는 인종, 종교,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수용하는 태도인 ‘문화개방성’, 국민됨의 기준을 규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인 ‘국민정체성’, 그릇된 정보에서 비롯된 선입관이나 부정적 지식 정도로 표현되는 ‘고정관념 및 차별’ 요소들을 포함한다(최만식, 2014).

‘관계성’ 차원은 주류집단과 이민자 집단 간의 관계 설정 및 거리감과 관련된 것으로 적극적으로 통합의 관계를 맺고자 하는지에 대한 개념으로, 이주민을 한국사회에 일방적으로 동화시키고자 하는 성향을 알아보기 위해 설정된 개념이다. 하위 구성요소에는 이주민이 자신들의 정체성과 문화가치를 버리기를 바라는 ‘일방적 동화기대’, 이주민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려는 ‘거부회피 정서’, 적극적으로 교류관계를 맺고 실행하려는 ‘상호교류 행동의지’ 등의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한다(김만하, 2018).

‘보편성’은 국가와 문화의 등급화와 고정관념을 초월하여 도덕적 규범에 따르려는 경향성으로서, 상호 존중과 이해, 편견 없는 공감과 유연한 대처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설정된 개념이다. 하위 구성요소로는 외국인을 경제수준, 인종 등 이중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성을 측정하기 위한 ‘이중적 평가’와 세계 구성원으로서 인권, 기아 등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개선하려는 ‘세계시민 행동의지’가 있다(진병규, 2018).

지금까지 살펴본 다문화수용성의 구성요소를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의 축을 중심으로한 측정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다문화수용성의 구성요소 및 하위 영역별 측정개념

구성요소		측 정 개 념
다양성	문화 개방성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이주민 유입 및 정주 인정 정도
	국민 정체성	국민 됨의 자격 기준에 대해 다양성 인정 정도
	고정관념, 차별	외국인 및 이주민에 대한 고정관념과 차별 정도
관계성	일방적 동화기대	이주민의 우리 문화 동화 및 순응기대 정도
	거부·회피 정서	이주민 접촉 상황에서 비합리적인 부정적 정서 정도
	교류 행동 의지	이주민의 친교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지 정도
보편성	이중적 평가	경제개발 수준, 문화적 배경 등에 등급을 둠
	세계시민 행동의지	인류애와 같은 보편적 가치 추구 및 실천의지 정도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2015), 재구성.

### 3. 접촉이론(contact theory)

사회심리학적으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직접적인 접촉 또는 대중매체나 교육을 통한 간접 접촉을 하는 중에 문화, 인종, 사상 등의 차이로 갈등이 발생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집단 간의 편견 감소, 긴장 완화, 관계 개선을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접촉이론’이다. 접촉이론은 접촉가설(contact hypothesis)로 불리기도 하는데, 수 백년 전부터 다문화·다민족 국가인 미국에서 인종 문제연구를 해결하는 과정 중에 발전되어왔다(김만하, 2018). 대표적인 학자인 Allport는 1954년에 접촉을 통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줄일 수 있는 조건으로 ①동등한 지위, ②공동의 목표, ③집단 간의 협력, ④권위·관습의 지원 등 4가지를 제시하였다. Pettigrew(1998)는 위 4가지를 실증적 연구를 통해 증명하였다(김정희, 2018).

사회심리학자들은 ‘직접접촉’이 집단 간의 관계 개선과 고정관념 및 편견을 줄이는데 최선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상황과 여건에 따르는 현실적인 제한사항이 발생한다. 예를 들면, 군에서는 부대별 지리적 특성과 작전수행을 위한 환경에 따라 직접적인 접촉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회 여러분야에서도 이런 제한사항이 있어서 그 대안으로 인해 ‘간접 접촉’이론이 연구되었다. 사회심리학자들의 연구결과 확대된(extended) 접촉, 대리적(vicarious) 접촉, 상상된(imagined) 접촉, 의사사회(parasocial)

접촉 등 4가지 이론을 발전시켰다(김정희, 2018).

직접 접촉이 제한되는 군에서는 간접 접촉이론을 적용하되 특히, 대리접촉과 의사 사회 접촉이론을 바탕으로 장병에게 다문화에 대한 간접 접촉(교육, 교류, 행사 등)을 체계적으로 시행한다면 다문화수용성을 향상시키는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 4. 선행연구 검토

다문화 군대와 관련한 연구는 3가지 분야로 구분할 수 있겠다. 먼저 ‘다문화군대에 대비한 준비 방향’으로 2010년 초반까지는 한국군의 다문화 군대 진입에 대비한 병영환경 조성방안 등 정책제언과 관련된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다. 정민화(2010)는 미군의 인종차별 사례분석을 통한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군 적응 정책방안, 박안서(2010)는 다문화 병영환경 조성방안, 최선애(2010)는 민과 군의 다문화 군대를 대비한 준비 방향을 제시하였다.

둘째, 다문화 가정 자녀의 입영이 증가하면서 ‘다문화 장병의 복무 적응과 관련된 연구’를 위해 나태중, 노양규(2014)는 ‘다문화 군대에 부합한 병영정책과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김중배(2015)는 ‘다문화 병사의 군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대응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박재용(2016)은 ‘외국의 다문화 갈등사례 분석을 통한 한국군의 대비방안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였고, 최록하(2017)는 ‘한국군 내 다문화병사의 복무만족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셋째, 여성가족부에서는 2012년부터 일반 국민과 학생 및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다문화수용성에 관한 연구를 3년 주기로 진행하고 있다. 군과 관련해서는 최근에는 ‘다문화수용성’ ‘다문화 인식과 태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진병규(2017)는 한국군 장병의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한 수용기반구축과 정책발전 방안을 제시하였고, 김만하(2018)는 군 간부에 대한 다문화 교육경험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정현석(2019)은 군 장병의 다문화 인식이 다문화 군에 미치는 태도와의 관계를 연구하여 전력향상 방안을 연구하였다. 다만, 군에서의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연구대상은 육군의 병사 또는 초급간부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는 최근 10년간 다문화에 대한 국내 학위논문 분석결과 대부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진행된 것과 유사하다(이경민, 2017). ‘교사의 다문화수용성이 학생의 다문화수용성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류희정, 2016)와 같이 다문

화 군대에서 간부의 영향력은 조직 특성이 비추어 훨씬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군 간부의 다문화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는 것은 그 의미가 크다 하겠다(김만하,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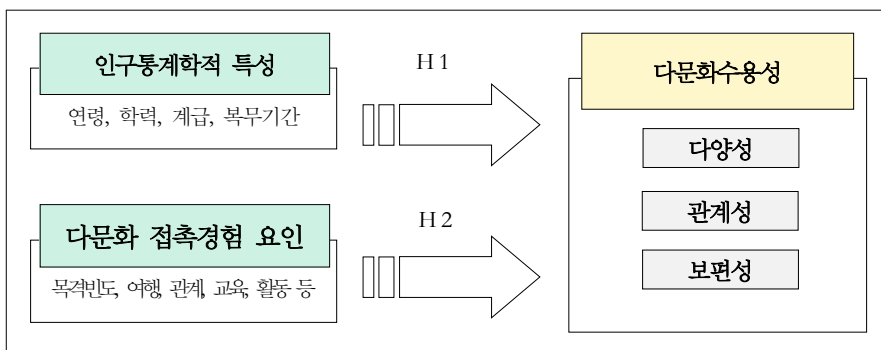
다문화수용성에 관한 연구는 개념과 측정도구 그리고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다문화수용성의 개념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보았고, 측정도구는 국내외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에 한국형다문화수용성측정도구(KMCI)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영향요인’에 대해서 서미경(2014)은 다문화 활동 경험을, 이강모(2015)는 다문화 교육 등 간접경험을, 김정수, 박진옥(2015)은 다문화 경험을, 김정희(2018)은 다문화 교육 경험과 인권감수성을, 김만하(2018)는 다문화 교육경험을 영향요인으로 두었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모형 및 가설

#####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을 위해 공군 모집단에서 층화표본추출방법을 통해 연구대상을 선정하였고,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다문화 경험 특성을 바탕으로 다문화수용성을 조사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 2) 연구가설

공군 간부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다문화 경험 특성이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연구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따라 연구모형을 구성하고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공군 간부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다문화 접촉경험 특성으로 인해 다문화수용성은 차이가 있는가?

[인구통계학적 특성 관련]

가설 H1-1 연령에 따라 다문화수용성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H1-2 학력에 따라 다문화수용성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H1-3 계급에 따라 다문화수용성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H1-4 복무기간에 따라 다문화수용성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다문화 접촉경험 특성 관련]

가설 H2-1 외국인/이주민의 목격빈도는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H2-2 해외여행 경험은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H2-3 외국인 관계 및 접촉 빈도는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H2-4 다문화 교육 경험은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H2-5 다문화 행사, 봉사활동 및 동호회 활동 참여는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공군 간부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다문화 접촉경험 특성을 통해 공군장병의 다문화수용성과 집단별 차이를 살펴볼 것이다. 따라서 독립변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다문화 접촉경험 특성으로 두고, 종속변수는 다문화수용성이 된다.

종속변수인 다문화 수용성은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이라는 3개의 차원에 총 8개 하위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다양성은 타 집단의 문화나 가치를 부정적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갖지 않고, 차별하지 않는 성향으로서,

‘문화개방성’, ‘국민정체성’, ‘고정관념 및 차별’ 요소들을 포함한다. 관계성은 주류집단과 이민자 집단 간 적극적인 통합 관계를 맺고자 하는지를 알아보는 개념으로, ‘일방적 동화기대’, ‘거부회피 정서’, ‘상호교류 행동의지’ 등의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한다. 보편성은 외부세계에 대한 등급차이와 문화차이를 초월한 상위의 도덕적 규범에 따르려는 경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설정된 개념으로 ‘이중적 평가’와 ‘세계시민 행동의지’가 있다(한국여성정책연구, 2015).

독립변수는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다문화수용성의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군 간부의 연령, 학력, 계급, 근무년수를 알아보았다. 다만, 군 간부의 특성상 소득 수준은 계급에 따라 큰 차이가 없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거주지 의미가 적어 제외하였다. 그리고 다문화 접촉경험 특성은 이주민 목격빈도, 해외여행 경험, 인적교류 관계, 다문화 교육경험, 다문화 행사·봉사 경험 등을 독립변수로 두었다.

## 2. 연구대상 및 조사도구

### 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공군 간부 351명을 대상으로 연령 및 계급을 고려하여 장교(영관, 위관) 그룹과 부사관(상·원사, 하·중사) 그룹, 군무원 그룹으로 표집단을 선정하였다. 모집단 표본추출방법은 확률적표본추출방법 중 층화표본추출방법을 사용하였다. 층화표본추출방법은 각 집단계층별로 표본크기를 결정할 때, 각 집단계층별로 구성비율을 고려해서 표본을 추출하는 방식인 비례층화표본추출으로, 이 방법은 조사대상을 여러 개의 하위 집단이나 층으로 분류한 다음, 각 하위집단이나 층의 모집단으로부터 일정크기의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표본오차를 줄일 수 있고 표본의 대표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송지준, 2012).

〈표 2〉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분포

구 분		빈도수(명)	구성비율(%)
연령	20대	99	27,0
	30대	97	26,4
	40대	146	39,8
	50대	25	6,8
학력	고등학교 졸업	52	14,2
	대학 재학/전문대졸업	79	21,5
	대학 졸업	108	29,4
	대학원 이상	128	34,9
계급	병사	43	11,7
	하·중사	59	16,1
	상·원사	65	17,7
	위관장교	50	13,6
	영관장교	126	34,3
	군무원	24	6,5
복무년수	3년 미만	75	20,4
	3년~10년	65	17,7
	11년~20년	93	25,3
	21년 이상	134	36,5

## 2) 설문조사

연구문제 및 가설에 대한 검증을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방법은 부대의 보안성 검토와 설문승인을 받아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는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방식으로, 코로나-19 등 현상황을 감안하여 인터넷 설문방식을 이용하여 2020년 10월 5일부터 14일까지 본 조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지 구성은 첫째,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다문화 경험 특성과 관련한 문항과 둘째, 공군 간부의 다문화수용성 지수를 측정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 문항은 2012년 개발된 한국형다문화수용성측정도구(KMCI)를 활용하여 본 연구목적에 맞도록 수정하였다. 다문화수용성 지수는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이라는 3개 차원, 총 8개 하위 구성요소에 대해 35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6점 Likert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약간 그렇지 않다, 4: 약간 그렇다, 5: 그렇다, 6: 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다.

〈표 3〉 다문화수용성 설문지 문항 구성

구분			문항 수
①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다문화 접촉경험특성	계급, 학력, 연령, 근무년수		4
	목격빈도 · 관계, 해외여행 · 거주, 다문화교육, 다문화 활동경험		9
② 다문화수용성	다양성	문화 개방성	4
		국민 정체성	4
		고정관념/차별	7
	관계성	일방적 동화기대	4
		거부 · 회피 정서	3
		교류 행동 의지	4
	보편성	이중적 평가	4
		세계시민 행동 의지	5
총 계			48

본 연구에서 사용한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측정도구는 KMCI를 준용하였는데, KMCI와 청소년 측정도구인 KMCI-A는 측정도구 연구진에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두 척도 모두 양호한 수준의 TLI, CFI, RMSEA 등의 적합도 지수를 보였다(여성가족부, 2018). 본 연구의 설문항목에 대한 신뢰성 분석결과 Cronbach 계수( $\alpha$ )가 .931로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 측정변수의 분포와 신뢰도

변 수		N	항목수	평균	표준편차	Cronbach' $\alpha$
다문화 수용성	다양성	351	15	4.43	0.84	.904
	관계성	351	11	4.24	0.85	.859
	보편성	351	9	4.18	0.72	.711
	전체	351	35	4.34	0.80	.931

### 3) 통계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SPSS 18.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고, 공군 간부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다문화 접촉경험에 대한 응답의 분포를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독립변수,

[illegible]

여행 경험	.122*	.485**	.411**	.150**	.177**	1													
관계 유형	.012	.065	.037	-.038	.146**	.207**	1												
교육 경험	-.012	.013	-.010	-.027	.084	-.062	.032	1											
행사 경험	-.021	.113*	.116*	.028	.184**	.241**	.305**	.138**	1										
봉사 경험	.004	-.056	-.034	-.033	.130*	.116*	.279**	.121*	.437**	1									
동호회	.001	.086	.117*	.036	.170**	.169**	.310**	.022	.536**	.388**	1								
다양성	-.066	.007	.063	-.050	.150**	.127*	.218**	.117*	.089	.200**	.058	1							
관계성	-.078	-.060	-.027	-.012	.175**	.119*	.178**	.081	.080	.144**	.066	.729**	1						
보편성	-.039	-.065	.005	-.042	.186**	.040	.157**	.199**	.070	.092	.023	.523**	.624**	1					

\*.p <0.05, \*\*.p <0.01

먼저,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문화수용성과 상관관계상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접촉경험 특성은 다문화 수용성과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었다. 외국인 목적비도와 관계유형에 따라 전 영역에서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해외여행 경험은 다양성, 관계성에서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일상생활에서 외국인 목적 또는 관계가 형성되었거나 해외여행을 통한 경험을 통한 접촉빈도가 높아질수록 다문화에 대한 고정관념 및 차별이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다문화 교육경험은 다양성과 관계성에서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었다. 다문화 활동 경험 중 단순 행사 및 동호회활동은 상관관계상 유의하지 않았으나, 봉사활동은 다양성과 관계성에서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었다.

## 2. 집단간 다문화수용성 차이 분석

공군 간부의 다문화수용성 차이가 어떠한지 살펴보기 위해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다문화 접촉경험 특성에 따른 집단간 t-검정과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고, 3집단 이상의 분산분석에서 차이가 날 때는 scheffe를 통해 사후분석으로 검증하였다.

## 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

공군 간부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집단간 차이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연령별로는 20대, 40대, 30대, 50대 순으로 나타났고 F값은 3.037,  $p < .029$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학력에 따른 차이는 고등학교 졸업 계층에서 높게 나왔고 대학재학 또는 전문대 졸업 계층이 낮게 나왔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신분(계급)별로는 군무원 계층이 높게 나왔으며 상·원사 계층과 위관 계층이 낮게 나왔다. 복무년수 별로는 3년 미만 복무자의 지수가 높았고 11년~20년 복무한 계층에서 가장 낮게 나왔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수용성 차이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t/F	p	scheffe/T3
연령	20대	59	74.1	11.2	3.037	.029	
	30대	109	70.8	12.3			
	40대	156	72.9	11.2			
	50대	27	66.6	15.7			
학력	고등학교 졸업	47	76.3	10.3	4.27	.060	
	대재/전문대졸	55	67.8	13.2			
	대학 졸업	112	72.0	13.0			
	대학원 이상	137	72.0	10.9			
신분 (계급)	하·중사	64	72.7	11.6	.381	.822	
	상·원사	74	70.9	13.6			
	위관장교	53	71.1	13.4			
	영관장교	136	72.1	11.0			
	군무원	24	73.7	11.6			
복무 년수	3년 미만	33	75.6	11.4	1.497	.215	
	3년~10년	70	71.4	11.1			
	11년~20년	106	70.7	12.9			
	21년 이상	142	72.3	11.9			

\*.p &lt;0.05, \*\*.p &lt;0.01

## 2) 다문화 접촉경험 특성에 따른 차이

공군 간부의 다문화 접촉경험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외국인 목격빈도에 따른 다문화수용성 차이는 자주 목격할수록 수용성이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일반 국민대상 조사결과와 일치한다. 해외경험에 따른 차이는 3회 이상 경험자는 높게 나왔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외국인과의 관계에 따른 다문화수용성 지수는 친척, 이웃, 친구, 동료 순으로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외국인과의 관계가 형성된 응답자 수가 29%에 지나지 않아 일반화하여 해석하기에는 유의가 필요하다.

다문화 교육경험에 따른 차이는 유경험자가 무경험자보다 높게 나왔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또한, 외부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이 이루어졌을 때 교육의 효과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방부에서는 반기 1회 2시간 다문화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토록 하였는데, 일부 지휘관에 의한 교육을 일반적인 정신교육 정도로 생각하여 다문화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강사에 의해 교육이 진행되어야 하고, 외부 강사에 대한 인력풀 확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문화 접촉경험을 높이기 위한 행사참여와 관련하여서는 일반적인 행사나 각종 동호회 활동 유경험자가 무경험자보다 다문화수용성이 높았지만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주목할 것은 다문화 봉사활동에 참여한 계층의 다문화수용성은 미참여 계층에 비해 정적인 차이가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값을 확인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표 7〉 다문화 접촉경험 특성에 따른 다문화수용성 차이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t/F	p	scheffe/T3
외국인 목격빈도	전혀 없다	2	55.7	3.5	5.126	.001	b<e
	거의 없다	30	65.4	10.3			
	가끔 본다	209	72.2	11.8			
	자주 본다	94	72.4	12.5			
	매우자주 본다	16	80.0	9.9			
해외 여행	전혀 없다	53	70.7	11.5	2.219	.086	
	1~2회	115	70.1	13.9			

경험	3~5회	120	73.0	11.2			
	6회 이상	63	74.3	10.0			
외국인 관계	없음	252	70.2	12.3	6.03 9	.000	a(b,d)
	이웃	25	78.4	10.9			
	동료	35	73.0	10.5			
	친구	30	77.6	9.1			
	친척	9	79.6	10.5			
다문화 교육 경험	없다	161	70.5	12.0	2.37 2	.070	
	1회	61	72.0	11.6			
	2회	93	72.8	12.0			
	3회 이상	36	76.1	12.8			
교육 주관	지휘관	15	72.7	10.8	1.06 9	.362	
	군 전문강사	58	71.0	12.2			
	외부 전문강사	125	73.4	12.2			
	없음	153	71.0	12.0			
다문화 행사참여	없다	256	71.2	11.8	3.00 3	.084	
	있다	95	73.8	12.5			
다문화 봉사활동	없다	310	71.1	11.9	11.3 0	.001	
	있다	41	77.8	11.9			
다문화 동호회	없다	284	71.6	12.0	1.33 1	.249	
	있다	67	73.5	12.4			

\*,p <0.05, \*\*,p <0.01

### 3) 다문화 접촉경험 특성과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공군 간부의 다문화 접촉경험 특성에 따라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상관계수는 .313 이고,  $R^2 = .098$ 로 독립변수인 다문화 접촉경험 특성이 종속변수 다문화수용성에 대해 9.8% 설명하고 있다. 외국인 목격빈도는 다문화수용성에 대하여 유의수준  $p<.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여행횟수와 다문화 봉사활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값이 나왔고, 외국인과의 관계형성은 유의수준  $p<0.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다문화 교육 경험은 유의수준  $p<0.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다문화 접촉경험 특성중 하위요인은 목격빈도, 외국인 관계는 가설을 채택하고, 다문화 교

육경험과 다문화 봉사활동은 앞서 ANOVA 차이검증결과를 고려하여 부분채택 되었다.

〈표 8〉 다문화 접촉경험 특성과 다문화수용성 회귀분석

종속 변수	독립 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계수	t값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 오차	$\beta$			공차 한계	VIF
다문화 수용성	상수	53.100	3.686		14.404	.000		
	목적 빈도	2.335	.910	.135	2.567	.011	.943	1.061
	여행 횟수	.774	.674	.061	1.148	.252	.925	1.081
	외국인 관계	1.646	.587	.152	2.804	.005	.885	1.131
	교육 경험	1.269	.589	.112	2.155	.032	.973	1.028
	다문화 봉사	3.629	2.028	.096	1.789	.074	.900	1.111
	R = .313, R <sup>2</sup> = .098, 수정된 R <sup>2</sup> = .085, F = 7.507, p = .000							

\*.p <0.05, \*\*.p <0.01

#### 4) 연구문제 및 가설에 대한 검증 결과

본 연구를 위해 제기된 연구문제와 연구가설에 대한 검증 결과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먼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있어서 연령에 따른 유의성이 입증되어 채택되었다. 다문화 접촉경험 특성으로는 외국인 목적빈도와 외국인과의 관계 형성에 따른 정적인 영향을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여 가설을 채택하였고, 다문화 접촉 활동에 있어서는 다문화 행사와 동호회 활동은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고, 봉사활동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어 부분으로 채택되었다.

[연구문제] 공군 장병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다문화 접촉경험 특성은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표 9〉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가설 검증 결과

가 설	결과
[인구통계학적 특성 관련]	
가설 H1-1 연령에 따라 다문화수용성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채택
가설 H1-2 학력에 따라 다문화수용성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각
가설 H1-3 계급에 따라 다문화수용성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각
가설 H1-4 복무기간에 따라 다문화수용성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각
[다문화 접촉경험 특성 관련]	
가설 H2-1 외국인/이주민의 목격빈도는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H2-2 해외여행 경험은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 H2-3 외국인 관계 및 접촉 빈도는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H2-4 다문화 교육 경험은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채택
가설 H2-5 다문화 행사, 봉사활동 및 동호회 활동 참여는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채택

#### 4) 일반 국민 및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지수와 비교 분석

여성가족부에서는 매년 3년 주기로 일반 국민과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을 측정하고 있다. 2018년 측정결과는 2015년에 비해 청소년은 높아지고(67.63→71.22), 성인은 53.95에서 52.81로 다소 낮아졌다. 성별은 남성(53.31)이 여성(52.28)보다 다소 높았고, 연령이 낮을수록 다문화수용성 지수는 높게 나오는 일관된 결과가 나타났고 이는 공군 간부에 대한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석사이상의 표집수가 지나치게 적어 해석에 유의가 필요하다.

다문화 접촉경험 특성 관련, 일반 국민 중 외국인을 자주 목격하는 집단이 다문화 수용성이 높았고, 이주민과의 관계(이웃, 친척, 친구, 동료 등)에 있어서 주변에 이주민이 없는 집단의 다문화수용성이 51.27로 가장 낮았다. 이 또한 본 연구결과와 동일한 결과이다. 해외여행 및 거주 경험이 있는 집단(63.3%)이 없는 집단보다 높았으며, 여행 횟수가 늘어날수록 다문화수용성도 증가하였다. 다문화 교육 참여집단의 다문화수용성이 높았고, 다문화 활동경험은 행사참여, 봉사활동, 동호회활동 공통적으로

참여 집단의 다문화수용성이 미참여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실시하지 않았던 다문화수용성과 대중매체 접촉빈도 간 상관관계는 긍정적 상호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접촉이론 중 ‘의사사회 접촉이론’의 효과성을 입증한 것으로, 향후 본 연구의 후속과제를 통해 인터넷, 유튜브 등 대중매체를 이용한 다문화 교육 및 홍보의 효과성을 검증 할 필요가 있겠다.

미래의 공군 입대자원인 청소년 대상 조사결과는 그 의미가 크다. 전반적으로 다문화수용성 지수는 2015년 대비 전 영역에서 소폭 상승했다. 청소년 관련 통계로 41.1%가 일상 속에서 다문화 자녀와 관계가 형성되어있고, 8.8%는 갈등 경험이며, 다문화교육 경험은 32.4%가 있었다. 하지만, 청소년기를 지나 20대의 다문화수용성은 2015년 대비 하락하였다. 입대시기 전에 다문화수용성이 하락한다면 그 영향은 입대 후 군에서 표출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 10>과 같다.

〈표 10〉 다문화 접촉경험 특성에 따른 다문화수용성 차이

구분		다문화 수용성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		
			소계	문화 개방성	국민 정체성	고정 관념 및 차별	소계	일방적 동화 기대	거부 회피 정서	교류 행동 의지	소계	이중적 평가	세계 시민 행동 의지
일반 국민	20 12	51.17	53.23	48.08	48.84	61.73	49.86	49.91	55.17	43.61	49.85	46.96	53.00
	20 15	53.95	55.15	49.36	50.32	64.60	53.45	46.44	66.01	45.81	52.76	48.88	56.98
	20 18	52.81	53.90	49.34	48.78	62.58	51.59	45.69	64.46	42.48	52.98	48.25	58.13
공 군 간 부	국민 ±	19.16	20.31	17.82	24.55	18.25	19.57	20.14	14.54	24.52	16.54	15.41	17.53
	20 20	71.97	74.21	67.16	73.33	80.83	71.16	65.83	79.00	67.00	69.52	63.66	75.66
	± 청소년	0.75	3.11	-0.15	2.99	-6.51	-2.56	0.86	3.00	-11.4 9	2.69	-1.18	6.65
청 소 년	20 18	71.22	71.10	67.31	70.34	74.32	73.72	64.97	76.00	78.49	66.83	64.84	69.01
	20 15	67.63	67.13	63.88	65.58	70.62	70.09	61.53	72.25	74.83	64.03	61.49	66.83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진병규(2018)는 육군 병사(72.8%)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다문화수용성은 70.06, 다양성은 74.73, 관계성은 68.54, 보편성은 64.11로 공군 간부와 유사한 결과 값이 나왔으나, 본집단의 계층 및 연령대의 불일치로 해석상 주의가 요구된다. 김만하(2018)는 질문지는 KMCI를 활용하였으나 답변 척도를 6점에서 5점으로 변환하여 본 연구와 직접적인 비교분석은 제한되었다. 김정희(2018)는 552명의 육군 간부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고 분석결과 다문화수용성 지수는 공군 간부보다 전반적으로 낮았으나, 표본집단의 연령대와 특성에서 다소 차이가 있어 해석상 유의가 필요하다.

## V. 결론 및 제언

국회미래연구원에서 발간한 ‘2050 대한민국 미래 보고서’에는 30년 전인 1990년으로 돌아가 ‘30년 뒤 세상을 상상해보라’고 한다. 화상통화, 하늘을 나는 자동차 등 상상했던 많은 일들이 현실이 되었다. 하지만 인구 절감, 환경문제, 코로나-19와 같은 사회문제를 상상하고 국가 차원에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했더라면 지금 우리 사회는 많이 달랐을지 모른다. 지금부터 30년 후인 2050년은 어떻게 예측하고 준비한다면 위기와 갈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세계화와 다문화라는 시대적인 흐름은 바꿀 수 없다. 국가적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10년, 20년 후의 미래가 결정된다. 우리 사회는 다문화 사회로 급변하고 있으나, 변화를 수용할 수준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군도 마찬가지다. 군의 다문화수용성이 낮다면 다문화 군대로의 변화에 대한 저항이 커지고 소극적인 자세를 지닐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다(김만하, 2018). 반대로 다문화수용성이 높아진다면 병영 내 예견되는 갈등과 문제요소에 대해 적극적인 해법을 강구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공군 간부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바탕으로 다문화수용성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다문화 경험 특성이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하였다. 특히, 접촉이론을 근거로 다문화 교류, 교육, 활동경험이 다문화수용성을 향상시키는지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군 간부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수용성 차이를 확인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육군 병사 내지는 초급간부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공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장기복무 간부 중심으로 공군의 다문화수용성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젊은 연령에서 다문화수용성 지수가 높았고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났다. 신분(계급) 관련 분석결과로는 상·원사 계층과 복무년수에서는 11년 이상 장기 복무 계층에서 다문화 수용성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중간 간부 역할을 수행하는 부사관 계층과 30대에 대한 맞춤형 정책수립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둘째, 공군 장병의 다문화 경험 특성이 따른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접촉이론을 바탕으로 분석해볼 때, 외국인 또는 이주민과의 직·간접적인 접촉 경험이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설문 분석 결과 이주민 목격빈도와 외국인과의 관계가 형성된 계층 그리고 다문화 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계층은 다문화수용성이 높고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다문화 경험 특성과 다문화수용성의 회귀분석 결과 다문화 교육경험이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해외여행이나 일방적인 다문화 행사로 인한 차이는 미비하였고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셋째, 선행연구에서 진행한 다문화수용성 측정지수와 공군간부의 다문화수용성 지수를 비교분석하였다. 우선, 2012년부터 진행된 일반국민과 미래 공군의 입대지원인 청소년 대상 다문화수용성 연구결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일반 국민의 다문화수용성 지수는 2015년보다 다소 하락하였고, 청소년 계층은 소폭 상승하였다. 공통적으로 다문화 교육 및 교류관계가 형성된 계층의 지수가 높았다. 공군 간부는 주기적인 다문화 교육 등을 통해 일반 국민보다 높았고 청소년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다만, 청소년이 20대 청년이 되면서 다문화수용성 지수가 급감하는 현상은 입대 후 군에서 그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기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를 통해 급변하는 다문화 군대 내에서 일반 장병과 다문화 장병의 갈등으로 인한 범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인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다문화수용성은 국가의 다문화정책을 통해 다문화사회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적 의미가 크다.

따라서 다문화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와 군의 다문화 정책에 있어서 그 대상은 이주민과 다문화 장병이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계층별 맞춤형 다문화 교육을 진행하고, 교육자료를 최신화해야 한다. 특히, 공군 지휘관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진행하고 취약계층인 상·원사 계층에 대한 교육을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 다문화지원센터와 연계하

여 다문화 봉사활동 등 직접접촉 경험과 함께 다각적인 미디어콘텐츠를 개발하여  
간접적인 다문화 경험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공군 간부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면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용  
적 학문적 연구성과를 달성하였으나, 향후 다문화 장병 등 다문화 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군의 정책이 제대로 수립되어 진행되는지 검증하는 후속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

- 구정화, 설규주, 박윤경 (2010). 다문화 교육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 국방부 (2012). 다문화 군대 대비 종합대책. 서울: 국방부.
- \_\_\_\_\_ (2015). 2015년 다문화 군대 대비 추진계획. 서울: 국방부.
- \_\_\_\_\_ (2016). 2016년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 국회미래연구원 (2020). 2050 대한민국 미래 보고서. 서울: 이학사.
- 법무부 (2017b). 2017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 월보 11월호. 서울: 법무부.
- 병무청 (2016). 병역자원현황(1996~2015). 병무통계연보. e-나라지표.
- 서종남 (2010). 다문화 교육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 송지준 (2012). SPSS/AMOS 통계분석방법. 경기 파주: 21세기사.
- 여성가족부 (2018). 제3차 외국인정책·다문화 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
- 한국여성정책연구 (2012).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연구.
- \_\_\_\_\_ (2015).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연구.
- \_\_\_\_\_ (2018).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연구.
- 한국사회과교육연구회 (2011). 다문화 교육의 이론과 실제. 파주: 이담books.
- 김기수 (2020). 다문화사회 제노포비아 현상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원대학교.
- 김만하 (2018). 한국군 간부 다문화수용성 영향요인 연구: 다문화교육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성결대학교.
- 김순양 (2013). 한국 다문화사회의 이방인 : 사회적 배제와 정책적 대응. 서울 : 집문당.
- 김정수, 박진옥 (2015). 장교 후보생의 다문화 경험에 따른 다문화 인식 및 다문화 군대에 관한 태도-경상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집, (61), 121-146.
- 김정희 (2018). 군 간부의 다문화 교육 경험과 인권감수성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 나태종, 노양규 (2014). 다문화군대에 대비한 한국군의 병영정책 발전방안. 다문화교육연구, 7:4, 55-80.
- 문경희 (2008). 호주 다문화주의의 정치적 동학. 국제정치논집, 48:1.
- 박안서 (2010). 다문화장병 입영에 따른 병영환경 조성방안. 국방정책연구, 26:4, pp. 177-207.

- 양철호, 박상록 (2017). 현역장병의 군 사고예방을 위한 다문화수용성에 관한연구. 위기관리 이론과실천, 13:7, 1-15.
- 이강모 (2015). 다문화 수용성의 결정요인 연구: 다문화 교육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호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윤수 (2018). 다문화 군인에 대한 장교들의 인식과 군 정책 방향. 국방정책연구, 34:2, pp.47-71.
- 이종협 (2018). 일반긴장과 자기통제가 군장병의 부대적응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민화 (2010).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군 적응정책 방안: 영주권 병사의 실태분석과 미군의 사례를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주호 (2019).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사회적 차별경험이 학교 폭력범죄 피해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현석 (2019). 군 장병의 다문화 인식과 태도분석에 따른 전력향상방안 연구. 한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진병규 (2018). 한국군 장병의 다문화 수용성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선애 (2010). 다문화 군대를 대비한 민과 군의 준비방향에 관한 제언. 한국군사회복지학, 3:1, pp.93-113.
- 최재천 (2017). 다문화사회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대응 방향에 관한 실증연구. 한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 외국문헌

- Agnew, R. (1992). Foundation for a general strain theory of(1992). Foundation for a general strain theory of crime and delinquency. *Criminology*, 30(1): 47-88.
- Allport, G. W.(1954). *The nature of prejudice*. Cambridge: Addison-Wesley.
- Bennett, M. J.(1993). Towards Ethnorelativism: A Development Model of Intercultural Sensitivity. In: Paige, R. M. (Eds.), *Education for the Intercultural Experience*, Yarmouth Me: Intercultural Press, pp.21-71.
- Berry, J. W.(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6, 5-34.
- Bennett, M. J.(2004). Developing Intercultural Sensitivity. In: Landis, D., J. M. Bennett and M. J. Bennett (Eds.), *Handbook of Intercultural Training*, 3rd Eds; Thousand Oaks, CA: Sage.
- Berry, J. & Kalin, R.(1995). Multicultural and Ethnic Attitudes in Canada: An Overview of the 1991 National Survey. *Canadian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Vol. 27(3), pp. 301-320.

- Berry, J. E.(2005). Acculturation Living Successfully in Two Cultures. *Internationals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Vol. 29, pp. 697-712.
- Crisp, R. J. & Turner, R. N. (2009). Can imagined interactions produce positive perceptions?: Reducing prejudice through simulated social contact, *American Psychologist*, 64(4), 231-240.
- Hoopes, D. S. (1979, 1984). Intercultural Communication Concepts and the Psychology of Intercultural Experience. In: Pusch, M. D. (Ed.), *Multicultural Education: A Cross-Cultural Training Approach*. Intercultural, pp.9-42.
- Pettigrew, T. F.(1998). Intergroup Contact Theory.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49, pp.65-85.

【Abstract】

**A Study on the Influence Factors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on Air Force  
Officials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Index of the General  
Public Focused on the Theory of Contact—**

Hong, Chang Hyun<sup>\*</sup> · Jung, Ju Ho<sup>\*\*</sup>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multi-cultural experience that affect the multi-cultural acceptability of air force officials in order to actively respond to and prevent conflicts and accidents expected in the barracks, and to provide basic data on the establishment of military policies to enhance multi-cultural acceptability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multicultural water availability index of the general public.

This study was conducted on 351 officials, including lieutenants/commissioned officers of the Air Force, and senior/commissioned officers, using stratified sampling methods. Frequency analysis, t-test and dispersion analysis were conducted for the survey results through SPSS 18.0,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is study found that direct and indirect multicultural contact experiences, such as contact theory, have an positive(+) effect o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Contact experience confirmed that it has an emotional effect o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The results of the 2012, 2015, 2018 multi-cultural acceptability study on the general public and youth, who are resources of the

---

\* Gachon University Dept. of Police Security Course of Ph.D(The 1<sup>st</sup> Author)

\*\* Gachon University Dept. of Police Security Professor(The Corresponding Author)

Future Air Force, were compared and analyzed to create policy implications such as custom-made multicultural education and increased multicultural experience for air force officers.

**Key Words:** Multi-cultural Acceptability, Multi-cultural Forces, Multi-cultural soldiers, Military policy, Contact Theory



# 엘리트 무도선수의 인권의식에 따른 성취목표성향 및 운동몰입에 미치는 영향

김 대 근 · 정 성 배 · 성 낙 훈



Korean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Association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 엘리트 무도선수의 인권의식에 따른 성취목표성향 및 운동몰입에 미치는 영향

김 대 근<sup>\*</sup> · 정 성 배<sup>\*\*</sup> · 성 낙 훈<sup>\*\*\*</sup>

### [ 국문초록 ]

이 연구는 엘리트 무도선수에 대한 인권의식을 알아보고 선수가 인식하는 성취목표와 운동에 대한 몰입도 관계를 알아보는데 있다. 즉, 인권의식이 이슈화 되면서 선수에 관한 인권보호와 보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탈방지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하는 태도와 동료와의 관계, 운동몰입 간의 성향을 파악 함에 있다. 또한 엘리트 무도선수의 정기적인 인권의식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지도자들의 인권교육에 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에 있다. 엘리트 무도선수는 중등교육과 다른 환경에서 자신이 설정한 목표에 책임이 따르게 된다. 이는 이탈행동과 성공적인목표성향 두 관점에서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성공적인 목표설정과 몰입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대학스포츠선수를 대상으로 편의표준추출법으로 267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자료처리는 SPSS 21.0/Amos 21.0 Version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상관분석 및 구조방정식(SEM)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인권의식, 성취목표성향에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취목표가 높게 측정될수록 운동몰입과 밀접한 경기력이 계속하여 발전해 나갈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는 대학운동선수의 사회적 관점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차후 목표지향적인 관계형성 반 사회적 행동에서 자유로질 것이며, 선수를 바라보는 폐쇄적인 관점에서 현재 대학선수에 관한 새로운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 사료된다.

**주제어 :** 엘리트 무도선수, 무도, 인권의식, 성취목표, 운동몰입

<sup>\*</sup> 대전대학교 생활체육학과 교수(제1저자)

<sup>\*\*</sup> 국제대학교 경호보안학과 교수(교신저자)

<sup>\*\*\*</sup> 용인대학교 체육학과 교수(공동저자)

목 차
I. 서 론
II. 연구방법
III. 연구결과
IV. 논의
V. 결 론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대학스포츠는 비약적인 한국체육의 발전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여왔으며, 다양한 국제스포츠대회를 통해 스포츠 강국으로써 선진 스포츠화 진입에 성공한 모습들을 보여왔다(전기찬, 2011). 대한체육회(2019)에 따르면 현재 60개 종목 그중 학교 등록팀은 195개소로 13,100명 선수들이 운동부 소속으로 등록되어 있다. 이러한 대학 소속 엘리트 무도선수는 자신의 목표를 위해 끊임없는 학업과 훈련을 통해 성취목표 그리고 사회적응에 대한 방향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김범준, 2016). 특히, 대학생활간 일반 학생들과 다른 학업수준을 경험하게 되고, 선진스포츠 국가에 비해 학업보다는 진로방향을 결정하는 시점이라 인식 하기 때문에 대학생활의 이탈로 이어지고 있다(김가은, 2019). 이러한 환경은 대학 엘리트 무도선수들에게는 더욱 큰 부담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으며 선수생활을 중도에 포기하는 심리적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다(송은일, 이종호, 2018).

대부분의 대학 엘리트 무도선수들은 일반대학생과 달리 선수로써 더 많은 노력이 요구를 받으며 다양한 경험을 통해 실패가 거듭되면서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으로 사회화를 경험하고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게 된다(황민우, 2017). 이러한 환경은 승리

지상주의적 관점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으로 자신이 처한 비정상적인 환경으로 올바른 인권의식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환경을 맞이하고 있다는 점이다(신정욱, 2010).

대학엘리트 무도선수들의 훈련 중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 등 발행되는 인권 침해로 이어져 사회적 이슈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부분 자신 또는 팀 동료들로 하여금 묵인하는 형태로 변질되어 지고 있다(박순오, 2010). 이는 단순히 경기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수준에서 벗어나 중도포기, 개인손실은 물론 동료들과의 부정적인 관계로 이어지며, 반사회적 성향을 갖게 된다. 특히 윤리의식은 선수-지도자-학부모-팀동료들에게 가장 결핍되어 있는 표상일 것이며, 실제로 현장에서는 윤리적인 사건들이 발생되어 지고 있고, 인성, 도덕, 인격 등 유사한 개념들과 혼용되어 사용되어지고 있다(임다연, 2016).

최근 스포츠인권센터(2015)는 선진스포츠 국가의 대책에 관한 예방법은 물론 대학 스포츠선수에게 관한 운동, 진로, 대인관계, 문제행동 및 부적응, 숙소생활 등을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적응 가능한 대학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을 통해 선수의 개개인의 기본적인 권리와 침해상황에서 선수를 보호하는 측면과 함께 선수로 하여금 성취목표에 대한 성공의 경험과 운동몰입으로 작용하게 된다(김자영, 2012).

성취목표성향은 대학 엘리트 무도선수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성취목표를 설정하고, 성공과 실패를 평가하는 기준점을 두고 어떠한 차이를 말하는 것으로서 학습향상 정도에 대한 타인의 초점에 의해 수행결과를 통해 목표성향 방향을 제시 할 수 있다(강현우, 장세용, 최원민, 2015). 따라서 성취목표향상은 운동몰입과 연관되어 실질적인 경기력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이소진, 2018). 이는 운동에 완전하게 몰두했을 때 일어나는 심리적 상태로 즉, 운동몰입 정도를 말하며 스포츠몰입 긍정적인 경험정도에 따라 자기조절 능력을 촉진시킴으로써 경기력을 결정 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강승목,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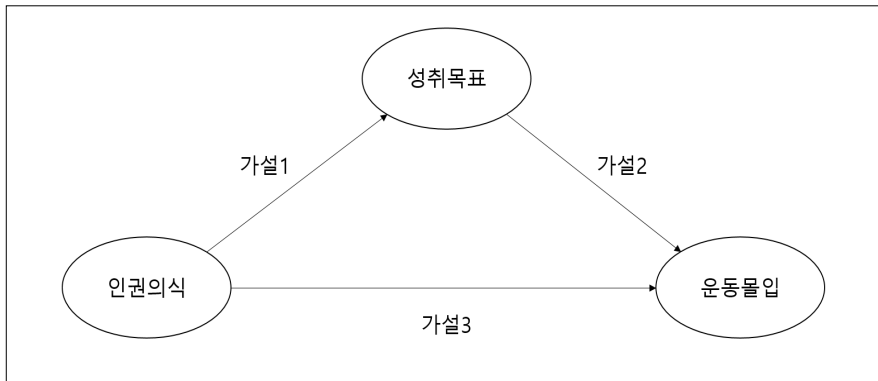
대학 엘리트 무도선수에게 대한 인권의식에 따라 목표성향과 운동몰입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듯 다양한 선행연구(정원오, 김성기, 장기성, 2006; 박상준, 임태승 2010; 김자영 2012)들이 진행되어 왔다. 김소희(2017)는 성취목표성향은 다양한 심리적 요인으로 목표성향은 높은 시민의식, 협동심 자존감 등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목표성향이 윤리, 지속성, 수행능력을 유도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최정일, 2018).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볼 때, 인권의식, 목표성향, 몰입정도에 대학 엘리트

무도선수의경기력 및 심리상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경호무도에 있어서 무도선수들의 무도 및 지도력, 교육과정 및 훈련체제에 따른 목표와 몰입, 만족도 등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양덕열, 양영모, 이창후, 2016; 김신혜, 장예진, 김재엽, 2017; 최승희, 이재민, 2018; 안철범, 박준석, 정성배, 2020)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 엘리트 무도선수들의 인권인식을 파악하고, 이로 인한 목표성향과 운동몰입도에 관한 영향을 규명하여 객관적인 지표를 확보하고 인권의식 제도에 관한 한계점을 극복 가능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 2. 연구모형 및 가설

- 첫째, 인권의식은 성취목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인권의식은 운동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성취목표는 운동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림 1〉 연구모형

## 3. 용어의 정의

### 1) 엘리트 무도선수

특정 종목에서 신체적·정신적으로 뛰어난 기질을 발휘하고 기능적으로 전문적 능력과 업적에 의하여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집단을 엘리트 집단이라 한다(김

상현, 2000). 즉, 대학 엘리트 무도선수란 대학에 소속되어 경기나 성과를 위해 분류된 엘리트 집단의 선수를 이야기 한다.

## 2) 인권의식

인권의식은 인권에 대한 지식과 이해, 인권판단력, 인권 친화적 태도, 인권 친화적 행위 등 인권과 관련된 모든 정신적·행동적·정의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박상준, 임태승, 2010), 자신에게 부여된 인권에 대해 인식하고, 존중하며,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지키려는 실천적 태도라고 정의 하였다(김자영, 2012).

## 3) 성취목표

성취상황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행동이나 결과의 의미를 해석하고 반응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일종의 사고의 틀이다. 학생들이 취한 성취목표에 따라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측면의 수행과정 및 수행결과는 다르다.

## 4) 운동몰입

몸과 마음이 운동 상황에 집중되어 있는 최적의 상태를 운동 몰입이라 한다. 운동 몰입을 경험하게 되면 의식이나 지각이 한 곳으로 집중되며 운동 상황에만 집중하게 된다. 운동 몰입에는 인지 몰입과 행위 몰입이 있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이 연구는 대학엘리트 무도선수에 대한 인권의식과 성취목표이론을 적용, 운동몰입 관계를 규명 하기위해 2109년 10월 1일 ~ 2020년 1월 31일까지 표본계획에 의해 D대학, M대학, K대학 엘리트 무도선수를 표본으로 설정한 후, 300명을 편의표준추출법으로 표집하여, 설문에 불성실한 응답자 33명을 제외한 총 267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했다. 이에 따른 연구대상의 세부적인 일반적 특성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성	153	57.3
	여성	114	42.7
경력	1~3년 이상	37	13.9
	4~5년이상	84	31.5
	6~9년이상	94	35.2
	10년 이상	52	19.5
전공	유도	60	22.5
	태권도	68	25.4
	검도	77	28.9
	레슬링	21	23.2
전체		267	100.0

## 2. 측정도구

이 연구는 대학엘리트 무도선수의 인권의식에 따른 성취목표성향 및 운동몰입의 관계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인권의식은 김석현(2016), 김자영(2012), Getz(1985)를 통해 인식, 판단, 행동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여 각각 4문항으로 측정 하였으며, 성취목표는 김형은(2015), 임성주(2017), 김정수(2011)을 통해 목표, 인지, 성향 하위요인으로 각각 4문항으로 구성 하였다. 또한 운동몰입은 심영균(2016)의 인지몰입, 행위몰입으로 구성 하여 각각 4문항으로 본연구와 적합하게 설문을 구성 하였으며, 적합성을 가리기 위해 전문가 자문을 거쳐 재구성하였으며, 5점 리커트 척도를 채택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 3. 신뢰도 및 타당도

### 1) 신뢰도 분석 결과

신뢰성은 비교 가능한 독립된 측정방법에 의해 대상을 측정하는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여 살펴보았다. <표 2>와 같이 신뢰도 검증 결과 인권의식은 하위요인

별 인식 0.923, 판단 0.920, 행동 0.919로 나타났고, 성취목표는 하위요인별 목표 0.939, 인지 0.831, 성향 0.879로 나타났으며, 운동몰입은 하위요인별 인지몰입 0.923, 행위몰입 0.950으로 나타나 각 변수는 모두 신뢰할 만한 수준이다.

〈표 2〉 신뢰도 검증

구분	하위요인	문항수	신뢰도
인권의식	인식	4	.923
	판단	4	.920
	행동	4	.919
성취목표	목표	4	.939
	인지	4	.861
	성향	4	.879
운동몰입	인지몰입	4	.823
	행위몰입	4	.950

## 2)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이 연구에서 측정척도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구성개념 타당성 가운데 판별타당성의 확보를 위하여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기법인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였고, 요인적재량의 단순화를 위해 베리맥스 회전을 실시하였으며, 아이겐 값이 1이상 되는 요인만을 인정 하였다.

인권의식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진행한 결과 누적분산값은 81.373%로 나타났고, 요인1(27.758%)은 ‘행동’, 요인2(26.896%)는 ‘인식’, 요인3(26.720%)은 ‘판단’으로 명명하였다. 3개 요인의 요인 적재치는 0.70 이상으로서 구성개념의 타당성이 검증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3〉 인권의식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결과

요인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1 행동	행동2	.849	.192	.228
	행동3	.848	.234	.254
	행동1	.847	.232	.284
	행동4	.839	.163	.140
요인2 인식	인식2	.120	.851	.297
	인식1	.266	.821	.251
	인식3	.235	.807	.337
	인식4	.296	.787	.352
요인3 판단	판단2	.219	.276	.857
	판단4	.282	.341	.794
	판단1	.223	.309	.788
	판단3	.254	.314	.784
고유값		3.331	3.228	3.206
분산설명(%)		27.758	26.896	26.720
누적설명(%)		27.758	54.654	81.373

KMO=0.921, Bartlett's test  $\chi^2=2745.220$  (df=66, p=0.000)

〈표 4〉 성취목표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요인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1 목표	목표1	.939	.105	.131
	목표2	.929	.125	.114
	목표3	.881	.086	.184
	목표4	.808	.247	.295
요인2 성향	성향3	.122	.891	.168
	성향4	.045	.816	.157
	성향2	.218	.793	.216
	성향1	.156	.759	.356
요인3 인지	인지2	.080	.174	.827
	인지3	.256	.139	.789
	인지1	.137	.256	.776
	인지4	.230	.309	.770
고유값		3.407	2.971	2.879
분산설명(%)		28.395	24.757	23.988
누적설명(%)		28.395	53.152	77.140

KMO=0.863, Bartlett's test  $\chi^2=2387.456$  (df=66, p=0.000)

성취목표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진행한 결과 총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누적분산값은 77.140%로 나타났고, 요인1(28.395%)은 ‘목표’, 요인2(24.757%)는 ‘성향’, 요인3(23.988%)은 ‘인지’로 명명하였다. 즉, 3개 요인의 요인 적재치는 0.70 이상으로서 구성타당성이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5〉 운동몰입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요인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1 행위몰입	행위몰입1	.911	.244
	행위몰입3	.890	.346
	행위몰입2	.888	.286
	행위몰입4	.827	.377
요인2 인지몰입	인지몰입3	.346	.801
	인지몰입2	.153	.800
	인지몰입1	.374	.786
	인지몰입4	.262	.649
고유값		3.446	2.723
분산설명(%)		43.077	34.043
누적설명(%)		43.077	77.120

KMO=0.896, Bartlett's test  $\chi^2=1710.486$  (df=28, p=0.000)

운동몰입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진행한 결과 총 2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속성의 설명력을 뜻하는 누적분산값은 77.120%로 나타났고, 요인1(43.077%)은 ‘행위몰입’, 요인2(34.043%)은 ‘인지몰입’으로 명명하였다. 즉, 2개 요인의 요인 적재치는 0.60 이상으로서 구성타당성이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 3)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연구가설 검정에 앞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구분		요인	비표 준화	표준화	S.E	t-value	CR	AVE
인권의식	→	인식	1.000	.786				
	→	판단	1.029	.844	.082	12.548***	.861	.675
	→	행동	1.029	.694	.094	10.989***		
성취목표	→	목표	1.000	.588				
	→	인지	.880	.740	.106	8.273***	.794	.564
	→	성향	.951	.645	.125	7.599***		
운동몰입	→	인지몰입	1.000	.841				
	→	행위 몰입	1.040	.729	.103	10.111***	.799	.672

Fit Statistics : CMIN=39.928, p=.000, CMIN/DF=2.852, RMR=.034, GFI=.963, AGFI=.906, NFI=.954, TLI=.938, IFI=.970, CFI=.969, RMSEA=.073

\*\*\*p<.001

분석결과 적합도 지수 중  $\chi^2=39.928$ ,  $p=.000$ ,  $\chi^2/DF=2.852$ ,  $RMR=0.034$ ,  $GFI=0.963$ ,  $AGFI=0.906$ ,  $NFI=0.954$ ,  $TLI=0.938$ ,  $IFI=0.970$ ,  $CFI=0.969$ ,  $RMSEA=0.073$ 으로 적합도가 적절하게 구성되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또한 척도들이 해당 요인들에 대한 대표성을 갖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CR(Construct Reliability: 구성신뢰도)와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분산추출지수)를 측정한 결과 모든 요인의 AVE도 기준치인 0.50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CR은 기준치인 0.70 보다 높게 나타나 사용된 측정항목들이 대표성을 가진다.

#### 4) 상관관계 및 판별타당성 검증

각 요인들 사이의 판별타당성의 충족 정도와 각 요인들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상관관계분석에서 따라서 이 연구에서 상관관계분석 결과는 각 요인간의 상관관계수가 1인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고, 구성개념 각각의 AVE와 상관관계 제곱을 비교한 두 AVE가 모두 상관관계의 제곱보다 크게 나타나 모든 변수는 판별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사용된 각 요인 간 판별타당성이 충족된다고 할 수 있다.

〈표 7〉 상관관계 및 판별타당성 검증 결과

구분	인권의식	성취목표	운동몰입
인권의식	.675		
성취목표	.545***	.564	
운동몰입	.547***	.533***	.672

주) 대각선 진한 부분은 AVE값임. \*\*\* $p < .001$

#### 4. 자료처리방법

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인 SPSS 21.0 for Windows와 AMOS 21.0 을 활용 하였다. 분석방법으로 빈도분석, 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한 신뢰도분석, 타당성 검증을 위한 탐색적,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요인들 간의 한 경로계수 파악을 위한 공변량 구조분석 방법(SEM)이 사용되었고, 간접효과 유의성을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활용하였다.

### Ⅲ. 연구 결과

#### 1. 구조모형의 적합도 검증

이 연구의 가설에 의한 전체적인 구조모형의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구조모형의 적합도 검증

구분	CMIN	p	RMR	GFI	AGFI	NFI	CFI	TLI	IFI	RMSEA
적합도	78.751	.000	.046	.929	.850	.909	.926	.906	.927	.077
기준	-	-	$\leq .05$	$\geq .90$	$\geq .90$	$\geq .90$	$\geq .90$	$\geq .90$	$\geq .90$	$\leq .05$
판정	-	-	적합	적합	양호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양호

분석결과 구조모형의 적합도지수 중  $\chi^2=78.751$ ,  $p\text{-value}=.000$ ,  $\chi^2/df=4.632$ ,  $RMR=.046$ ,  $GFI=.929$ ,  $AGFI=.950$ ,  $NFI=.909$ ,  $CFI=.926$ ,  $TLI=.906$ ,  $IFI=.927$ ,

RMSEA=0.077로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가설에 대한 이론적 모형에의 전반적인 적합도는 양호하다.

## 2) 가설의 검증

이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 1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연구모형의 경로추정치

	가설	비표준화	표준화	S.E	C.R.	p	채택여부
H1	인권의식 → 성취목표	.606	.675	.085	7.157***	.000	채택
H2	인권의식 → 운동몰입	.307	.258	.116	2.649**	.008	채택
H3	성취목표 → 운동몰입	.752	.567	.150	4.998***	.000	채택

\*\*p<.01, \*\*\*p<.001

가설 1은 인권의식이 성취목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정되었으며, 이에 대해 분석결과 인권의식( $\beta = 0.675$ ,  $p < 0.001$ )은 성취목표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설 1은 채택되었다.

가설 2는 인권의식이 운동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에 대해 분석결과 인권의식( $\beta = 0.258$ ,  $p < 0.01$ )은 운동몰입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설 2는 채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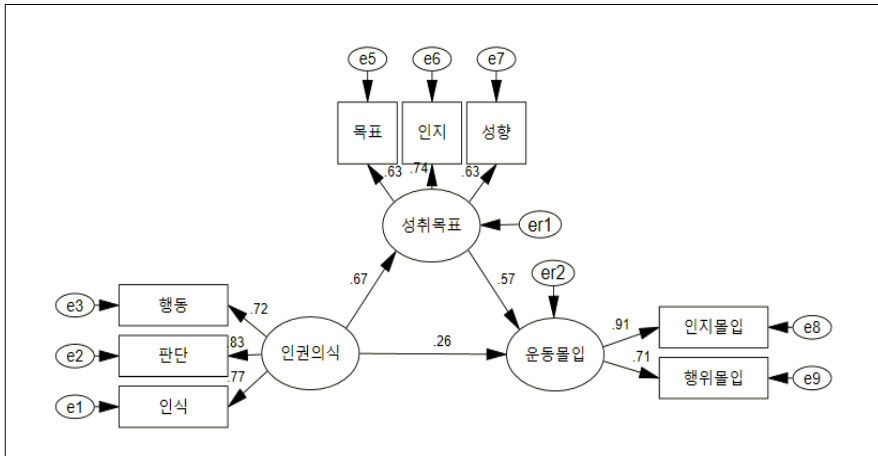
가설 3은 성취목표가 운동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정하였으며, 연구 분석결과 성취목표( $\beta = 0.567$ ,  $p < 0.001$ )는 운동몰입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3은 채택되었다.

## 3) 직·간접효과 및 총 효과

〈표 10〉 직·간접효과 및 총효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인권의식	→ 성취목표	.675***	-	.675***
인권의식	→ 운동몰입	.258**	.382**	.640***
성취목표	→ 운동몰입	.567***	-	.567***

\*\*p<.01, \*\*\*p<.001



〈그림 2〉 연구모형에 따른 구조방정식 결과

구조방정식에서 효과분석은 크게 직접효과, 간접효과, 그리고 총효과로 구분된다. 그리고 이렇게 구분된 효과를 바탕으로 각 변수 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최종 종속변수에 전달되는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의 유무와 크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 분석은 좀 더 면밀한 해석을 위해 매우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표 10>은 구조모형의 총 효과에 대한 직접, 간접효과를 분해하여 추정한 다음직, 간접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실시한 결과 운동몰입에 대한 인권의식의 직접효과는 0.258( $p < 0.01$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성취목표를 통한 간접효과 또한 0.382( $p < 0.01$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IV. 논 의

### 1. 대학 엘리트 무도선수 인권의식에 따른 성취목표

대학엘리트 무도선수 인권의식에 따른 성취목표 분석한 결과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대학엘리트 무도선수의 인권문제를 다루는 태도를 이야기 하고 있으며, 승리지상주의로 인한 상대적으로 인권의식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

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같은 동료선수 또는 지도자들로 하여금 비인격화 경험은 자신에 대한 만족감에 대한 불만, 지도자의 지도사항 부정 등은 대학운동부 안에서 빈번이 일어나고 있다(김범준, 2015). 또한 부상이나 중도포기와 달리 인권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훈련이나 경기상황에서 발생하는 비도덕적 행동은 엘리트 선수로써 목표방향이 의도치 않게 변경되거나 사회적 이슈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김석현, 2016). 특히 대학 엘리트 무도선수는 청소년기 운동고충 보다는 대학이라는 달라진 환경 속에서 행동, 판단, 인식 과정 등을 되풀이 하면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로 한 경기력 부진은 목표를 재설정하게 된다(김범준, 2015). 이는 목표설정에 앞서 대학엘리트 무도선수의 인권학습이 요구되는 결과로 인권에 대한 의식전환이 없이 대학환경의 적응은 어려워지고 후속생활은 기대하기 어렵다(김예샘, 2020). 따라서 엘리트 무도선수의 목표성향을 위한 교육시스템이 필요하며, 요구 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정책적으로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선수가 느끼는 인권의식과 정반대의 하양식 지원이 아닌 맞춤형 지원방식으로 선수와 대학의 학생으로서 성취목표를 설정하는데 기여해야 한다(이보라미, 2019).

## 2. 대학 엘리트 무도선수 인권의식에 따른 운동몰입

대학 엘리트 무도선수 인권의식에 따른 운동몰입 분석한 결과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최근 스포츠 폭력, 성폭력 그리고 대학학생으로서 학습권 보장을 포함한 스포츠 인권가이드라인의 제정으로 이어졌다. 이는 학교의 소속으로 선수와 학생으로써의 포지션으로 인한 인권보장의 해법으로 작용하고 있다(김석용, 2014). 다시 말해, 인권의식이 높아질수록 존중감이 높아 질 것이며 자신이 지니고 있는 능력과 도전과제가 균등하게 이루어지면서 성취에 대한 경험도가 쌓일 것이다(권영선, 2017). 올바른 인권의식은 엘리트 무도선수의 과도한 훈련과 비인격적인 경험에서 벗어나 경기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건들을 충족시킬 것이며 운동에 대한 애착과 진로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윤성일, 2014; 안철범, 박준석, 정성배, 2020).

### 3. 성취목표에 따른 운동몰입

성취목표에 따른 운동몰입 분석한 결과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성취목표가 뚜렷한 엘리트 무도선수는 경기력에 관련 결속된 요소를 제거하는 모습들을 보이며, 특정 목표지향적인 선수들은 좌절감과 기대감으로 인해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가중 될 것이다. 대학 엘리트 무도선수는 결과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차후의 목표를 재설정하기보다는 외부로부터 요구하는 지도나 강압에 의한 성취를 강요당하는 경험에 있다(Saito, 2005). 타인으로부터 목표를 강요받는다면 경기를 준비 하는 동안의 불안 상태로 이어지면서 경기력 저하의 큰 요인으로 발생된다(신기철, 2018). 이는 대학 엘리트 무도선수는 성인으로써 분명한 목표와 경쟁상황에서 감정 조절능력이 뛰어날수록 운동몰입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 V. 결 론

대학 엘리트 무도선수는 선수와 학생의 신분으로써 진로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의식을 확고히 정립해야 한다. 경기력으로 인한 진로 결정의 요소 중 타인으로부터 받는 영향력은 인권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다시 말해, 외부로부터 지도받은 성취의 목표는 긍정적 일 순 있지만, 오히려 저해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학 엘리트 무도선수는 성인스포츠의 사회적 첫 경험이라 할 수 있는데 운동만이 목표인 선수에서 학업병행은 다소 어려운 경험일 수 있다. 대학은 엘리트 무도선수를 위한 인권교육과 학업, 진로교육에 대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과거의 대학운동은 단일적인 진로를 강요한 반면 최근의 대학운동은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는 시점에서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인권의식을 통해 경기력뿐만 아니라 사회의 일원으로써 능력을 갖춰나가야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대학운동선수의 목표성향과 경기력 저해요인을 설명하고 있지만 차후 연구에서는 인권의식에 대한 정책방향과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확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

- 김계수 (2011). Amos18.0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서울: 한나래출판사, p.158.
- 김범준 (2016). 대학운동선수들의 스트레스와 탈진의 관계에서 정서조절 및 스트레스 대처의 중재효과 검증.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형은 (2015). 목표지향성과 창의적 조직문화가 미용 산업 조직원의 업무성공에 미치는 영향. 서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석용 (2014). 대학교 학생선수의 수업문화. 용인대학교 체육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석현 (2016). 엘리트 스포츠선수의 인권의식과 자기관리, 스포츠이탈, 성취목표의 관계. 계명대학교 체육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가는 (2019). 대학운동선수들의 운동스트레스가 회복탄력성 및 중도탈락의도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소희 (2017). 태권도 선수의 성취목표성향과 자기관리 및 회복탄력성의 관계.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승묵 (2017). 남자대학2부 리그 농구선수들의 성취목표성향이 운동몰입과 스포츠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체육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자영 (2012). 청소년 인권의식의 유형 및 영향요인에 관한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예샘 (2020). 인권교육을 위한 교육연극 프로그램개발연구. 세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범준 (2015). 대학운동선수들의 스트레스와 탈진의 관계에서 정서조절 및 스트레스 대처의 중재효과검증. 성균관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국가인권위원회 (2010). 2010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대학생 학생 선수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
- 김정근, 이은주 (2015). 성취목표지향성, 성취정서 및 수업참여 간의 구조적관계. 한국심리학회지, 12(2), 135-157.
- 고진수 (2013). 자율성지지 맥락에서 운동선수의 스트레스, 자아탄력성 탈진의 관계.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아람 (2014). 여성 태권도 겨루기 선수의 스포츠 성취목표성향이 승부근성 및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수용, 변현정, 고명희 (2015). 인대학생의 성취목표성향이 인성과 메타인지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0(3), pp.63-80.

김신혜, 장예진, 김재엽 (2017).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한 경호 보안 분야 교육과정 이 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 제4호.

김영미, 한혜원 (2013). 대학운동선수의 승부근성과 자기관리, 운동몰입 및 경기력의 관계. 한국여성체육학회지, 27(1), 163-177.

김자영 (2012). 청소년 인권의식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시민청소년학연구, 3(1), pp.5-40.

박순오 (2010). 태권도 선수의 인권보호, 인식도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상준 (2010). 인권판단력의 발달에 관한 연구. 사회과교육, 49(1), pp.27-45.

박상준, 임태승 (2010). 초등학생 인권의식 발달에 관한 연구: 인권판단력의 발달을 중심으로. 법과인권교육연구, 3(2), pp.39-58.

박병가, 이종욱 (2009). 2x2성취목표지향성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심리연구회, 19(1), pp.327-352.

방귀만 (2014). 고교유도선수들의 지도자 신뢰와 운동몰입 및 교육청취의 관계. 용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정욱 (2010). 중도탈락 대학운동선수의 학교생활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은일, 이종호 (2018). 대학태권도선수의 사회적지지가 운동스트레스 및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학회지, 16(1), pp.459-468.

송인섭, 박성운 (2000). 목표지향성, 자기 조절학습, 학업, 성취와의 관계연구. 한국정책학회지, 19(1), pp.29-50.

심영균 (2017). 고등학교 태권도선수의 완벽주의 성향과 운동몰입의 관계에서 스포츠자신감의 매개효과.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안철범, 박준석, 정성배 (2020). 경호관련 대학생의 전공선택동기가 전공만족도 및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 제10호.

양덕열, 양영모, 이창후 (2016). 경호무도 지도자 양성체계 구축방안.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 제3호.

임다연 (2016). 스포츠 선수의 윤리의식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인성주 (2017). 청소년의 성취목표성향과 체육교과태도 및 대인관계능력의 구조모형분석. 한국교원대학교 체육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안수 (2014). 고등학교 일반학생과 운동선수와의 성취목표성향 비교와 인성과의 관계. 한

- 국제체육교육학회지, 18(4), pp.83-98.
- 이소진 (2018). 스포츠당구선수의 성취목표성향이 경쟁상태 불안 및 스포츠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체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진, 허정훈 (2001). 체육성취목표 지향성과 동기분위기가 내적 동기, 자긍심, 운동 수행력에 미치는 효과.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4, pp.68-86.
- 이보라미 (2019). 운동선수의 진로 전환 지원을 위한 협업 체계 구축 방안.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성일 (2014). 아마추어골프선수의 신체적 자아효능감과 운동몰입, 운동지속성 및 골프 경기력간의 인과관계.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혜진 (2012). 성취목표에 대한 재개념화 모형 검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우종필 (2014). 우종필 교수의 구조방정식 모델 개념과 이해. 서울:한나래.
- 전기찬 (2011). 대학운동선수 특례입학제도의 변천과정과 개선과제.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원오, 김성기, 장기성 (2006). 국내외공공분야 인권교육실태조사. 국가위원회위원회.
- 최승희, 이재민 (2018). 한국 민간경비 교육훈련 실태 및 정립 방안.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 제7호.
- 최정일 (2018). 대학 태권도 품새 선수들의 성취목표성향이 운동 몰입 및 운동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채서일 (2006). 사회과학 조사방법론. 서울:비엔앰북스, p.241.
- 황민우 (2017). 대학운동선수가 지각하는 부모와의 관계, 사회적응기대, 사회적 상호작용간의 관계.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 외국문헌

- Getz, I. (1985). Moral reasoning religion and attitude toward human righ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 Kibert, Langhinrichsen-Rohling & Saito (2005). daptive and maladaptive aspects of self-oriented versus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46, 141-156.

【Abstract】

##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nd Exercise Commitment according to Human Rights Awareness of University Athletes

Kim, Dae Geun<sup>\*</sup> · Jung, Seong Bae<sup>\*\*</sup> · Seong, Nak Hun<sup>\*\*\*</sup>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human rights consciousness of college sports athletes and the exercise commitment to athletes' achievement goals. In other word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perceptions, judgments, and behavioral awareness of the human rights awareness of college athletes, and to identify the propensity among goals, perceptions, and dispositions in relation to each athlete's achievement goals. Furthermore, on the impact of interactivity between sports immersion and behavioral immersion, which is closely related to the performance improvement of athletes, 267 students were surveyed using the Survey Monkey mobile program for university sports athlet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it affects human rights awareness and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lso, the higher the achievement goal, the more immersive exercise and tighter athletic performance will be developed. The above results suggest that it is time to respond to the social perspectives of university athletes and to be free from future social-oriented anti-social behavior.

**Key Words:** College athletes, Martial arts, human rights awareness, achievement goals, exercise commitment

---

\* DaeJeon University Dept. of Sports Professor(The 1<sup>st</sup> Author)

\*\* KookJe University Dept. of Security Professor(The Corresponding Author)

\*\*\* Yongin University Dept. of Physical Education Professor(The Co-Author)



#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경호무도로서 태국 무에타이 적용방안

김 한 진 · 김 진 환



Korean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Association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경호무도로서 태국 무에타이 적용방안

김 한 진\* · 김 진 환\*\*

### [ 국문초록 ]

본 연구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민간경호원과 공경호원들에게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경호업무 수행을 하기 위한 물리적 대응으로서 태국 무에타이 기술을 경호무도 수련 체계에 적용방안으로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전문가들을 직접 인터뷰 하였으며, 경호무도 수련에 적용하기 위한 학문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경호상황시 우발적인 물리적 상황에서 경호원의 효과적인 경호임무를 수행하고자 무에타이 기술의 적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4개의 전문가 그룹(민간경호 실무자, 공경호 실무자, 무에타이 전문가, 경호무도 교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탐색적 기초연구방법인 심층면담 기법을 사용하였다. 참여대상자와는 개별면담을 통하여 녹취 및 질문지를 통해 심층적으로 연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경호무도로서 무에타이 기술을 적용하고자 방법을 제시하였다. 첫째, 무에타이는 다른 무도에 비하여 수련방법에 실전성이 우수하며, 화려한 기술체계 보다는 실전적인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다. 둘째, 무에타이 기술에 있어 학문적인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태이다. 무에타이 기술의 대중화와 공인 무도로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에서 무에타이 기술의 통합 교본이 마련되어 표준화된 교재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앞으로 경호무도로서 무에타이를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을 통하여 경호무도로서 실효성을 인정받아야 할 것이며, 독립된 경호 무도로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방안을 정립하여야 한다. 넷째, 경호무도로서 무에타이 기술을 경호 우발상황시에 적용하여 실무에 적합한 기술 동작을 측정도구로서 객관적이며 타당성 있는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주제어:** 경호원, 무도, 경호무도, 무에타이, 심층면담기법

\* 용인대학교 경호학과 박사과정(제1저자)

\*\* 용인대학교 경호학과 부교수(교신저자)

목 차
I. 서 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IV. 면담결과
V. 결 론

## I. 서 론

2020년 4차 산업을 시작으로 경호의 형태는 변형되어야 할 것이다. 예전의 단순 물리적 대응 방안으로 경호무도를 사용하였다면, 이제는 경호원과 기계의 복합적 시스템으로서 개인의 물리적 대응 방안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및 테러상황까지도 대응하여야 한다. 하지만 근접상황 또는 통신매체가 연결되지 못하는 지역이나 상황에서는 결국 물리적 대응 방안으로 경호무도를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현대의 사회 환경은 급격한 변화로 경제적 풍요와 편안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그로 인해 범죄는 지능화, 전문화, 잔인화 되어가고 있어 국가와 국민의 개인정보 보안과 안전에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의해 다수의 민간경호·경비 회사가 설립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민간경호의 발전은 경호무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화시키고 있다. 그로 인하여 기존 무도를 기반으로 한 각종 사설 민간 경호업체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무도수련 방법에 있어서 경호업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보다는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무도를 수련하고 있는 실정이다(김진환, 2011).

민간경호와 공경호를 포함한 모든 경호상황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특수 상황으로서 경호의 바탕에는 물리적 상황을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호무도를 살 펴볼 수 있다. 경호무도는 우발적인 물리적 대응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과 경호원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데 필수요건 이라고 할 수 있다(양덕열, 양영모, 이창후, 2016). 또한 경호업무 중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우발상황을 경호대상자 측근에서 절대적인 신변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모든 사용가능한 방법을 동원하고 경호대상자의 안전을 확보 하여야 한다. 우발상황 발생시 경호원은 피해자의 공격을 막고 피하며 힘을 역 이용하고 제압하는 등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 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박태춘, 조용훈, 이황우, 2016). 또한 경호원은 일격필살의 자세로 단 한번에 공격을 통한 대응으로 다음 상황까지 대처할 수 있는 무술의 기능을 통한 수행방법을 사용하여 경호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무도로서 경호무도를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호무도 수련의 한 방법으로 태국 무에타이 기술 수련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무에타이 기술의 격투술, 무기술, 정신훈련의식은 다양한 방법으로 경호무도 수련자의 신체적, 정신적 측면에서 활용되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호무도로서 연구된 무도는 태권도, 유도, 합기도, 특공무술, 검도, 용무도, 킥복싱, 주짓수 등이 대다수이며, 무에타이에 대한 적용논문은 전무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문헌연구에만 의존하였던 선행연구와는 다른 연구방법인 질적연구의 심층면담기법과 근접경호사례를 조사하였다.

심층면담의 내용은 경호원의 임무수행 향상을 위한 경호무도로서 무에타이 기술의 적용방안 등을 다루었으며, 경호무도 수련의 형태로 무에타이는 피해자의 공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무도로 주목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무에타이의 무도 훈련의 실전성과 다양성 때문이다. 무에타이 기술의 실전적인 기술과 정신훈련의식은 경호 임무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상황에서 경호원의 빠른 상황대처 능력과 다양한 공격과 방어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무에타이 기술의 경호무도 적용은 경호기법에 입각한 대응방법 측면으로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무도의 경호무도 수련 관련 선행연구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탐색적 기초연구로 경호무도와 무에타이에 관한 문헌을 조사하여 종합 파일화하였다. 또한, 경호와 무에타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경호무도로서 무에타이 기술의 적용방안을 조사,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연구문제의 인식하에서 경호무도의 수련실태, 선행연구 문헌분석, 질적연구의 전문가 면담 등으로 중점 탐색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경호원의 임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경호무도로서 무에타이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 Ⅱ. 이론적 배경

### 1. 경호무도의 구성과 의의

경호의 시초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물리적 대응 방안으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경호무도는 경호에서 빠질 수 없는 대응 기법중 하나인데 여기서 경호무도란 경호대상자에게 발생하는 직·간접적 다양한 위해요소로부터 경호대상자의 절대적인 신변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경호활동의 기초적 제반교육을 말하며, 경호대상자에 대한 부당한 유형·무형의 수단으로 손, 발 등 신체의 일부 또는 전부 그리고 도구 등의 역학적인 원리에 의한 물리적인 수단뿐만 아니라 기세, 언어 등을 이용한 무형의 수단까지 동원하여 신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또한 정신력, 집중력, 판단력, 담력, 용기 등의 많은 노력과 숙련을 통해 실제상황을 대비하여 습득하는 무술로서 방어의 기질을 가진 무도이다. 특정 품새나 자세, 기술적인 정형성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수련자를 위한 반복적 수련이 가능한 기술의 집합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기술, 힘, 호흡, 정신적 심리 조절을 통해 위해 상황 시 단 한번의 공격으로 상대를 제압하거나 또는 방어적 행위로 경호대상자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기본기와 응용술의 충분한 연마가 반드시 필요하다.

### 2. 무에타이의 구성과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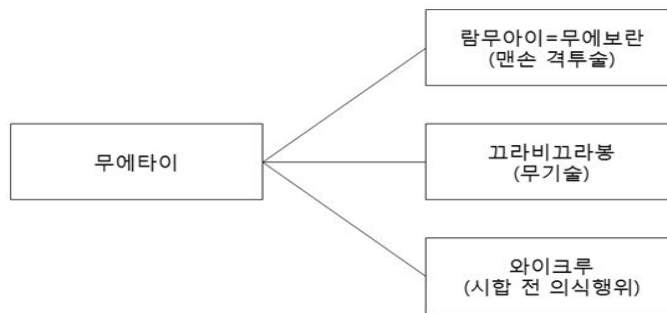
무에타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링 위에서 두 선수가 벌이는 시합 ‘람무아이’와 시합전 신과 부모님, 스승님께 예의를 표하는 전통 의식 ‘와이크루’ 외에도 창, 칼, 봉, 방패, ‘마이속(Mayso, ’나 ‘형 무기)’을 사용하는 ‘끄라비끄라봉’이라고 하는 무기술도 포함된다.

무에타이는 전쟁 무술로서도 기원을 찾아 볼수 있다. 동남아에서 유일하게 열강의 식민지를 겪지 않은 나라로서 태국은 서양의 잦은 침략에도 곳곳이 자신의 영역을 지켜냈다. 이런 역사적 행보에는 전쟁무술로서 무에타이가 한 부분을 차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라와 왕에 대한 충·효가 세계 어느 민족보다 강한 태국인들은 목숨을 걸고 싸우려 나간 군사들에게 체형적으로 불리한 아시아 태국인들의 신체적

보완을 위한 무술로서 무에타이가 발전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나라를 지키는데 한 몫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고대의 무에타이로서 ‘무에보란’은 현재 개념의 일반적인 무술이 아니었다. 고대의 ‘무에보란’은 전쟁에서 적을 살해하기 위한 살상 기술이었다. 고대의 ‘무에보란’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를 거듭하여 현재와 같은 스포츠 방식을 갖게 되었고 현재의 무에타이가 된 것이다.

타 무술과 달리 무에타이만의 특이점은 정강이를 사용하여 야자나무를 격파할 수 있는 파괴력과 근접상황시 사용할 수 있는 클린치 상황에서의 스윙(넘어뜨리기), 무릎치기, 팔꿈치치의 사용 기술이 많이 발전되어있다는 것이다(대한무에타이협회, 2019).



[그림1] 무에타이의 용어적 정리

### 3. 경호무도 적용 형태

경호무도는 상대의 공격으로부터 경호대상과 자신의 신체 및 생명을 보호하는 여러 형태의 공격과 방어기술로 하나의 기술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이를 이용하여 경호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이 필요한 상황에 따라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즉, 경호환경에서 경호원들이 경호대상과 자신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무도 기술은 우발상황시 안전을 보장해 주는 가장 큰 힘인 것이다(한국문예학통록, 2004). 경호우발상황 적응을 위한 경호무도 수련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순 무도적인 측면이 아닌 경호 상황시 적용할 수 있는 시나리오로 가상의 연습을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우발상황 발생시 대응방법과 경호원의 인원, 장비상황 및 전후 측방 공간적, 시간적으로 경호대상자의 방어와 대피요령에 따른 모든 요소를 인지하며 무도훈련에 임해야한다.

셋째, S.C.E 원칙에 따른 전술적 형태를 변형적으로 연구하여 다양하게 수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 체위확장의 원칙, 측수 거리의 원칙 등 경호기법훈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최첨단 경비시스템을 이해하고 정신적 훈련, 전문적 지식을 병행하여 경호무도를 수련해야 할 것이다.

#### 4. 국내 경호사례분석(근접경호실패사례)

##### (1) 육영수 여사 피살사건

- 사건개요 : 1974년 8월 15일 국립극장에 제29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연설중인 박정희 대통령을 향해 2탄을 발사하였지만 연설대에 맞았다. 그 후로 3탄은 불발, 단상에 앉아있는 육영수여사를 향해 발사, 우측두부에 명중했다.
- 경호상 문제점 : 5발까지의 약 8초간의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박종규 경호실장의 근접경호요원의 즉각적 상황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순간판단력과 신체적 민첩성의 부재와 경호의 기본적 개념원칙이 완전히 무시된 결과로 인한 사고였다고 볼 수 있다.

##### (2) 박정희 대통령 암살사건

- 사건개요 : 1979년 10월 26일 서울 궁정동 안가에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는 부하직원 5명을 두 팀으로 나누어 3명의 대통령 경호원 그리고 간부와 경호원 1명을 사살. 김재규는 차지철에 이어 박정희 대통령의 가슴과 머리를 권총으로 사살했다.
- 경호상 문제점 : 당시 경호원들은 평소에 중앙정보부와 가깝게 지낸다는 이유

로 그들을 경계하지 않았으며 대통령 연회 장소에 무장 경호원이 대통령 최 근접에 배치되어 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5명의 경호 병력 외에는 배치병력이 없었다.

### (3) 정원식 국무총리 밀가루 피습사건

- 사건개요 : 1991년 6월 3일 18시 30분경 외국어대학교(이문동) 교육대학원 418호실 앞에서 정원식 총리서리가 서울 외국어대 교육대학원에서 특강을 끝내고 나오다 학부 학생들에 의해 계란 및 밀가루 세례와 함께 주먹질과 발길질을 당하는 등 집단폭행당했다(위키백과사전, 2019).
- 경호상 문제점 : 다수의 공격으로 경호원의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정치적 상황으로 인한 경호전문성이 무시된 경호가 진행되었다.

### (4) 박근혜 피습 사건

- 사건개요 : 2006년 5월 20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지방선거 지원유세를 벌이다 지충호에게 피습당해 얼굴을 크게 다친 사건. 당시 지충호는 자신이 가진 커터칼로 11센티미터의 길이에 걸쳐 박근혜의 턱을 그었다. 지충호는 혼란함을 틈타 커터칼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달아나려다 주변인들에 의해 잡혔다.
- 경호상 문제점 : 지방선거라는 특수 상황에서는 시민들과의 거리가 밀착되므로 경호원들은 평소보다 더욱 물리적 상황을 예측대응 할 수 있어야 했다. 현장에는 박 대표의 개인경호원이 3명이나 있었지만 피습 순간 현장 사진을 분석해보면 경호원으로 보이는 한 명이 당직자로 보이는 사람 뒤에서 멀리 쳐다보고 있는 것이 전부였다. 경호원은 평소 실전에 가까운 무도수련으로 빠른 판단력과 신체적 강함을 유지하여야 하며, 경호대상자와 축소거리를 유지했어야 한다.

**소결** : 위의 몇 가지 국내 사례들만 살펴봐도 우발상황을 예측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위해자는 위해를 가하기 위하여 맨손 공격보다는 칼, 총 등 무기를 소지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갑작스러운 상황에 빠른 상황판단을 요구하며, 개인보다는 다수일 경우 더욱 대처하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물리적인 우발상황속에서 경호원은 빠른 판단력과 신체적 움직임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급박한 상

황에서의 판단력과 신체적 강함을 갖추기 위해서는 실전에 가까운 무도수련을 통한 훈련으로 가능할 것이다. 또한 경호상 계획이 변경되었을 경우 최후의 수단까지 생각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강함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우발적인 물리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실전에 가까운 무도 수련은 강한 신체와 강한 정신력을 만드는데 필수요소라고 보여진다.

## 5. 질적 연구조사방법

질적 자료 분석이란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하였는데, 연구자가 연구 관심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게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자료 속에서 특징적인 주제와 의미 그리고 규칙을 찾아내어 해석하는 과정을 말한다. 질적 자료 분석에서는 양적 연구에서와 같이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 아닌 연구자가 자료 속에서 의미와 특징 등을 밝혀내기 위해 연구자의 부단한 탐색, 관찰 등의 인지적 고뇌 속에서 이론이나 모델을 완성시키게 된다. 모든 질적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절대적인 절차나 방식은 존재하지 않는데 이는 각 질적 연구방법별로 나름의 철학적 배경과 목표를 지니고 있고, 그에 따른 기법들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질적 자료 분석은 세 가지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료 축약, 자료 배치, 결론 도출 및 검증의 활동이 있다(신경림, 조명옥, 양진향, 2005). 자료를 축약하는 활동은 자료를 요약하고 부호화, 범주화하여 주제 확인 및 이야기 기술 등의 작업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서 연구자는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사례, 개념적 틀, 다음 연구 질문, 도구 선정하기를 실시하게 되며, 결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자료를 배치하는 활동을 하여야 한다. 자료 배치는 자료를 연결하고 체계적으로 배치하는 분석 작업으로 한 눈에 모든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주어진 연구 질문에 직접 답변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배열하는데 이것은 분석의 타당성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결론 도출과 검증 활동은 배치된 자료에서 의미를 도출하고 해석하는 작업 과정으로 비교와 대조 방법을 사용하거나 패턴과 주제 도출 등의 방법을 사용하게 되며, 검증을 위해서 동료 연구자의 조언, 연구 참여자에 의한 연구결과 평가, 통합적 연구, 참조 자료 활용 등의 기법을 활용하기도 한다(김도영, 2004). 질적 연구유형에는 참여관찰 연구, 비참여관찰 연구, 사례 중심 연구, 민속학적 연구가 있다.

첫 번째, 참여관찰 연구는 질적연구를 대표하는 연구방법 중 하나이다. 현장관찰

과 자료 기록에 있어서 관찰가로서의 전문적인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연구대상에 있는 참여자의 삶에 참여하는 현장활동을 의미한다. 참여관찰은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나는 연구대상자가 연구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으며 자신이 관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노출된 참여관찰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보호 참여관찰인데, 관찰자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연구대상자와 똑같이 행동하는 경우이다. 도구로는 체크리스트, 프로토콜, 우화 기록지, 현장관찰일지, 현장반성일지, 지도 그리기, 사진,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등을 사용한다.

두 번째, 비참여관찰 연구는 연구자로 참석하여 일어나는 상황을 단순히 관찰할 뿐 자신이 상황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비참여관찰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나, 흔히 사용되는 방법으로는 사실적 관찰, 모의실험, 사례연구 그리고 내용 연구 등이 있다.

세 번째, 사례 중심 연구는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어떤 문제나 특성을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한다. 소수의 연구대상을 선정하여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사, 수집하고 이러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연구대상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기술하는 연구이다.

네 번째, 민족학적 연구는 특정한 사회, 집단, 기관, 장면 모습을 가능한 한 전체적으로 그리기 위한 시도로써 참여관찰 연구와 비참여관찰 연구의 특성을 통합한 방법이다. 개인과 그와 관련된 사람을 관찰하고 면접하여 개인의 일상적 경험을 기록하고 묘사하는데 있다.

### Ⅲ. 연구방법

경호원의 임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경호무도로서 무에타이 기술의 적용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7년 이상의 경호와 무에타이 관련 경력이 있는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질적연구방법의 심층면담기법을 적용하였다.

#### 1. 연구대상

연구의 전문가 면담대상은 민간경호 실무자, 공경호 실무자, 무에타이 전문가 그

리고 경호무도 관련 대학 교수로 4개 집단을 대상으로 경호와 무에타이에 관한 실무적 7년 이상 경력이 있는 전문가 10명을 면담목적에 맞게 목적별 표집을 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연구자가 연구하기 용이한 서울·경기·인천지역으로 연구자의 이동이 편리하고 면담할 수 있는 접근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관련 전문가들의 연구 참여 동의 및 허락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또한 연구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약 10개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표 1〉 면담조사대상자

구 분		소 속	직 무
민간경호 실무자	KBW	사설기관	경호경비요원
	SSG	사설기관	경호경비요원
공경호 실무자	IJS	공경호 기관	경찰경호요원
	JST	공경호 기관	경찰경호요원
	WGJ	공경호 기관	경찰경호요원
무에타이 전문가	LCG	사설 체육관	체육관 운영
	LDY	사설 체육관	체육관 운영
	KDG	사설 체육관	체육관 운영 대학교수
경호무도 교수	KDY	대학교수	경호학 전공
	KSJ	대학교수	경호학 전공

## 2. 연구과정과 연구절차

본 연구는 경호무도로서 무에타이 기술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총 4단계로 구분하여 연구과정을 진행하였다.

1단계 연구계획수립 및 문헌수집단계로 연구 주제와 관련된 선행 연구 및 문헌 분석을 통하여 연구계획을 수립, 이론적 틀과 연구방법을 선택하였다.

2단계 예비조사는 연구의 목적에 맞는 예비 문헌분석조사와 선행연구들의 면담지 내용을 분석하고 면담지의 초안을 작성하여 예비조사를 경호무도 전문가 2명 무에타이 전문가 2명에게 실시하였다. 또한 예비검사를 통하여 이 연구의 설계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면담지 개발전문가 1명과 면담전문가 1명, 경호무도 담당교수 1명, 무

에타이전문가 1명 등 총 4명의 전문가 검토를 통해 보완하여 면담지의 신뢰도, 타당도 검증 후 최종 면담지(개방형 면담지)를 선정하였다.

3단계 문헌분석조사는 국내외에서 발간된 관련 서적, 연구 논문, 학술지, 정기간행물, 보도자료, 인터넷 자료 등에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면담방법은 관련 전문가에게 직접 방문을 통하여, 녹음기를 통해 녹취하고 면담 후 컴퓨터에 워드 작업을 통해 파일로 편집하여 자료화하였다.

4단계 자료분석 단계로 문헌에서 얻어진 자료의 분석은 연도별, 내용별로 문헌정보를 통합하여 작성하였으며, 심층면담으로 수집된 자료들은 단위화, 범주화 과정을 거쳐 분석을 실시하였다.

5단계 면담에 의한 내용 분석 결과를 도출하는 단계로 분석된 자료를 통하여 전문가와 연구 참여자의 확인을 거친 후 결과를 도출하였다.

#### 4. 자료분석

문헌연구에 의해서 기초자료 분석이 이루어지고, 질적연구 방법인 심층면담기법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개인별 종합 프로파일(profile)을 작성한 후, 면담의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연구대상자 개개인의 의견을 종합하여 공통되는 부분을 강조하며,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료 분석을 위해 녹취한 자료를 여러 번 반복하여 듣고, 핵심사항을 메모하였다. 또한 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면담자의 주요 요점에 따라 분류하였으며, 분류한 내용은 내용별로 소제목을 달아 혼동되지 않도록 하였다. 심층 면담을 통하여 수집된 모든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컴퓨터에 기록하는 전사작업을 하였다.

### IV. 면담결과

본 연구의 심층 면담대상은 민간경호 실무자, 공경호 실무자, 무에타이 전문가, 경호무도 교수 4개 집단으로 구성되었으며, 무에타이와 경호 관련 실무적 경력은 평균 7년 이상으로 나타났다. 총 10명이 면담 목적에 맞게 표집되어 심층면담으로 개방형 질문방식을 사용하였다.

면담의 세부 내용은 첫 번째, 현행 경호무도 수련방법을 탐색하고자 하였고 두 번째, 무에타이 기술의 경호무도 수련방법 적용을 제시하였다.

## 1. 현행 경호무도 수련방법

현행 경호무도 수련방법의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서 심층면담을 실시하다.

좀 더 실질적인 무도 수련 방법이 필요합니다. 피해자들은 피해상황을 연출할 때 맨 손으로 위해를 가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무기 제압술에 더 많은 무게를 두고 수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도는 공간의 미학에서 오는 능숙한 기술들을 요구 합니다. 따라서 거리와 공간에 따른 다양한 동작이 수련과정의 기본으로 인식되고 그에 따른 무도수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경호무도란 ‘방어우선의 원칙’에 따르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경호무도가 적용되는 시기는 첫째, 피해자가 위해를 가하기 위해서 접근해오거나 시도할 때 필요합니다. 둘째, 경호대상자가 안전하게 대피할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는 데 필요합니다. 셋째, 경호대상자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과정에서 경호원이 피해자와 대적하여 제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필요합니다. 넷째, 경호대상자가 이미 안전한 곳으로 피했다면 이외의 무술은 경호원 자신을 지키기 위한 개인 호신용도로 무도가 필요하므로 그때부터는 경호무도라기 보다는 호신술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경호무도는 공격보단 방어 기술과 제압기술에 초점을 맞춰 수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방어와 제압보다는 공격기술을 경호무도에 무게를 두고 수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경호’라는 현장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경호와 무도를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수련자들과 피교육자들은 다른 무도는 필요 없고 한 가지만 잘하면 다 제압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사실 경호의 목적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도도 아니고 경호원도 아닙니다. 경호대상자의 안전한 대피입니다. 그렇다면 경호원은 무도를 하지 못하고 시간만 지연해도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부분이 난제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통합무도를 운운하기 이전에 경호무도가 적용되어지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발생했던 다중사태들을 비교분석하고 무도 동작이 필요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분석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날 경호무도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지 못했다고 판단되며, 통합무도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경호무도가 필요한 것인지 분간이 안 되고 있다고 사료 됩니다.

결국, 경호무도는 경호대상자의 안전을 위하여 방어에 목적을 두고 그 상황에 맞도록 무도를 접목시키는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통합무도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공격해서 피해자를 쓰러뜨리는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경호 대상자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통합무도가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 통합무도는 사례를 근거로 필요한 동작에 따라서 발전되어야 하며, 그 목적은 경호대상자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시간지연 효과가 빠져선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연구참여자, KSJ).

경호무도는 경호원 개개인이 수련하는 무도(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주짓수, 무에타이 등)와 경호전략전술 무도로 구분할 수 있다. 질문의 문제점은 경호무도를 수련함에 있어 개인이 선택한 무도에만 몰두하는데 있다. 각 무도는 고유의 특성이 있으므로, 그 특성을 잘 살린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문제는 대부분의 무도는 1:1 대결의 스포츠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무도를 오랫동안 수련한 경호원 개개인의 특성을 잘 활용하여 다양한 경호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전략과 전술의 반복훈련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개인위주의 훈련보다는 서로 분담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수련방법이 필요하다. 경호에서의 제압은 완전 제압이 기본이다. 또한 중첩 경호를 하기 때문에 경호원들 간에 합도 잘 맞아야 한다. 개인 능력치를 올리기 보다는 협력하고 보완하는 수련이 필요하다(연구참여자, LDH).

경호는 우발적 사건/상황이 많기에 정해진 틀을 정하고 정해진 틀 내에서 수련하기에는 모든 실전적 상황을 대처하기 부족함이 있다. 그러나 경호무도를 수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호상황을 연구하여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가상의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실전 경호무도 수련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경호무도 수련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호상황을 연구하고 또 그 상황에 적합한 대처를 교육시킬 수 있는 교육/연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연구참여자, KDY).

경호무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실체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경호무도는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질 때 사용되어지는 무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전개되어질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특정 무도에 한정하여 수련한다는 것이 아주 추상적입니다. 무도마다 형이 있는 이유는 그 무도가 가진 고유의 특성을 대변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경호무도에는 형이 없으며 형이 없다는 것은 말 그대로

형태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경호무도라는 단어에 화두를 던지기 보단 경호제압술에 초점을 두면 자연스럽게 경호무도를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토대가 되리라 판단합니다(연구참여자, KSJ).

현 경찰청에서 경호부서(101단, 본청 경호국) 등에서도 전반적인 경호 훈련이 이루어 지지만 보다 전문적인 훈련을 통해 외부 경호 교육업체와의 MOU체결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확대하여 일선 경찰관에 대한 경찰경호무도 훈련 방식 또한 보다 전문적인 외부 업체와의 협약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도훈련 방식에 있어서 반드시 방어적 ‘경호’의 개념으로 한정짓기 보다는 오히려 경찰에서도 범인을 제압, 공격할 수 있는 통합무도가 보다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연구참여자, IJS).

현행 경호무도 수련 방법에서는 경호무도 수련이 일반무도 수련으로 대부분 개인의 체력단련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한 수련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호무도에 있어서 통합 교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여러 가지 우발 상황과 실전의 유사한 가상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상황별 메뉴얼의 필요성이 요구되어진다. 또한 경호무도가 적용되어지는 근거를 발생했던 다중사례들을 통한 비교분석으로 경호무도의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2. 무에타이 기술의 경호무도 수련방법 적용

무에타이 기술의 경호무도 수련방법 적용은 경호 수행에 의한 우발 상황시 공간적 측면, 개인공격, 다수공격, 체포, 정신력 강화를 위한 정신훈련 등의 5가지 측면에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공경호의 특성상, 법률적 근거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가 관건인데, 개인공격 또는 다수 공격시 법률적 근거에 한하지 않고 보다 적극적인 대응(탐무아이(맨손격투술), 크라비크 라봉(무기술))이 가능 할 것이며, 현재 경찰의 무도 훈련 중 체포술은 단순히 상대의 위해적 행동을 저지하는 매카니즘을 벗어나 무에타이와 같은 자신의 신체를 이용한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연구참여자, IJS).

무에타이는 최강의 무술로 인정받을 만큼 강력한 공격력의 특성이 있다. 하지만 대

부분의 국내 경호상황이 강력한 공격력으로 위해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아닌 상황을 모면하거나 안전하게 위해요소를 제압 해야하는 까다로운 조건이 있다. 현실적으로 위해자에게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타격으로 제압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무에타이에는 뺨이라는 클린치 기술이 있다. 뺨을 사용하여 상대를 제압한다면 상대를 크게 넘기지 않고 간단하게 제압이 가능하다고 본다. 국내에선 뺨 기술을 적극 활용한다면 좋은 경호 제압술을 사용 할 수 있다고 본다. 아이러니하지만 평화로운 해결을 위해서는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 무에타이의 강력한 공격력을 겸비하고 안전하게 위해요소를 제압할 수 있는 합기도나 주짓수 같은 무도를 보완하면 좋을 것 같다(연구참여자, LDH).

무에타이는 맨손 격투술과 무기를 이용한 크라비(크라비크라봉-무에타이 무기술)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특히 맨손 격투술은 복싱기술과 함께 킥 기술이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무에타이는 근거리, 원거리 등 거리개념에서 만큼은 가장 강력한 파워를 지닌 무술이라 사료됩니다. 하지만 밀착상태에서는 효용성이 다소 떨어지므로 유도와 레슬링과 같은 그레플링을 가미하면 경호무도의 쓰임새로써 완성도가 높은 무술이라 판단됩니다(연구참여자, KS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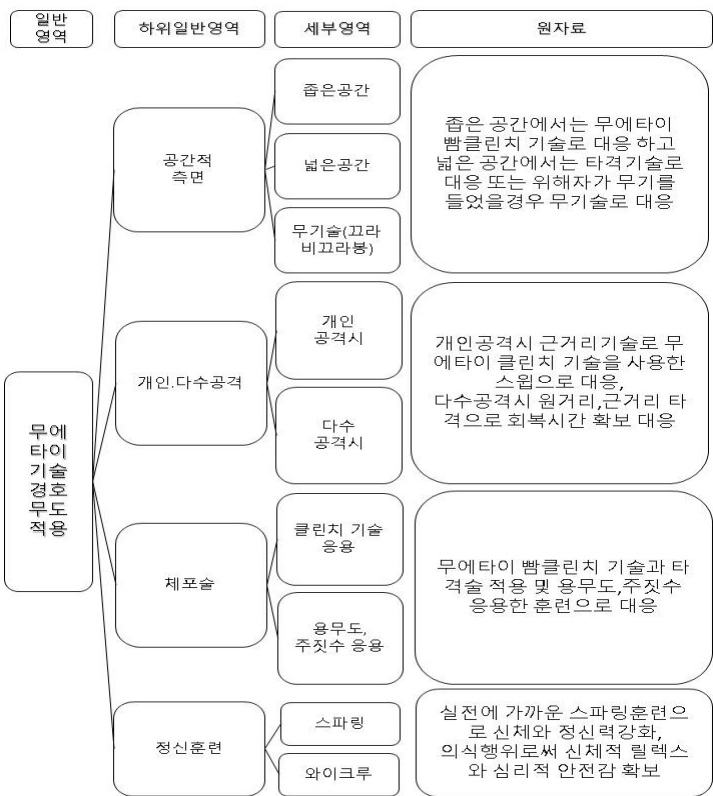
현행 체포술의 경우 법률적인 한계 및 추후 손해배상 문제로 인하여 최소한의 피해로 제압을 하게 되지만 현장에서 일어나는 우발 상황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무에타이의 경우에도 타격 위주의 공격이 체포술에 적용 된다면 이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체포술 적용시 타격으로 인한 제압을 행하되 공격하는 신체 부위에 차등을 두어 최소한의 피해를(타격부위를 하체 등으로 변경) 주고 제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에타이의 경우 타 무도와 비교해 보았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신체 부위가 많고 각 신체부위를 이용 한 공격이 탁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타 무도의 경우 각 무도 마다 특성상 사용하는 신체부위가 한정되어 있으나 무에타이의 경우 손과 발 이외에 무릎, 팔꿈치 등을 사용한 타격도 가능하므로 타 무도의 특성을 추출하여 상황에 맞게 사용하면서 우발상황시 무에타이 타격을 가미하여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제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연구참여자, WGJ).

희생정신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하며 실전을 통한 자신감도 상당히 중요하다. 항상 여러 시합을 통해 실전에 대비해야하며 그때그때 임기응변에도 강해야한다. 무에타이의 장점은 실전 스파링의 자유로움에 있다. 스파링을 통한 육체적, 정신적 단련이 가장 효과가 좋겠다. 그리고 많은 경호상황들이 대중의 혼란속에서 경호대상자를 보호함에 있

다. 무에타이를 수련하는 경호원은 대회에 참여하며 많은 대중으로 인한 혼란을 연습할 수도 있겠다(연구참여자, LDH).

무에타이 기술의 경호무도 적용에 있어서는 좁은공간·넓은공간 및 개인·다수 공격시 등 상황에 따라 근거리·원거리 기술을 적용하여 상황에 적합한 기술을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정신훈련에 있어서는 와이크루·스파링이 강한 정신력 강화 훈련으로 나타났다.

다음 그림은 무에타이 기술의 경호무도 적용에 대한 귀납적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2] 무에타이 기술의 경호무도 적용 귀납적 분석 결과

## V. 결론

본 연구는 질적연구방법인 심층면담기법을 적용하여 민간경호 실무자, 공경호 실무자, 무에타이 전문가, 경호무도 교수 4개 집단으로 전문가 10명을 직접 인터뷰하여 경호무도로서 현행 경호무도 수련방법과 그 적용방법을 도출하였다.

면담 자료를 바탕으로 현행 경호무도 수련방법을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천적이지 못하고 형식적인 무도형태를 취하고 있다. 각각 실무자별 인터뷰를 살펴보면 민간경비 실무자는 형식적 수련방식의 문제점을 말하며 실천형태의 무도수련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공경호 실무자는 타격술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나 현실적으로 사용을 조심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무에타이 전문가는 제압술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타격술이 기초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경호무도 교수는 경호무도 교육기관과 연구 시스템, 경호제압술, 경호상황시 무기 제압술등의 형태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둘째, 경호상황별 메뉴얼이 필요하다. 경호무도는 경호상황이라는 특수성과 다양성이 존재하므로 상황별 무도수련과 전략전술 수련을 함께 하여야 할 것이며, 경호 사례들을 비교분석하여 경호무도의 필요성을 제시하여 경호상황별 수련을 통한 통합 교본의 필요성이 요구되어진다.

셋째, 경호라는 특수성을 부각하여 경호무도를 체계화하여야 한다. 경호전문가와 각 무도 전문가들의 협력을 통하여 경호상황시 상황별 무도수련 방법 또는 상황별 무도 사용방법 등 경호무도를 통합체계화함으로써 경호원들의 효율적인 외부적인 대처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면담 자료를 바탕으로 무에타이 기술의 경호무도 수련방법을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간적 측면에서의 적용방법. 원거리의 경우 펀치와 킥, 하단을 공격하는 로우킥, 복부를 공격하는 딥(앞차기와 밀어차기의 중간형태) 등의 방어적인 형태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근거리의 경우 팔꿈치, 무릎을 이용한 타격으로 대응 할 수 있다. 초밀착 상황시 빠클린치(태국의 레슬링 형태)라는 스탠딩 기술을 사용하여 넘어뜨리는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겠다.

둘째, 개인과 다수공격시 대응방법 적용방법. 다수의 공격시 신체부위를 사용한

순간적인 타격으로 치명적인 손상을 주어 회복시간이 필요하게 함으로써 다수의 공격을 방어, 대응하는데 필수적인 것이다. 또한 무기술로서 소지하기 편한 “마이속”이라는 “1” 형태의 무기를 사용하면 공간에 어려움 없이 무기를 사용하거나 다수를 대응하는데 효과적인 것이다.

셋째, 체포술과 다른 무도와 조화되었을 경우 긍정효과. 법률적인 한계 및 추후 손해배상 문제로 인하여 최소한의 대응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타격부위를 하체 또는 복부 등으로 제한하여야 할 것이며, 근접상황시 뺨클린치 무에타이식 레슬링으로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넷째, 정신훈련 적용방법. 정신훈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신력 강화인데 정신력 강화는 어렵고 다양한 상황을 반복 경험함으로써 신체적 강화와 함께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무에타이의 스파링 훈련을 통하여 자신의 신체 통제(근거리, 원거리의 공방전)와 공격과 방어가 오가는 짧은 상황에 맞는 빠른 상황판단 능력을 키울 수 있으며, 멘탈 강화 훈련으로 무에타이의 와이크루 같은 의식 행위 또는 명상을 통한 훈련이 필요하겠다.

각 전문가들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현재 경호무도 수련방법은 실전성이 없으며, 경호상황별 메뉴얼과 경호무도의 체계화가 부족하다고 하고 있으며(정지덕, 2017), 무에타이 기술의 경호무도 수련방법은 근접시, 원거리시, 개인과 다수 공격시, 다른 무도와 조화의 긍정성, 정신훈련 등으로 나누어 적용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경호상황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4차 산업으로 기술의 발전은 지능화된 범죄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기술화된 경호 체계와 시스템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더욱 도모하는데 이점이 있다. 하지만 모든 시스템과 기능이 다운된다면 결국 최후의 방어막은 경호원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경호원의 신체적, 정신적 강함과 빠른 판단력은 경호상황에서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강함과 빠른 판단력 훈련 방안으로서 무에타이 기술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

- 강영길 (2002). 우발상황시 경호무도의 적용방법. 용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노승환 (2003). 경호무도 구성 원리와 과제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은정 (2005). 경호무도로서 ‘특공무술’의 형성과정에 관한 고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영석 (2005). 경호무도 기술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경북전문대학 논문집, 23, pp.101-119.
- 권태형 (2006). 근접경호 위해분석을 통한 경호무도의 활용방안. 용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종혁 (2008). 경호무도로서 특공무술의 활성화 방안.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마 나 (2011). 중국 무술술기의 경호무도 적용. 용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태일 (2011). 특공무술의 경호 우발상황시 적용방법. 용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윤희 (2013). 합기도 술기의 경호무도 적용. 용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도영 (2014). 한국 킥복싱 기술의 경호무도 적용. 용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현상 (2016). 주짓수 기술의 경호무도 활용 방안. 용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덕열, 양영모, 이창후 (2016). 경호무도 지도자 양성체계 구축방안.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 제3호.
- 박태춘, 조용훈, 이황우 (2016). 경호학과 태권도 전공자들의 신체조정 및 체력과 태권도 기술 수행력 비교분석.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 제2호.
- 장주원 (2017). 강도관 유도가타 응용연구를 통한 경호무도 적용방안. 용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지덕 (2017). 한국 민간경비원 교육훈련 전문성 향상 방안.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 제5호.
- 김상진 (2018). 경호실패귀인과 실패사례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경호운용 방안 모색. 융합보안논문지, 18(1).
- 김진환 (2020). 민간경비업의 경험 마케팅이 고객태도 및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 제10호.

### 3. 기타자료

엠파이트, <http://sports.news.naver.com/general/news/read.nhn?oid=275&aid=0000029724>

나무위키, <https://www.nami.wiki>

I.F.M.A 홈페이지, <https://www.ifma.org>

【Abstract】

## Applying the Security Guard Martial Art of Thailand Muaythai for the safety of the people

Kim, Han Jin<sup>\*</sup> · Kim, Jin Hwan<sup>\*\*</sup>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ai Muay Thai technology as a method of application to the security martial arts training system as a physical response to practical and efficient security work for private and public security guards for the safety of the country and the people. Accordingly, relevant experts were directly interviewed, and an academic approach was attempted to apply to the training of the guards. In the case of a security situation, the purpose of applying Muay Thai technology is to perform effective security duties of the security guard in an accidental physical situation. In-depth interview technique was used, which is an exploratory basic research method that can converge. In-depth research and analysis were conducted with participants through individual interviews through recording and questionnaire. In this study, a method was proposed to apply Muay Thai technique as a guard martial arts. First, Muay Thai has superior practicality in training methods compared to other martial arts, and has been developed in a practical direction rather than a brilliant technical system. Second, academic research on Muay Thai technology is still insufficient. With the popularization of Muay Thai technology and the development of official martial arts, an integrated textbook of Muay Thai technology should be prepared and studied as a standardized textbook. Third, in order to apply Muay Thai as a security martial arts practice in the future, the effectiveness as a security martial arts should be recognized through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a systematic plan should be established so that education can be achieved as an

---

<sup>\*</sup> Yongin University Dept. of Security Service Course of Ph.D(The 1<sup>st</sup> Author)

<sup>\*\*</sup> Yongin University Dept. of Security Service Professor(The Corresponding Author)

independent security martial art. Fourth, as a security martial arts, an objective and valid approach is needed as a measuring tool to apply the Muay Thai technique in case of a security contingency situation and to measure the technical behavior suitable for practice. Although this study is currently in the trend of popularization and development, it is meaningful to study a plan that can apply Muay Thai technology, which requires theoretical establishment of technology and academic research, to security martial arts.

**Key Words :** Bodyguard, Martial Arts, Guard Martial Arts, Muay Thai,  
In-depth interview technique

#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 영 애



##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 영 애\*

### [ 국문초록 ]

본 연구 결과에서 입증된 것처럼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은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더욱 향상되고, 자아존중감 높은 청소년들이 자기통제를 잘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를 볼 때 부모들은 가정 안에서 가정교육에도 더욱 노력을 기하여야 할 것과 자녀들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방안은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임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는 자기통제와 관련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프로그램과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체계적 상담과 설문 등을 통해 시대적 변화에 따라 청소년들의 고민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함께 그에 따른 실질적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즉, 다양한 체험식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의 개발 등이 이루어져야 하고 관련 연구 또한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청소년, 자아존중감, 학교생활, 자기통제, 체험식 교육프로그램

\* 칼빈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제1저자)

목 차
I. 서 론 II. 이론적 배경 III. 조사분석 IV. 결론 및 배언

## I. 서 론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가족해체와 더불어 청소년과 부모와의 관계 단절은 애정결핍을 나타내고, 가정에서 소외당한 청소년들은 학교에서도 부적응이 촉진되어 부적응 청소년이 되는 경향이 높다. 그에 따라 청소년들은 부모와의 갈등, 또래 집단의 압력, 학업성취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기대로 인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부적응 청소년들은 자존심 손상과 열등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위험행동 청소년과의 접촉이 빈번해지고, 가출 및 장기결석으로 이어져 결국 중도탈락이나 학업중단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이규미, 2004).

청소년 문제는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 인식의 변화를 보인다.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의 부적응은 초기의 개인에게 원인이 있는 부정적인 문제현상으로 보는 시각에서부터 청소년 시기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긍정적 요인을 찾아내는 시각으로 변화되었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증가는 학업중단, 학교폭력, 자살 등으로 나타나서 청소년기는 ‘위기기’라고 표현해도 부족할 정도로 그 심각성은 고조되고 있다(이혜경, 김현주, 2007).

건강하고 성공적인 성인 생활을 위한 준비과정인 청소년 시기는 건강한 자아발달 뿐 아니라 학습과제를 잘 성취하여 자신의 꿈과 진로를 설계하는 시기이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 시기의 학습문제는 발달적 부적응, 문제행동과 깊은 관련이 있다. 하지만 청소년 시기의 건강한 학습발달이 단지 높은 학업성취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높은 학업성적을 받은 청소년들이라 하더라도 높은 정서적 불안과 우울, 부정적 인지성향을 가질 경우 실패 경험이나 위기상황이 왔을 때 대처능력이 떨어져 학업중단이나 비행, 자살 등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건강한 학습발달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러한 위기와 실패를 잘 극복하고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오현경, 김성희, 2012).

본 연구는 앞서 고찰한 청소년기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함에 목적이 있다.

연구의 범위는 '14세에서 19세 사이의 연령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문헌연구와 통계처리를 이용하여 요인분석과 척도분석 등 실증적 연구 방법을 채택하였다. 또한 통계적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단행본과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여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청소년기 학생의 특징

청소년기는 지적 발달과 인지발달과정에서 급격한 변화와 함께 다양한 인격 성장 과업에 직면하는 시기이다.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성인기의 전환단계로 갈등과 위기의 자아정체감을 가지게 되는 시기이다. 외부의 영향을 쉽게 받으며, 사회적 요구와 입시 성적을 만족시켜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학교 부적응 현상이 많이 나타날 수 있어 위험 행동이 쉽게 나타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윤혜미, 박병금, 2005).

시대적으로 가족 간의 대화단절, 학교폭력, 따돌림, 진로, 특히 입시경쟁의 학업경쟁에 따라가지 못한 학생들은 스스로를 '낙오자'로 인식하며 실패자로서의 자아상을 가지고 학교생활을 하며 우울과 불안 등의 심리현상으로 인한 마음의 깊은 병을 앓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들이 선택하는 돌파구는 수업 방해, 수업 중 무기력한 태도, 잠자기를 통한 수업회피, 등교거부, 수업시간 무단이탈 등의 돌출 행동과 게임, 흡연, 가출, 자살 등으로 과잉행동의 학교 부적응의 모습을 점점 더 키우는 일시적인 해결책을 둘 뿐이다.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부모들 역시 불안해 하기는 마찬가지다. 정신과 치료를 고려해 보기도 하지만 치료기록으로 인해 진학이

나 취업에 미칠 영향과 약물치료에 대한 부작용 우려로 불안을 가중시키게 된다.

## 2.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 1) 자아존중감의 개념

자아존중감(self-esteem)이란 자신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평가로써 자기존경과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자아존중감은 광범위한 의미와 자기개념, 자기효능감, 자각지각, 자신감, 자기평가 등 여러 용어로도 쓰인다. 자아존중감은 대개 스스로에 대한 가치 및 평가를 정의하며, 개인의 건강한 성격 형성과 적응력 및 자아실현에 중요한 요소로써 인간의 감정, 동기, 인간관계, 행동, 성취 등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준다.

Rogers(1998)는 자아를 자신의 태도와 행동의 기초이고 자신의 내적 잠재능력이며 다양한 감정 속에서 자아존중감은 중심적 특수성을 지닌 것으로 봤다. 자아개념은 개개인에게 핵심적이고 중요하며 자아존중감 또한 개인의 태도와 행동을 설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개념이기도 하다. Holland·Andre(1994)는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의 능력과 가치에 대한 평가가 내포된 신념으로 개인이 지각하는 가치감이며, 자아개념은 자아에 관한 다양한 신념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였다. Simmons·Blyth(1987)는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의 존재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견해로써 자아개념이 자아에 대한 인지적 측면이라면, 자아존중감은 감정적 측면이라 하였다. 즉, 자기존재에 대한 느낌은 자아존중감이고,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인지적으로 형성된 것이 자아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Rosenberg(1979)는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보다 불안감이 높고, 유대관계가 완만하지 않고 외톨이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지도자로서 역할 부족 및 자신감 하락과 실패를 걱정하고, 도전하는 상황이 거의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의존심과 신경이 많아 문제해결을 자신 스스로가 하지 못한다. 그러나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보다 자신과 타인의 능력을 인식하고, 수용하며 사회적 관계에서 안정감과 소속감을 가진다. Newman(1975)에 의하면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의 능력과 사회적 수용이라는 두 가지 경험에 대한 자기 평가의 결과로 개인이 스스로에 대해 판단하는 또는 스스로에 대해 의식적으로 유지하는 평가라고 각각 정의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아존중감이 ‘자신의 가치’ 그 자체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에 대

한 인식이다. 자아존중감은 성공을 경험하면서 생기고 강해진다. 긍정적인 피드백이 없다면 아동들은 자신의 성공을 의식할 수도, 그것을 기억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어른들은 아동들의 긍정적인 행동이나 성공을 칭찬하고 강조해주어 아동들이 그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한편 강진경(2010)은 자기신념(Self-confidence)과 자아존중감(Self-esteem)을 구별하여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자아를 수용하며 자아의 가치를 느끼는 정서적인 의미인 반면에 자기신념은 Bandura의 자기 효능감(Self-efficacy)의 개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개념으로 장애를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는 자아와 환경의 조절에 대한 의미로 보았다. 이 이론에서는 개념 이해(conceptual understanding)를 질적인 평가가 요구되는 인지적 활동이며, 이와는 반대로 평가(Esteem)는 대상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방향이 결정되는 활동으로 보았다(안철범, 박준석, 정성배, 2020). 황성우(2008)는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자신에 대해 지니고 있는 생각, 판단, 태도, 감정, 기대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자기 자신과 주변의 객관적인 환경요소들에 대한 주관적 경험을 통해 유아기에 그 바탕이 형성되며 청소년기를 거쳐 인생전반을 통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달한다고 볼 수 있다고 정의하였다. 또한 자아존중감을 자기 자신에 대해 내리는 평가와 타인이 자신에게 내리는 평가에 대한 자신의 수용과 존경의 정도라고도 주장하였다.

## 2)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의 중요성

청소년기 발달단계에서 스스로에 대한 평가로써 긍정적·부정적 자아존중감으로 나눌 수 있다. 긍정적 자아존중감을 갖는 청소년은 자신감이 높고, 성취적·우호적·자율적인 반면에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갖는 청소년은 자신감이 낮고, 불안정하고 의존적이고 비수행적이다. 자아존중감 구성과 발달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근거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관심과 존중, 수용 등을 들 수 있다. 다른 사람은 긴 시간을 같이 보낸 타인을 뜻하며, 대개 부모가 자녀에게 자아존중감 형성에 넓은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업실행 및 인간관계 등을 잘 선택 할 수 있고, 적극적이고 긍정적 사고방식과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은 만성화된 무력감과 더 나아가 우울증까지 발전하는 경우가 있고, 겉으로 드러나며 일탈과 비행행동 등을 많이 하고 있다. 이처럼 자아존중감이 낮으면 충동

성, 부정적 정서감, 우울증, 소외감, 공격성 등 부정적 상관관계가 있고,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삶에 대한 행복감, 자신감, 만족감과 같이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다(임효선, 2015).

이처럼 청소년기에 있어 본인 스스로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고 높여가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를 통하여 자아존중감은 학교행복감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살펴볼 수 있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학습동기를 높여감으로써 보다 높은 학업성취를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3. 학교생활 적응

#### 1) 학교생활 적응의 개념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개념은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다.

Spencer(2005)는 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학습 환경 사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학교순응 정도라고 정의하였으며, 학업수준, 학교생활 만족감, 학교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대처능력 등 학교생활과 관련한 요구를 잘 조절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Ladd, etc(1996)은 학생이 교육과정을 포함한 학교 내의 다양한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학교 구성원인 교사나 친구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그 속에서 만족감 및 편안함을 느끼는 상태라고 하였다.

한편 김용래(2000)는 학교생활 적응을 학습자가 학교상황, 즉 학교수업, 학교생활, 학교 내에서의 친구관계, 교사와의 관계, 학교환경 등에서 유발되는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일련의 노력으로써 학습자 요구를 학교 상황 내의 제반 요구에 맞게 잘 조절하고, 학교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따라 대처하려고 하는 학습자의 시도라고 정의하였다. 민동일(2007)은 학교생활 적응은 학생이 교사와 또래와의 조화롭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토대로 학교규칙과 학교수업 등에 능동적인 참여를 하고 청소년 스스로 학교와 자신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학교생활 적응은 학교생활을 하는 동안에 학교와 개인 사이의 자신의 욕구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상태라고 하였다. 성선진(2010)은 학생이 모든 학교환경으로부터 유발되는 스트레스나 문제 상황에 융통성 있고, 유연하게 대처하며, 학교환경과 개인 사이에 조화를 이루어나

가는 역동적인 상호작용 능력이라고 정의 내렸다.

김아영, 이명희(2008)가 연구한 청소년의 심리적 욕구만족, 우울경향, 학교생활 적응 간의 관계구조와 학교급간 차이와 문은식(2002)이 연구 발표한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관련변인의 탐색적 고찰에서는 학교생활 적응을 자존감 및 친구관계, 교사관계, 학교환경에 대한 개인의 지각과 감정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하였고 학교공부에 대한 흥미정도와 학업성취에 대한 지각정도, 교사와 친구와의 관계성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송선옥(2018)은 학교생활이란 학생의 모든 행동이 모든 학교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잘 조화되고 성공적인 관계를 형성시킴으로써 교사, 다른 학생 등 타인들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해가며 학교수업에 적극적이고 학교규범에 순응하며 독립된 한 개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해가는 것으로 보았다. 김정집(2005)은 학교적응을 학생의 모든 행동이 학교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적절한 조화를 이루고 교사, 교우 관계 등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학교수업 및 학교생활에 대해 높은 동기와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교규범을 성실하게 준수하며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주장했다. 이명순(2006)은 학교생활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교사 및 친구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학교질서 규범 등에서 자기욕구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생활적 적응행동, 학업적 적응행동, 스트레스 대처 정도의 큰 틀에서 세 가지로 구분하여 개념화 하고 있는데, 생활적 적응행동은 학생의 모든 행동이 학교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잘 조화되고, 성공적인 관계를 형성시킴으로써 의미 있는 타인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가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학교생활 적응은 학생이 학교생활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교사 및 친구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학교의 질서·규범 등에서 자기 욕구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볼 수 있다.

## 2) 청소년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은 표현력이 풍부하고 자신감이 있으며 자신을 긍정적으로 느끼고 사고하는 경향이 높은 반면 자아청소년기는 자아존중감 형성에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자아존중감이 높일수록 학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성취동기가 높고 자기표현을 잘 하며 성공적일수록 학교생활을 잘하는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을

수록 소심하게 행동하고 억압되어 있으며, 자기중심적이거나 원활하지 못한 상호작용으로 인해 또래집단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관찰된다.

김선미(2017)는 자아존중감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효과에서 자아존중감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자신의 이해와 수용을 가져오며, 학생 자신에 대해 가치 있는 존재임을 인식시켜준다고 보았다. 또한, 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은 자신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느끼고 사고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필수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

#### 4. 선행연구

##### 1) 자아존중감

Branden(1987)은 자기 신뢰 및 자기 존경의 융화 즉 자신만의 생의 가치와 유능성에 대한 확신이라고 하였으며 자아존중감의 구성요소로 효율감(self-efficacy)과 가치감(sense of worthiness)을 들었다.

최보가, 전귀연(1991)은 자신이 지각한 자신의 여러 속성들에 의한 스스로의 평가적 태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친구로서 자기 자신에 대해 느끼는 감정인 사회적 자아존중감, 가족구성원으로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인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 학업적 평가 및 학교생활에서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포함한다고 보았다. 즉, 학생으로서 자신의 평가인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의 3가지 구성요인을 개인이 자신의 지적·정의적·신체적 특성에 대해 갖는 주관적인 가치판단 혹은 평가와 관련한 것이라 했으며 자신에 대한 존경심과 자기 자신을 가치있는 존재로 여기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혜경(2009)은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은 부모가 자신의 기분을 맞춰줄 때, 집에서 높은 행복감을 느끼고, 부모와 함께 있는 시간을 즐기게 되고,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즐거운 기분을 유지하게 된다. 가족을 훌륭하다고 여기는 안정된 소속감과 부모가 자신을 자랑스러워한다는 자긍심이 수반된 가정에서의 높은 자아존중감이 자신이 원하는 친구를 사귄 수 있는 자신감으로 나타난다. 조명실(2012)은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에서 청소년기 학생들은 학교에서는 주로 친구나 선생님들과의 관계에서나 선생님이 자신을 착하다고 여기지 않을 때, 학교성적에 대한 부분에 의해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이 많이 작용한다. 낮은 자아개념을 가진 청소년들은 우울, 불안, 그리고 낮은 성취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높은 이상을 가지고 있으나 자신이 선택한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재능이 부족한 것으로 자신을 평가절하 때문에 결코 그들이 원했던 성공이나 더 좋은 직업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과 사회적 고립감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즉, 높은 자아존중감을 갖는 청소년은 자기표현에 대해 능력, 자기확신, 인내, 잠재적인 지도력, 재주, 지능과 숙련도, 좋은 인상을 주는 능력, 사회적인 기술, 실용적인 지식의 특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처럼 자아존중감은 인간의 심리적인 만족과 효과적인 역할수행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는 정서적인 면과 행동적인 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 2) 학교생활 적응

학교생활 적응과 관련된 많은 선행연구들이 이루어졌는데 특히 하위요인과 관련하여서는 대부분의 국내연구들은 가설적 정의를 내리고, 학교환경을 이루고 있는 영역을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여 학교생활 적응을 측정하는 방법이 주를 이룬다.

Masten(2001)은 청소년기의 적응의 영역을 학교생활 적응, 친구 적응, 가족 적응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는데, 학교생활 적응에서는 학교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감과 학문적인 성취, 교사가 평가한 객관적인 학문적 수행을 주요 요인으로 설명하였다. RoeserEccle(1998)는 학업적인 적응(학업적인 자기개념, 교육의 가치, 수업 이탈 혹은 결석), 심리적인 적응(자아존중감, 분노, 우울증상), 학교지각(학생의 자율성, 학교과제 목표구조, 교사의 긍정적 관심)으로 학교적응을 측정하였다.

한편 김남희, 김종백(2011)은 학생과 교사간의 애착이 수업상황에서 신뢰성 있는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교사는 학생의 학업적·정서적 관심과 요구를 알아차리고 반응하며, 학생은 교사로부터의 긍정적인 인지적·정서적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학습활동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였다. 문은식(2002)은 학교생활 적응을 학업적 적응행동(수업참여도, 학습노력, 학습지속성, 학습행동통제), 사회적 적응행동(교우관계, 규칙준수), 정의적 적응행동의 3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하여 설명했다. 이규미, 김명식(2008)은 우리나라 중학교 학교적응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타당화 연구에서 학교적응의 하위영역을 학교공부(학업유능감, 학업가치), 학교친구(긍정적인 친구관계, 친구와의 상호협조성), 학교교사(교사에 대한 호감, 교사에 대한 친밀감), 학교생활 영역(질서와 규칙준수)으로 구분하여 제시했다. 김용래(2000)가 학

교적응의 하위요인을 학교환경, 학교교사, 학교수업, 학교친구, 학교생활 적응 측면에서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학교규칙은 교내에서 질서와 단체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규범이라 할 수 있다.

### Ⅲ. 조사분석

####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고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경기도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 2)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특별시경기도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청소년들과 조사를 실시해 준 담임교사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의견을 검토한 결과, 청소년들이 이해하기 어렵거나 혼돈을 가져올 수 있는 질문내용이나 문항들을 보다 명확히 한 후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2018년 6월 4일부터 6월 28일 사이에 진행되었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하여 조사대상 청소년들이 직접 설문지에 기입하는 방식을 통해 이루어졌다. 회수된 설문지는 총 580부였으며, 그 중에서 결측값이 많아서 응답내용이 부실하거나,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68부를 제외한 512부의 설문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 2. 변수 구성

##### 1) 독립변수

독립변수로서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능력과 신체적 특성과 같은 복합적인 영향력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개인의 스스로를 평가하는 태도에 나타나는 개인적인 가치 판단으로 정의를 내렸다.

이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는 Rosenberg·Marshall, B.가 개발한 10문항으로 이루어진 단일차원의 거트만 척도로서 처음에는 고등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이 척도는 개발된 이래로 다양한 작업을 가진 성인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다른 집단에 사용되었다. 이 척도의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는 오랫동안 이 척도를 가지고 광범위한 집단에 대한 연구가 실시되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김선희, 박영남 등이 사용하였던 척도를 연구자가 본 연구에 맞게 12문항으로 재편성하여 사용하였다. 척도 전체 신뢰성은 0.92 이어서 본 연구를 위해서 요구되는 신뢰성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성(Cronbach's  $\alpha$ )계수는 <표 1>과 같으며, 각 설문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서 설계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설계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영역에서의 더 많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표 1> 독립변인 측정문항의 신뢰성

변인	문항수	문항번호	신뢰성 (Cronbach's $\alpha$ )
자아존중감	4	2-1, 2-2, 2-3, 2-4	0.92
	4	2-5, 2-6, 2-7, 2-8	
	4	2-9, 2-10, 2-11, 2-12	

## 2) 종속변수

종속변수는 학교생활 적응으로 학생의 모든 행동이 학교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잘 조화되고 성공적인 관계를 형성시킴으로써 교사와 학생 등 의미 있는 타인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가며 학교수업에 적극적이고, 학교규정에 순응하여 독립된 한 개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가는 것이라는 정의를 따르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김택호, 김재환, 문은식(2002), 김용래(2000), 구자은 등의 척도를 참조하여 본 연구자가 재구성하여 만든 학교생활 적응 척도를 사용하였다. 학업적응 10문항, 사회적응 6문항, 학교환경 및 일반적응 6문항 등 도합 22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이는 5점 척도의 자기보고형 척도로 반응하도록 되어 있다.

학업적응 영역에서는 수업참여, 학습노력, 학습지속성, 학습행동통제 관련 내용들

이 포함되고, 사회적응 영역에는 교우관계, 교사관계, 규칙 준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며, 학교환경 및 일반적응 영역에는 학교환경에 대한 만족도와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문항들이 포함되어있다.

척도 전체 신뢰도는 0.88 이어서 본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신뢰성을 구비하였다. 각 설문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서 설계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설계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 적응 영역에서의 더 많이 적응되는 것을 의미한다.

### 3.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중고등학생이 작성한 설문지를 회수하여 통계적으로 처리하는 양적 조사방법을 적용하였다. 설문지의 측정문항을 코딩(coding)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SPSS(PASW).ver 22.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통계처리방법을 적용하였다.

〈표 2〉 실증분석에 적용한 통계기법

구분	분석내용	분석기법
기초 통계량	○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빈도분석
	○ 측정문항의 정규 분포성	기술통계
타당도 검증	○ 주요 변인 사이의 상관관계	상관관계분석
	○ 주요 변인의 타당도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인과관계 검증	○ 주요 변수 사이의 인과관계 검증	다중회귀분석
매개효과 검증	○ 매개효과의 존재 판정 ○ 매개효과로 인한 총효과 변화량 측정 ○ 매개효과로 인한 전체효과 증가율 분석	단순회귀분석, 다중회귀분석
	○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소벨테스트

#### 4.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인 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3>와 같다. 설문에 응답한 학생의 성별은 남학생 146명(28.5%), 여학생 366명(71.5%)로 여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 분포로 3학년학생들이 대부분이며 302명(59%), 종교는 기독교 224명(43.8%)로 가장 많았다. 성적은 중위권 348명(68%), 하위권 141명(27.5%)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장래 갖고 싶어 하는 직업은 전문직196명(38.3%), 예체능이 148명(28.9%) 방송연예 76명(14.8%) 회사원이 54명(10.5%), 공무원 38명(7.4%)로 나타났다.

동거형태로는 단독주택 12명(2.3%), 연립주택 21명(4.1%), 아파트 424명(82.8%), 전원주택 20명(3.9%)로 주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이 가장 많았다. 동거형태로는 부모님과 함께산다 401명(78.3%), 어머니와 같이 산다 68명(13.3%), 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는다 23명(4.5%)로 부모님과 함께 산다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구분	빈도	비율(%)	누적률(%)
성별	남학생	146	28.5	28.5
	여학생	366	71.5	100.0
학교	중학교	400	78.1	78.1
	인문계고등학교	2	0.4	78.5
	실업계고등학교	110	21.5	100
학년	1학년	39	7.6	7.6
	2학년	171	33.4	41.0
	3학년	302	59.0	100.0
종교	천주교	145	28.3	28.3
	기독교	224	43.8	72.1
	불교	51	10.0	82.0
	종교없음	90	17.6	99.6
	기타	2	4	100
성적	상	23	4.5	4.5
	중	348	68.0	72.5
	하	141	27.5	100.0

장래 희망 직업	전문직	196	38.3	38.3
	예체능	148	28.9	67.2
	회사원	54	10.5	77.7
	방송연예	76	14.8	92.6
	공무원	38	7.4	100.0
거주 형태	단독주택	9	1.8	1.8
	아파트	459	89.6	91.4
	빌라, 연립	23	4.5	95.9
	전원주택	2	4	96.3
	기타	19	3.7	100.0
동거 형태	부모님과 같이 산다	401	78.3	78.3
	아버지와 같이 산다	20	3.9	82.2
	어머니와 같이 산다	68	13.3	95.5
	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는다	23	4.5	100.0

## 5. 독립변수의 요인분석과 신뢰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매개변수로 자아존중감을 주요변인으로 하여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자아존중감의 요인분석과 신뢰성 검증결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4>과 같다.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 문항들을 대상으로 KMO값을 산출한 결과 KMO 값이 0.879로 0.7 보다 큰 값이 나왔으므로 측정문항들 사이에 공통성이 있으며 요인분석에 적합하다.

Bartlett 구형성 검증결과 유의확률  $p=0.000$ 이 나왔다. 따라서 귀무가설 “측정 문항들의 상관관계 행렬이 단위행렬이다”는 기각되고, 측정문항들은 상관관계가 존재하여, 측정도구가 요인분석에 적합함을 입증하였다.

요인분석은 자아존중감 22문항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주성분분석을 적용하여 정보손실을 최소화하였고 베리맥스(verimax) 직각회전으로 측정문항들의 요인적재량을 평가하기 쉽도록 변환하였다.

일반적으로 요인적재값(factor loading)이 0.6 이하인 측정문항을 제거하여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높였다.

자아존중감의 고유값은 3.627이었고 추출된 요인의 누적 총분산은 72.531%로 요

인이 측정문항 전체의 분산을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종속변인의 신뢰성은 Cronbach's  $\alpha$  값이 .879로 산출되었고 기준값인 0.7을 크게 상회하였으므로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설문문항의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 자아존중감 요인분석 및 신뢰성 검증

측정변인	성분	주요변인	신뢰성
	1		
자아존중감6	.883	자아존중감	.904
자아존중감7	.878		
자아존중감8	.876		
자아존중감5	.829		
자아존중감1	.788		
고유값	3.627		
% 분산	72.531		
% 누적	72.531		

KMO=.879  $\chi^2=1595.380$   $df=10$ ,  $p=.000$  요인추출방법: 주성분분석, 회전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 변수 제거 후 문항 수=5

## 6. 종속변수의 요인분석과 신뢰성 검증

종속변인인 학교생활 적응을 측정하는 문항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 및 요인분석결과는 <표 5>와 같다. 종속변인 측정문항들을 대상으로 KMO를 산출한 결과 KMO 값이 0.882로 0.7 보다 큰 값으로 측정문항들 사이에 공통성이 있으며 요인분석에 자료가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Bartlett<sup>1)</sup> 구형성 검증결과 유의확률  $p=.000$ 이 나왔다. 따라서 귀무가설 “측정문항들의 상관관계 행렬이 단위행렬이다”는 기각되고, 측정문항들은 상관관계가 존재하여, 측정도구가 요인분석에 적합함을 입증하였다. 요인분석은 학교생활 적응에 22문항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주성분분석을 적용하여 정보손실을 최소화하였고 베리맥스(veriamx) 직각회전으로 측정문항들의 요인적

1) Bartlett 테스트는 입력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상관계수 행렬식을 계산하는 것으로 행렬의 행과 열의 치수가 동일한 정방행렬의 원소들을 일정한 규칙에 의하여 결합한 다항식을 말한다.

재량을 평가하기 쉽도록 변환하였다. 일반적으로 요인적재값(factor loading)<sup>2)</sup>이 0.5 이하인 측정문항을 제거하여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높였다.

〈표 5〉 학교생활 적응 요인분석 및 신뢰성 검증

측정변인	성분	주요변인	신뢰성
	1		
학교생활 적응3	.831	학교 생활적응	.898
학교생활 적응1	.821		
학교생활 적응12	.819		
학교생활 적응6	.816		
학교생활 적응8	.800		
학교생활 적응4	.798		
고유값	3.980		
% 분산	66.326		
% 누적	66.326		

KMO=.882,  $\chi^2=1721.$ ,  $df=10$ ,  $p=.000$  요인추출방법: 주성분분석, 회전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 변수 제거 후 문항 수=6

## 7.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량

요인분석으로 추출한 주요 주요변인의 기술통계량을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독립변인인 자기존중감과 종속변인인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통계량으로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를 제시하였다.

추출된 변인들의 정규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왜도와 첨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왜도는 측정 데이터들의 치우친 정도이므로 왜도 값이 양(+)이면 왼쪽으로 분포되고 음(-)이면 오른쪽으로 자료가 치우쳐 분포되어 있음을 설명한다. 가설검증을 위해서는 측정값들이 정규분포를 가져야 하는데, 완전한 정규분포의 왜도는 0의 값을 갖는다. 첨도는 측정값들이 분포의 중심인 평균값 주변에 군집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첨도 값이 음(-)이면 정규분포보다 자료가 양끝으로 넓게 퍼진 것을 의미하여 양(+)이면 정규분포보다 중앙으로 자료가 밀집하여 높은 봉우리 형태로 분포한다는 것을

2) 요인적재값(factor loading)은 각 변수와 요인 간의 관계정도를 나타내는 값으로써 일종의 회귀계수 값으로 볼 수 있으나, 표준화된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그 값은 변수와 요인 간의 상관계수 값이 된다.

의미한다. 왜도와 첨도의 표준화된 값이  $\pm 2$  또는  $\pm 3$  이내의 값을 가지면 가설검증에 필요한 정규분포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6〉 주요변인 기술통계량

주요변인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자아존중감	1.00	5.00	3.9444	.88962	-.861	.473
학교생활 적응	1.00	5.00	3.6859	.88378	-.479	-.269

## 7.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검증하는 것으로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종속변인의 자기상관을 검토하기 위하여 종속변인의 자기상관은 Durbin-Watson 지수를 이용하였으며, 1.927로 나타나 산출된 통계량이 기준 값인 2에 근사하므로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영향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아존중감( $B=.569$ )은 학교생활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15.779$ ,  $p<.001$ ). 또한, 회귀설계는 학교생활 적응을 유의하게 설명하였으며( $F=248.984$ ,  $p<.001$ ),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결정계수가 32.8%( $\text{Adj.}R^2=.328$ )로 나타났다.

〈표 7〉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구분	B	SE	$\beta$	t	p	공선성 통계량	
						공차	VIF
(상수)	1.439	.146					
자아존중감	.569	.036	.574	15.779	.000	1.000	1.000
R <sup>2</sup>	.329						
Adj. R <sup>2</sup>	.328						
F	248.984***						
p	.000***						
Durbin-Watson	1.927						

\*\*\*  $p<.001$

####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학교생활 적응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 결과가 드러났다. 학생들이 자아에 대한 스스로의 존중감이 강할수록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이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다. 더불어 자아존중감이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학습조절( $\beta = .534$ )이 가장 강한 영향력을 미쳤으며 그 다음으로는 자기통제( $\beta = .306$ ), 과제책임감( $\beta = .147$ ), 친구지지( $\beta = .124$ ) 순서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 스스로가 학습을 잘 조절할 수 있을 때,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 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자아존중감은 인간의 심리적인 만족과 효과적인 역할수행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는 정서적인 면과 행동적인 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 도출된 것은 자아존중감은 학교생활 적응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자아에 대한 스스로의 존중감이 강할수록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이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다. 영향력의 크기는  $\beta = .574$ 만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것은 연구 대상자들의 주거형태가 주로 아파트로 424명(82.8%)이어서 이들의 비교적 높은 자존감은 아동의 일반적 특성 중 가장 가정 경제수준이 가장 높게 자아존중감을 높여 행복감을 주는 요인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 입증된 것처럼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은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더욱 향상되고, 자아존중감 높은 청소년들이 자기통제를 잘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를 볼 때 부모들은 가정 안에서 가정교육에도 더욱 노력을 기하여야 할 것과 자녀들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노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방안은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임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는 자기통제와 관련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프로그램과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체계적 상담과 설문 등을 통해 시대적 변화에 따라 청소년들의 고민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함께 그에 따른 실질적 대책이 요구 되고 있다. 즉, 다양한 체험식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의 개발 등이 이루어 져야 하고 관련 연구 또한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

- 강진경 (2010). 아동기의 부모에 대한 내적 표상과 성인기의 낭만적 애착. 이화 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경집 (2005). 이혼가정 이동을 위한 학교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선미 (2017). 부모와의 애착이 아동·청소년의 자아감, 대인관계, 사회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개념적 모형의 탐색.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민동일 (2007). 청소년의 가정건강성, 학교생활건강성 및 자아탄력성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성선진 (2010).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관련요인의 인과적 관계 분석.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선옥 (2018).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기 긍정 발달과 부정 발달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명순 (2006). 한부모 가정과 양부모 가정 고등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비교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혜경 (2009).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과 학교생활부적응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명실 (2012).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과 진로 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황성우 (2008). 창의적 무용프로그램이 초등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남희, 김종백 (2011). 기본심리욕구와 수업참여를 매개로 한 학생-교사애착관계와 학업성취도의 관계. 한국교육심리학회, 25(4).
- 김아영, 이명희 (2008). 청소년의 심리적 역구만족, 우울경향, 학교생활 적응 간의 관계구조와 학교급간 차이. 교육심리연구, 22(2)..
- 김용래 (2000). 학교학습동기(A)와 학교적응척도(B)의 타당화 및 두 척도 변인간의 관계분석. 교육연구논총, 17.
- 문은식 (2002).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관련변인의 탐색적 고찰. 교육발전논총, 23(1).

- 오현경, 김성희 (2012). 청소년 학업 레질리언스 척도 개발과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9(1).
- 윤혜미, 박병금 (2005).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관련 요인-생태체계적 관점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28, 133.
- 이규미 (2004). 중·고등학교 교사가 지각한 학교부적응 행동지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2).
- 이규미, 김명식 (2008). 중학생 학교적응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5(1).
- 이혜경, 김현주 (2007). 청소년의 학교생활 부적응에 관한 연구경향 분석.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지, 5(2).
- 안철범, 박준석, 정성배 (2020). 경호관련 대학생의 전공선택동기가 전공만족도 및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 제10호.
- 임효선 (2015). 초등학교 학습부진학생과 일반학생의 괴롭힘 경험 비교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성화, 김옥진 (2011). 청소년의 학교적응, 자기통제력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1(3).
- 최보가, 전귀연 (1993). 자아존중감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1).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1(2).
- 황성우 (2008). 창의적 무용프로그램이 초등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 기타자료

- Branden, N (1987). How to Raise your self-esteem. N.Y: Brantam Books Inc.
- Holland, A·Andre, T (1994). The Relationship of Self-Esteem to Selected Personal and Environmental Resources of Adolescents. Adolescence 29(2).
- Ladd, G. W·Kochenderfer, B. J, Coleman, C. C (1996). Friendship Quality as a Predictor of Young Children's Early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3).
- Newman, B. M·Newman, P. R., (1975). Development through Life. A Psychosocial Approach. Homewood, IL: Dorsey.
- Rosenberg, Alan M, (1979). Reiter'a disease in children. American Journal of diseases of children, 133(4).
- Rogers, C. R. (1951). Client-centered Therapy: Its Current Practice, Implications and Theory.” Boston: Houghton Mifflin.

- Roeser, R. W.:Eccles, J. S., (1998). Adolescents' Perceptions of Middle School.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8(1).
- Simmons·Blyth (1987). The Impact of Cumulative Change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58(5).
- Spencer, D. Cole. (2005). College and university name change. Virginia: University of Virginia.

**【Abstract】**

## **A Study On the Influence of Self-esteem of Youth on the Adaptation of School Life**

Park, Young Ae<sup>\*</sup>

As evidenced by the results of this study, adolescents' self-esteem improved more while living with their parents, and adolescents with high self-esteem became better at self-control. In view of these results, it is very important for parents to make more efforts for home education in the home and to make efforts to improve the self-esteem of their children.

There is no room for reconsideration that the way to improve the self-esteem of adolescents is an important factor in increasing the influence on school life adjustment. To this end, there is an urgent need in schools to strengthen long-term and comprehensive programs related to self-control, education and training.

In order to improve this, a thorough analysis of how adolescents' worries are changing according to the changes of the times through practical and in-depth systematic counseling and questionnaires for adolescents and practical countermeasures are required. In other words, various experiential educational programs and textbooks should be developed, and related research should be continuously developed.

**Key Words:** Youth, self-esteem, school life, self-control, experiential education program

---

<sup>\*</sup> Calvin University Dept. of Social Welfare Professor(The 1<sup>st</sup> Author)



# 가정적 요인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김 상 수



Korean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Association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 가정적 요인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김 상 수 \*

### [ 국문초록 ]

본 연구에서는 해마다 증가는 학교폭력의 실태와 현황들을 고찰하고, 가정적 요인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예방책을 제시하였다.

가정환경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부모에게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가정에서의 바른 언어습관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 참여 의무화, 맞벌이 부부에 대한 직장 내 학교폭력예방 교육 프로그램 도입, 경찰의 체험형 교육으로의 개선과 학교폭력의 문제의 처리에 있어 절차상 공정성이 강화하는 방안 마련 등의 대책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교육적 대안과 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교폭력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전담경찰관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학교전담경찰관의 근무년수 강화 및 시험제도의 개선을 비롯하여 인력증원, 학교전담경찰 업무의 행동지침 매뉴얼 제정, 학교폭력 가해자 처리시 경찰에게 수사종결권 부여 등이 필요하다. 또한 일반 경찰관 경력으로 학교전담경찰관의 경우 비행 등 범죄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것에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만 자주 바뀌는 인사이동으로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주제어:** 학교폭력, 청소년폭력, 학교폭력 영향요인, 학교폭력 실태, 학교폭력예방

\* 오산대학교 경찰행정과 교수(제1저자)

목 차
I. 서 론
II. 이론적 배경
III. 학교폭력 실태 및 가정적 요인 분석
IV. 가정적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경찰의 대응방안
V. 결 론

## I. 서 론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등장한 이후 2004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후로도 몇 차례 관련부처 합동으로 학교폭력 종합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학교폭력은 여전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다(치안정책연구소, 2019: 137).

우리나라에서 학교폭력의 문제는 1990년대 사회문제로 주목받기 시작한 이후 2019년 현재에는 학교폭력의 저 연령화로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폭력성이 심각한 문제로 잔인화, 다양화 되어지고 있다(이승권, 김하영, 2019).

학교폭력의 양상은 시대의 변화로 더욱 복잡해지고 그 행위와 유형은 날로 확대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 2004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관련 법률과 개정안으로 학교폭력 유형은 폭행, 협박, 따돌림으로 3가지였으나, 2008년 개정된 법률에서는 추가된 사항이 감금, 상해, 감금, 약취, 유인, 공갈, 명예훼손 또는 모욕, 강요, 성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과 폭력 정보 등에 의한 피해 행위와 유형이다. 관련 법률 개정으로 학교폭력의 구체적인 행위와 유형이 추가해 온 현상은 학교폭력의 성향과 양상이 점점 확대되어 다양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치안정책연구소, 2019).

청소년기에 직접적인 폭력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지위비행, 재산비행, 폭력비행 등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줬다. 즉, 청소년시기에 직접적으로 폭력을 경험하면 할수록 비행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줬고, 청소년이 직접적으로 폭력을 경험한 경우에 불안감이 증가한다(김미선, 곽대경, 2017).

학교폭력이 발생으로 인해 가정을 비롯한 해당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더 나아가 크게는 국가적으로 파급효과가 있어 이는 안전한 사회 구축을 지향하는 국가 정책요소의 장으로 등장하고 있다. 학교폭력의 발생요인과 예방하는 것은 안전사회 구축으로 지역사회의 안전과 긍정적인 환경 유지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따라서 잠재적인 피해자 및 가해자가 될 수 있는 학생들을 보호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인 대안이 지속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유순덕, 2018; 이대권, 엄유진, 김신혜, 2020).

학교폭력은 현대사회의 커다란 문제로 반드시 해결해야 되어야 하는 문제이며, 학교폭력은 시대의 변화로 폭력성과 잔인성에 있어 심각한 수준까지 증가하고 실정에 있다. 또한 갈수록 피해자와 가해자의 연령도 저연령화되고 있고, 학교의 문제를 넘어서 현대사회의 커다란 사회문제로 청소년들의 기본적인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이정관, 2017).

최근까지도 학교폭력의 원인에 있어서 가정의 구조적·기능적 요인은 청소년 비행 문제의 근본원인으로 다루고 있으나 가정 내 원인들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개입은 여전히 여러가지의 문제로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또한, 아직까지 학교폭력 예방과 교화를 위한 완전한 해결방안을 찾아내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학교폭력 양상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원인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고 나아가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학교폭력의 가해자들에 대한 가정 내의 구조적·기능적 요인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김영주, 2015).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 및 현황을 살펴보고 학교폭력의 가정적 요인이 가해행동에 미치는 원인과 영향에 대한 방안들을 검토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Ⅱ. 이론적 배경

### 1. 학교폭력의 개관

#### 1) 학교폭력의 개념

학교폭력은 그 대상이나 정도, 장소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는 관계로 인해 명확하게 정의하기란 쉽지 않다. 현재까지도 학교폭력의 개념에 대해 학자들 간에도 의견일치가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개념들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학교폭력에 대한 연구들은 다양한 형태의 폭력적 양상을 연구해 왔다. 폭력의 개념에는 정서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 그리고 강도, 강간과 같은 보다 심각한 범죄적 행동에 수반하는 폭력이 포함될 수 있다(장현석, 2017).

김가은(2019)은 학교폭력을 “교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의도를 지닌 신체적·물리적·심리적 공격 및 폭력행동으로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학생이 힘의 불균형 상황에서 자기보다 약한 상대나 집단의 암묵적인 규칙을 어긴 자를 폭행, 협박, 따돌린 등에 의하여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였다. 박정욱, 조흥순(2019)은 학교폭력을 “가·피해자 일방 또는 쌍방이 학생의 신분으로써 학교 및 이와 관련된 장소에서 각종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차원의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유·무상의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했다. 이상의 개념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이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정신적·신체적·재산적 피해를 동반하는 폭력행위”로 정의하고자 한다.

#### 2) 학교폭력 관련 이론

##### (1) 사회학습이론

사회학습이론은 Bandura(1973)의 학교폭력의 대상이 또래 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리고 간접적인 노출의 영향으로 또래 학교폭력의 가해에 미치는 영향으로 이해하기 위해 적용될 수 있는 이론 중의 하나이다. 이 이론을 또래 학교폭력에 적용하면 또래 폭력을 경험하는 청소년시기의 학습은 또래 폭력사건이 발생하는 현장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발생하는 과정에서의 조건적 자극 현상은 또래 폭력의 행위이고, 이에 해당하는 기대반응은 피해자인 또래로부터의 반응 현상과 폭력행위를

목격하는 다른 또래들로부터의 반응현상이다. 그리고 조작적 조건화의 이론적 가정에 의하면 또래 폭력의 가해행위에 대한 기대반응이 보상을 가져오게 되면 청소년의 또래 폭행행위는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된다(김은영, 2014).

## (2) 자기통제이론

Gottfredson & Hirschi(1990)의 자기통제이론은 “자기 통제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충동적이고, 무감각하며, 육체적인(정신적인 것과 반대로), 위험을 감수하고, 근시안적이며, 비언저적(nonverbal)인 경향이 있다” 고 보았다. 범죄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즉각적인 만족감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여겨져 자기 통제력이 낮은 개인들에게는 자극제가 될 수 있다.

Schreck(1999)은 낮은 통제력을 지닌 개인은 특정한 행동이나 그로 인한 잠재적인 결과를 예측하고 인식하는 능력이 부족하므로 자신을 더 취약하게 하고, 피해를 입힐 위험에 노출할 특정 기회로 이끌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 2.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적 요인

### 1) 가정의 구조적 요인

#### (1) 가정 내의 환경

가정에서 가족관계를 통해 인간의 기본적 인성이 형성되어지고 발달해 가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황 및 환경들은 가족 구성원인 청소년들의 성장과 행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 또는 가정불화, 학대, 방임, 가정폭력 피해경험, 경제적 빈곤 등 가정 내의 부정적인 환경은 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직·간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가정 내의 환경은 청소년의 인성발달과 가장 밀접한 환경으로써 청소년의 정서와 행동, 사회성 발달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한편 부모로부터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들은 반사회적 성향을 보이면서 정서적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특징들이 학교에서 청소년들이 또래 친구들과 관계를 설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할 수 있다. 부모와 정상적인 관계를 형성한 청소년에 비하여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들은 사회적으로 위축되어 있어 친구를 사귀는데 어려움을 겪기 쉽다(Salzinger, S., Feldman, R. S., Hammer, M., & Rosario, M., 1993) 우울이

나 자존감 결여로 인하여 위축된 행동양태를 나타내면서 정상적인 또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장현석, 2017).

이와 같이 성장기 과정에서 장기적인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 위험요소인 가정폭력 피해경험은 청소년기의 인성형성에 매우 심각한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편부모 가정 또는 경제적으로 최하위계층 가정에 속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도 사회적 배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 등과 같은 가정환경의 결손으로 인하여 사회적 현상과 경제적 현상의 변화 및 지위의 감소로 인해 결국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발전으로 할수 있다.

사회통제이론의 시각에서 본다면 가정환경에서의 부모와의 유대가 약한 청소년들이 성장과정에서 이탈행동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가족구조의 결손은 경제적 궁핍함, 심리적 지지의 부족 등과 맞물리면서 부모와 자녀간의 긍정적인 정서적 접촉을 부족하게 만들고, 적절한 감독과 훈육이 어려워져 비행을 촉발할 수 있다(신소정, 이재모, 2014).

## (2)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이중섭, 이용교(2009)은 가정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 있어 빈곤은 일반적으로 청소년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비행이나 범죄, 학업중단, 가출 등의 문제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이고, 저소득과 열악한 주거환경은 청소년의 공격성이나 학교이탈, 약물남용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가정환경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을수록 청소년 비행행위의 경험 또는 학교의 부적응 등을 초래하여 사회적 배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가계소득이 적을수록, 아버지가 단순 노무직이나 일용직에 종사할수록 해당 청소년은 낮은 적응능력, 부정적인 생활에의 노출, 낮은 학업능력, 학교 부적응과 같은 정서상의 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제시되었다(송신영, 2007). 이와 같이 사회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은 각각 개인의 생활방식과 일상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각각의 요인들이 범죄피해의 발생 요인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 2) 가정의 기능적 요인

### (1) 부모의 긍정적인 보호요인

학교폭력과 관련한 가정환경의 기능적 요인은 성장과정에 있어 청소년의 통제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모와 자녀와의 유대관계, 양육방식 및 관리·감독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이들 요인은 주로 가정환경에서 부모의 보호요인과 밀접한 관계형성으로 가정적으로 안정된 상태의 평온한 집안 분위기, 부모의 정서적 사랑 또는 지지, 적절한 보호요인은 주로 자녀의 긍정적인 측면에서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올바른 사고와 통제력이 인격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Hirsch, 2008), 이러한 환경에서 성장한 청소년들은 학교생활 등에서 비행에 노출되더라도 쉽게 비행을 저지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부모의 긍정적 보호요인인 정서적 지지와 애정, 관심 등은 학교폭력의 가해 행동을 조기에 억제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 (2) 부모의 부정적인 보호요인

부모의 보호요인은 항상 긍정적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다수의 연구들과 사례에서 부모의 방임 및 과잉보호는 오히려 청소년기의 성장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 가정의 방임으로 폭력가정 또는 청소년기에 학대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학교폭력과 같은 비행행위를 넘어 중대한 문제로 발전되어 소년범죄자가 될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부모의 보호요인은 정서적 지지와 부모의 관여도가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할 때에는 학교폭력 가해행동의 억제요인이 될 수 있지만 부모의 보호요인의 반대로 불안정한 집안 분위기, 부모의 방임, 낮은 정서적 지지와 과잉보호는 학교폭력 가해행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부정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가정 내에서 학대 및 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가해행동의 촉진요인으로 비행행위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심각한 범죄 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범죄자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Ⅲ. 학교폭력의 실태 및 가정적 요인 분석

#### 1. 학교폭력의 실태

교육부에서 실시한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 및 현황 결과 발표를 참고로 활용하였다. 이번 조사는 2019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국내 초등학교 4학년~고3 재학생 전체(약 410만명)를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90.7%인 약 372만 명이 참여하였다.

##### 1) 학교폭력 피해유형별 현황

학교폭력 피해유형별 현황은 <표 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언어폭력 2019년도 (35.6%), 2018년도(34.7%)에 비해 소폭 증가(0.9%)하였지만, 집단따돌림은 2018년도 (17.22%)보다 2019년도(23.3%)로 6%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사이버 괴롭힘은 2018년도(10.8%) 보다 2019년도 (8.9%) 감소(1.9%) 되었다.

<표 1> 학교폭력 피해유형별 현황

(단위: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증감
언어폭력	34.0	34.6	33.3	34.0	34.1	34.7	35.6	0.9
집단 따돌림	16.6	17.0	17.3	18.3	16.6	17.2	23.2	6.0
사이버 괴롭힘	9.1	9.3	9.2	9.1	9.8	10.8	8.9	-1.9
스토킹	9.2	11.1	12.7	10.9	12.3	11.8	8.7	-3.1
신체폭행	11.7	11.5	11.9	12.1	11.7	10.0	8.6	-1.4
금품갈취	10.0	8.0	7.2	6.8	6.4	6.4	6.3	-0.1
강제 심부름	6.1	4.7	4.2	4.3	4.0	3.9	4.9	1.0
성추행· 성폭행	3.3	3.8	4.2	4.5	5.1	5.2	3.9	-1.3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 2019.

학교폭력의 피해유형의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학교폭력의 물리적 유형에 대해 범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응한 결과 신체폭행<sup>1)</sup>, 금품갈취<sup>2)</sup>, 성추행·성폭행<sup>3)</sup>의 비중으로 낮아지는 성과가 있었다.

## 2) 학교폭력 가해자 유형

학교폭력 가해자는 초·중·고 모두에서 동학교 같은 반 친구(48.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동학교 동 학년 친구(30.1%), 동학교 타 학년(7.6%), 타 학교 학생(3.2%), 모름(2.3%), 기타(8.1%)순으로 주로 동학교 같은 반 친구와 동 학년 친구에 의해 또래 집단에서 발생하는 갈등으로 학교폭력이 있음으로 응답하였다.

〈표 2〉 학교폭력 가해자 유형

(단위: %)

구 분	동학교 같은반	동학교 동학년	동학교 타학년	타학교 학 생	모름	기타
전체	48.7	30.1	7.6	3.2	2.3	8.1
초	49.1	29.3	8.0	2.8	2.5	8.3
중	47.2	33.0	6.7	4.5	1.4	7.2
고	47.8	31.8	5.7	4.7	1.9	8.1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 2019.

## 3) 학교폭력 피해시간

학교폭력의 피해시간의 결과를 보면 <표 3>에서 보여 지는 것처럼 초·중·고 모두 주로 학교폭력이 쉬는 시간(34.4%)에 많았으며, 다음으로 점심시간(17.7%)과 하교이후(14.1%)순으로 피해가 일어난 시간으로 조사 되었다.

1) 신체폭행: (‘17년) 11.7% → (‘18년)10.0% → (‘19년) 8.6%

2) 금품갈취: (‘17년) 6.4% → (‘18년)6.4% → (‘19년)6.3%

3) 성추행·성폭행: (‘17년)5.1% → (‘18년)5.2% → (‘19년)3.9%

〈표 3〉 학교폭력 피해시간

(단위: %)

구분	쉬는 시간	점심 시간	하교 이후	수업 시간	하교 시간	학교밖 체험	등교 시간	방과후 수업	기타
전체	34.4	17.7	14.1	8.1	7.0	4.5	3.6	3.1	7.5
초	33.5	16.9	15.3	6.7	7.8	4.9	3.8	3.6	7.6
중	38.5	20.5	10.6	11.2	4.7	3.6	2.8	1.3	6.9
고	35.0	20.2	9.1	15.8	3.6	3.0	2.8	1.9	8.6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 2019.

## 4) 학교 밖 청소년 범죄 추이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폭력 사안에서 뿐만 아니라 소년범죄에서도 주목해야 할 대상이 되고 있다.

〈표 4〉 학교 밖 청소년 범죄 추이

(단위: 건)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소년 범죄	전체	107,018	90,694	78,794	80,321	76,356	72,752	62,259
	학교 밖	37,817	40,411	34,403	36,185	32,466	29,745	25,592
	비율(%)	35.3	44.5	43.6	45.0	42.5	40.9	41.1

출처: 치안정책연구소, 2019.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소년범(만14세~18세) 중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35.5%였는데 2015년에 45.0%로 크게 높아진 이후, 2016년에는 42.5%, 2018년에는 41.1%를 나타내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폭력 추세와 비슷하게 ‘학교 밖 청소년’이 소년범죄자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15년에 최고 수치를 나타낸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8년의 경우 전년대비 0.2%p 소폭증가한 상태이다(치안정책연구소, 2019)

## 5) 학교폭력 피해사실 신고 현황

학교폭력에 관한 인식에 관한 사항에서 주위에서 알려거나 신고(81.8%)로 학교폭

력 대처 방안의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보였다. 학교폭력이 발생하여 피해사실을 신고한 사람은 가족 보호자(42.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선생님 신고 26.9%과 친구 선배10.2% 순으로 응답 되었다.

〈표 5〉 학교폭력 피해사실을 알린 사람

(단위: %)

구 분	가족 보호자	선생님 신고함	친구 선배	다른사람 (기관)	117신고센터경 찰관	미신고
전체	주위에 알려거나 신고 (81.8)					
	42.2	26.9	10.2	0.3	2.2	18.2
초	45.8	24.2	8.8	0.2	2.1	18.9
중	33.2	34.4	13.0	0.4	2.1	16.9
고	25.3	37.4	18.5	0.7	3.5	14.6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 2019.

## 6) 학교폭력 피해 미신고 이유

학교폭력을 피해자가 여러 이유로 신고를 하지 않는 사항은 <표 6>과 같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24.7%)로 나타났으며, 이어 학교폭력의 피해를 신고하게 되면 보복성에 가까운 피해를 입을 있다는 생각으로 스스로 해결 하려고(25.5%)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더 괴롭힘을 당할 것 같아서(16.5%), 해결이 안될 것 같아서(18.4%)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6〉 피해 미신고 이유

(단위: %)

구분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더 괴롭힘을 당할 것 같아서	스스로 해결 하려고	해결이 안될 것 같아서	선생님이나 부모님의야단 /걱정때문에	어디에 알려할지 몰라서
전 체	24.7	16.5	25.5	18.4	12.1	2.8
초	24.4	17.4	25.6	16.5	13.0	3.1
중	26.4	13.5	25.1	23.3	9.7	2.0
고	23.6	13.3	24.7	30.9	6.5	1.1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 2019. 8. 26.

## 7) 학교폭력 가해 경험 현황

학교폭력의 가해 학생의 경험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에서는 먼저 괴롭혀서(32.1%)가 가장 높게 나왔다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장난으로<sup>4)</sup> 각각22.3%, 18.5%로 학교폭력의 가해 이유에서 초등학교와는 다른 결과로 조사되었다.

〈표 7〉 가해경험 현황

(단위: 명, %)

가해 응답률	구분	전 체	초	중	고
	비율	0.6	1.4	0.3	0.1
	명수	22천	17,8천	3,3천	0,9천
가해 이유	먼저 괴롭혀서	29.7	32.1	19.5	18.3
	장난으로	17.7	16.9	22.3	18.5
	오해와 갈등으로	16.1	15.7	17.7	18.1
	마음에 안들어서	13.0	11.9	17.3	20.7
	다른 친구가 하나까	8.6	8.3	10.7	8.8
	회풀이 또는 스트레스 때문에	7.8	8.2	6.2	6.9
	내 힘을 보여주려고	3.6	3.7	3.0	4.0
	관심을 받고 싶어서	0.7	0.7	0.6	1.5
	친구나 선배가 시켜서	2.7	2.7	2.6	3.1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 2019.

## 8) 학교폭력 발생시 대처 행동 현황

학교폭력 발생시 대처 행동 현황을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우선 초·중·고에서 모두 학교 폭력 발생시에 학교 선생님이나 신고함에 알리겠다(29.5%) 가장 높게 나타났다으며, 그 다음으로 117 신고 센터·경찰관에게 알리겠다(23.0%),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겠다(17.4%)순으로 응답되었다. 이는 학교폭력 발생시 대처방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피해학생들의 적극적인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4) 가해이유에서는 초등학교에서는 먼저 괴롭혀서(32.1%),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장난으로 (22.3%), (18.5%)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8〉 학교폭력 발생시 대처행동 현황

(단위: %)

구 분	전체	초	중	고
학교선생님이나 신고함에 알리겠다	29,5	29,4	30,4	28,8
117신고센터·경찰관에게 알리겠다	23,0	20,6	24,0	24,5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겠다	17,4	17,3	16,4	18,6
피해를 받은 친구를 위로하고 도와주겠다	14,7	17,2	14,3	12,4
때리거나 괴롭히는 친구를 말리겠다	9,0	10,1	8,5	8,4
친구나 선배(후배)에게 도움을 요청하겠다	6,4	5,4	6,4	7,3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 2019. 8. 26.

## 2. 학교폭력의 가정적 요인 분석

### 1) 가정의 구조적 요인 분석

#### (1) 가족의 구성 형태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가족의 결손형태가 가해행동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관계형성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결국 부모에게 미치는 가해요인은 결손 이외의 요인, 즉 사회적·경제적 지위와 가정의 기능적 요인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이창한, 강민완(2010)의 연구에 의하면 가족환경의 변화와 결손이 사회적, 경제적 지위의 감소를 초래함에 따라 부모와 자녀관계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결손여부 보다는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 따른 역할과 개입정도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밝혔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맞벌이를 하는 가정의 경우 부모가 자녀와 같이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고 따라서 자녀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이는 결손가정에서 상대적으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큰 것을 감안하면 그 영향이 부정적으로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다.

#### (2)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드물게 높은 교육열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교육비 지출에 있어 공교육비에 비해 사교육비가 엄청나게 많이 지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폭력의 가해자들을 살펴보면 결손가정에 성장한

소년범죄자들과는 달리 평범한 가정의 청소년들이거나 양부모 가정에서 자란 청소년인 경우도 있다. 이는 가족의 환경과 형태의 현상 자체가 미치는 영향이라기보다는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수준 및 관리감독과 부모의 보호요인으로 관련된 것으로 부모가 가정과 자녀를 돌보는 시간 또는 사회·경제적 활동시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2. 가정의 기능적 요인 분석

### (1) 부모의 낮은 정서적 지지와 방임

부모의 긍정적인 보호요인은 가해 학생의 지속적인 비행을 억제하는 수단이거나 이로 인한 분쟁 발생시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부모의 적절한 대응으로 학교폭력이 중단된 경우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해자의 부모들은 당사자인 가해 학생 대신 직접 사과와 변상 등을 통해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자녀의 지속적인 학교폭력 가해행위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하늘, 이숙(2012)은 부모의 긍정적인 보호요인, 즉 애정 등의 정서적 지지와 적절한 감독이 학교폭력의 예방에 긍정적인 효과방안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이와는 반대로 부모의 낮은 정서적 지지와 자녀에 대한 방임은 학교폭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관여에 있어서 성장하는 청소년에게 관리·감독의 소홀, 방임, 무관심은 학교폭력 가해요인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모의 장애 요인은 결국 자녀에 대한 사랑과 정서적 지지와 관여에 상대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부모를 대신하는 기관을 포함한 관리감독자의 역할 부재가 학교폭력을 억제하는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

### (2) 부모의 자녀에 대한 과잉보호

학교폭력 사건은 심각성 여부에 따라 형사절차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경미한 경우가 많아 대부분 학교자치위원회와 경찰의 중재로 부모 간의 화해 또는 합의로 분쟁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고, 분쟁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는 부모가 학교와 교사 그리고 사건에 지나치게 관여하거나 피해자의 부모 중 일부는 강한

피해의식으로 인하여 과도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학교폭력 사건의 대부분은 당사자인 학생들의 반성 및 진심어린 사과보다는 부모의 개입으로 인한 대리 해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처리과정에서 행여나 자녀들이 더 큰 상처를 받는 것을 우려하고 사건을 조기에 해결하기 급급한 부모들의 개입으로 인하여 문제의 근원을 파악하고 해소하기 위한 가해 당사자들의 제재절차가 생략되고 있기 때문이다(김영주, 2015).

이와 같이 부모가 자녀를 대신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 가해학생에게 반성의 기회를 박탈하고 폭력의 악순환을 초래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는 부모의 양육방식이 자녀의 인성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도모하기 때문에 과잉보호의 경우 가해행동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함으로써 긍정적인 자기통제력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게 된다.

### (3) 가정 내의 부정적인 환경

청소년들이 폭력에 노출되는 최초의 환경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 경험이다.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있거나 성장과정에서 신체적 체벌이나 언어폭력 등의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학교폭력과 같은 비행, 나아가 범죄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가정폭력은 잠재적·반복적·상습적이고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는 특성으로 인하여 묵인되어지는 경우가 많다.

한편 장현석(2017)의 연구에서 부모의 학대는 자녀들의 학교폭력 피해에 영향을 주고 학교폭력 피해는 또 다른 학교폭력 피해를 부르는 악순환이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교폭력 피해자들인 학생들이 잠재적으로 가정폭력의 피해자임을 상기시켜 준다고 볼 수 있다.

## Ⅶ. 가정적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경찰의 대응방안

학교폭력 문제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원인 요소인 가정적 요인은 사회구조상 경찰의 개입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특히, 가정환경의

결혼 가정에 대해 부모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대책 방안에는 더욱 한계가 따른다. 가정적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경찰 대응 방안으로 본 논문에서는 학교 내의 고위험군 가해학생을 비롯하여, 학교폭력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학부모 참여 도입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 1. 학교폭력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학부모 참여 도입 방안

### 1) 올바른 언어습관 형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의 전환

근본적으로 학교폭력예방 교육은 언어폭력에 대한 범죄 인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중요한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부터 올바른 교육으로 언어습관 형성 및 고학년으로 진학할수록 의사소통과 갈등해결을 위한 기술능력 향상을 강화해야 한다.

### 2) 직장 내 학교폭력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도입 추진

부모의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 자녀관계 등과 같은 자녀의 양육방식과 학교에 개입방법 및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개선의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학교폭력예방 교육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중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은 참여의사가 있는 부모의 신청이 있거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부모의 보호요인과 관리감독 역할 강화 및 인성교육 등의 부재를 해소를 위해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맞벌이 부부를 위한 직장 내 학교폭력예방 교육프로그램을 기관 및 기업체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법률 규정으로 의무화하여 경찰은 학교폭력에 대한 원인 이해와 대처 능력의 향상을 기대하고 나아가 청소년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자녀상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즉, 기관 및 기업체 등과의 연계를 통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및 윤리교육 등과 같은 교육프로그램과 더불어 학교폭력 예방교육도 병행하여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김영주, 2015).

### 3) 가해학생의 특별교육 프로그램에 학부모 참여 의무화 추진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은 부모의 방임 및 인성교육 미흡 등 가정교육의 부재로 인

한 부정적인 영향은 선행연구 등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가정적 요인해소를 위한 부모 요인 중 가장 큰 요인이다. 특히, 상습적인 가해학생의 경우 부모의 과잉개입으로 인하여 가해 학생의 진심어린 반성과 개선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학교폭력의 처리절차에서도 부모들 간의 사건 해결과 화해로 인하여 정작 가해 당사자인 학생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의 기회를 박탈하여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사안의 해결을 부모가 대신 처리함에 따라 당사자의 진정한 반성의 기회가 적어져 재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모가 대신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가해학생에게 스스로 반성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가해자를 대상으로 특수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부모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2. 경찰의 고위험군 학생의 사후관리 및 사건 처리절차의 공정성 강화

### 1) 경찰의 고위험군 학생의 사후관리 강화

고위험군 학생들이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관련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차원에서 학교전담경찰관이 가해학생을 접촉하여 상담을 하는 경우 학생의 고민을 들어주는 정도의 면담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전문적인 상담기법이나 방법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예방교육 및 상담에 집중하고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습득하기 위한 전문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특히, <표 4>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학교 밖 청소년의 폭력이 더욱 심각한 범죄로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교전담경찰관을 중심으로 선도 및 재범 방지 프로그램의 내실화로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치안정책연구소, 2019).

### 2) 학교폭력 사건의 불분명한 사안에 대한 경찰의 중립성 확보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분쟁조정 및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학교전담경찰관이 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학교폭력 사건들은 가해 학생들이 학생부기록에 대한

부담감으로 피해자의 요구에 따르는 부당한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자치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부모들이 선제적으로 분쟁조정에 개입하여 조기에 마무리 짓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특히,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학교전담경찰관은 사실관계 파악에 있어서 학교의 사건은폐, 축소, 부적절한 합의 및 조정의 유혹 등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한 판단을 할수 있는 조력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3)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및 내실화

2012년 6월 도입된 학교전담경찰관제도는 현재까지 경찰과 학교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면서 많은 경험을 토대로 경찰이 추진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발생원인의 근절 대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특히, 2015년부터는 청소년·교육·심리·상담·아동복지학과 전공자를 학교전담경찰관으로 경력 채용하는 등 전문성을 높여 나가고 있으며, 2017년 현재 201명이 일선 경찰서에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다(경찰청, 2018).

2019년 현재 서울경찰청 135명, 경기남부경찰청 166명, 부산경찰청 65명 등 총 1,138명이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학교전담경찰관들의 주요 역할은 예방활동을 비롯하여 폭력서클 파악 및 해체, 117신고 처리 등, 자치위원회 참석, 사후관리, 위기청소년 등이다. 여기서 사후관리 차원에서는 피해자 대상 추가피해 방지 및 사안별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가해자 대상 선도프로그램·선도심사위원회 연계하여 사후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하여 제31조2(학교전담경찰관의 운영)<sup>5)</sup>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 예방

#### 5) 제31조의2(학교전담경찰관의 운영)

① 경찰청장은 법 제20조의6 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이하 "학교전담경찰관"이라 한다)을 둘 경우에는 학생 상담 관련 학위나 자격증 소지 여부, 학생지도 경력 등 학교폭력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고려해야 한다.

② 학교전담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폭력 예방활동
2.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3. 학교폭력 단체에 대한 정보 수집
4.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
5. 그 밖에 경찰청장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활동을 비롯하여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학교폭력 단체에 대한 정보수집, 학교폭력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와 함께 그 밖에 경찰청장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맡도록 명문화되었다(장응혁, 최대현, 2019).

한편 학교전담 경찰관들이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을 대할 때 부모로부터의 학대 가능성을 열어두고 접근하되 뚜렷한 징후가 있으면 부모님과의 관계를 좀 더 적극적으로 조사할 필요성이 대두된다(장현석, 2017). 이러한 가운데 학교전담경찰관의 문제점으로 담당업무의 불명확화, 실질적 선발·교육 및 예산·인력부족,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 컨트롤타워 부재, 학교폭력 가해자 처리 시 경찰의 이원적 구조 등이 지적되고 있다(김봉수, 추봉조, 2017).

## V. 결론

교육부 및 경찰청의 학교폭력 피해 실태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학교폭력 양상이 예전과는 달리 교묘하고 비 노출적인 형태로 지속되거나 성적 수치심, 괴롭힘, 강요행위 등의 행태가 날로 진화하는 특성과 더불어 나아가 성인범죄로 발전 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다양한 원인파악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한편, 가정의 기능은 청소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의 장소로 청소년기의 이성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앞서 학교폭력의 실태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중학교 1학년에서 학교폭력이 높게 집중되는 발생빈도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변화하는 새로운 환경에서 또래 및 서열화의 형성과 사춘기로 시작되는 과도기적 시점에서 학교 내 관리감독자 부재 및 고학년으로 진입할수록 많은 시간을 가정 밖에서 보내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경우 부모의 관리감독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점 등이 학교폭력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표 3>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학교폭력의 피해시간은 주로 쉬는 시간을 비롯하여 점심시간, 하교

③ 학교전담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과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한다.[본조신설 2018. 12. 31.]

이후 등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는 물론 부모, 지역사회 등이 협력적인 네트워크로 구성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학교폭력의 발생의 가해자를 중심으로 하는 요인들은 주로 가정적인 환경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고 가해자에 대한 원인관계가 분명하더라도 정부차원에서 가정 문제에 정책적 개입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한계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가정환경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부모에게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가정에서의 바른 언어습관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 참여 의무화, 맞벌이 부부에 대한 직장 내 학교폭력예방 교육 프로그램 도입, 경찰의 체험 형 교육으로의 개선과 학교폭력의 문제의 처리에 있어 절차상 공정성이 강화하는 방안 마련 등의 대책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교육적 대안과 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한편 앞서 지적한 학교전담경찰관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학교전담경찰관의 근무 연수 강화 및 시험제도의 개선을 비롯하여 인력증원, 학교전담경찰 업무의 행동지침 매뉴얼 제정, 학교폭력 가해자 처리시 경찰에게 수사종결권 부여<sup>6)</sup> 등이 필요하다. 또한 일반 경찰관 출신인 학교전담경찰관의 경우 비행 등 범죄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것에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만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장응혁, 최대현, 2019).

경찰은 범죄와 범죄피해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고위험 위기청소년 관련 정보를 유기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하며, 특히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 등으로 인하여 경찰의 대응으로는 일정부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학교폭력을 예방을 위해서는 관련 부처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 차원에서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지역시민단체, 청소년육성회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며, 서로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폭력 문화 개선 활동이 전개 되어야 한다.

6) 현재 「경찰청 소년업무규칙」 제26조 이하에는 경찰은 소년범죄 수사에 대한 종결권이 없고, 다만 「경찰청 소년업무규칙」에 근거하여 경미한 사건 중 초범인 경우에 한하여 선도심사와 상담교육 이수를 진행하고 있다.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

- 경찰청 (2018). 경찰백서.
- 교육부 (2019).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8.26).
- 기광도 (2010). 사회계층과 범죄피해자간 관계분석: 자연리아동을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18(2), pp.357-374.
- 김가은 (2019). 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피해 중첩성에 대한 경로분석.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미선, 곽대경 (2017). 일반긴장이론에 근거한 청소년 시기의 폭력피해 경험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불안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2(2).
- 김봉수, 추봉조 (2017).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경찰제도의 개선방안-대구·경북지역 학교폭력 예방업무 경찰의 델파이 면담조사를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69.
- 김영주 (2015).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가정적 요인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연구보고서, pp.1-54.
- 김은영 (2014). 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학교폭력피해 및 가정폭력 목격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논집, 11(1), pp.3-4.
- 김주한 (2018). 학교경찰관 인식에 따른 학교폭력예방 및 선도 방안에 관한 연구: 학교경찰관 인식 진단을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논집, 15(2).
- 박정욱, 조홍순 (2019).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0).
- 송신영 (2007).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 및 양육행동, 아동의 친구관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소정, 이재모 (2014). 학교폭력의 원인에 대한 대응방향. 소년보호연구, 24.
- 심희옥 (2008). 부모 양육행동과 또래 괴롭힘에 관한 횡단 및 단기종단연구: 성별을 중심으로. 한국아동학회 세미나자료집.
- 유순덕 (2018).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방안 수립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17(3).
- 이대권, 엄유진, 김신혜 (2020).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가 범죄불안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재학중인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 제10호.

- 이중섭, 이용교 (2009).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6(7), pp.16-20.
- 이창한, 강민완 (2010). 결혼가정의 기능적 특성과 적응유연성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찰학회보, 12(1), pp.175-200.
- 이하늘, 이숙 (2012).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적 지지와 정서조절능력 및 자기효능감의 경로분석. 대한가정학회지, 50(2), pp.65-74.
- 이승권, 김하영 (2019). 중학생의 교우관계 및 대인관계가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 과학회지, 28(4).
- 이정관 (2017).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부모의 역할과 가정교육의 필요성 연구. 신학과실천, 54.
- 장응혁, 최대현 (2019). 학교폭력 대응에 있어서 경찰개입 개선방안. 경찰학논총, 14(1).
- 장현석 (2017). 부모의 학대가 청소년 학교폭력(왕따) 피해에 미치는 영향-종단자료를 이용한 피해·가해 중첩 맥락의 이해. 한국범죄심리연구, 13(1), pp.232-247.
- 치안정책연구소 (2020). 치안전망 2020.
- 치안정책연구소 (2019). 치안전망 2019.

## 2. 외국문헌

- Bandura, A. (1973). Aggression: A Social learning analysi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Hirschi, T., & Gottfredson, M. R. (2008). Critiquing the critics: The authors respond. Out of Control: Assessing the general theory of crime, 217-231.
- Salzinger, S., Feldman, R. S., Hammer, M., & Rosario, M. (1993). The effects of physical abuse on children's social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Vol.64 No.1. 169-187.
- Schreck, C. J. (1999). Criminal victimization and low self-control: An extension and test of a general theory of crime. Justice Quarterly, 16(3): pp.633-654.

**【Abstract】**

**A Study on the Influence of Domestic Factors  
on the Violent Behavior of School Violence  
– Based on the police's countermeasures –**

Kim, Sang Su<sup>\*</sup>

In this study,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school violence every year was reviewed, and the effects of domestic factors on school violence's behavior were identified, and preventive measures were presented around the police's countermeasures.

Problems that arise in parents as one way to address household environment factors require measures such as improving education programs for proper language habits at home, making it mandatory for parents and children to participate in education programs, introducing in-house school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programs for dual-income couples, improving police experience-type education and strengthening procedural fairness in dealing with school violence issues.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redefine educational alternatives and the role of police.

In particular, measures to improve the school police officer system, which plays a pivotal role in school violence, include strengthening the number of years of service for school police officers and improving the test system, increasing manpower, enacting a manual for action guidelines for school police affairs, and granting police the right to end investigations when dealing with perpetrators of school violence. In addition, for school police officers, who used to be ordinary police officers, they have expertise in handling crimes such as

---

<sup>\*</sup> Osan University 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Professor(The 1<sup>st</sup> Author)

flying, but the situation in which they cannot stably perform their work due to frequent personnel changes should be urgently improved.

**Key Words:** school violence, youth violence, factors affecting school violence, state of school violence,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 부 록

-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 투고·심사 및 발행규정 ..... 169
- 논문집필요령 ..... 175
-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190
-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연구윤리 규정 ..... 195
-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표절 규정 ..... 211
- 논문투고 일정 ..... 212



##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 투고·심사 및 발행규정

2014. 12. 22 제정

### 제1조 【목적 및 주관】

- ① 이 규정은 본 학회의 학회지인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영문으로 Korean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journal 이하 ‘학회지’)의 발간에 있어서 원고의 투고, 심사, 편집과 발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② 본 학회지에 게재한 논문의 심사 및 편집,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주관한다.

### 제2조 【원고모집】

- ①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이하 ‘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명칭은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영문으로 Korean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journal 이하 ‘학회지’)라 하고 원고모집은 발간일로부터 2개월 전에 공고하여 실시한다.
- ② 원고모집과 집필요령 등은 학회홈페이지나 학회지 등의 적정한 방식을 통해 회원들이 공지할 수 있는 상태에 두어 예측가능성을 확보한다.

### 제3조 【게재논문의 성격 및 범위】

- ① 본 학회지에 게재할 수 있는 논문은 회칙상의 연구범위로 규정된 “1. 안보, 안전, 치안, 범죄, 경호, 경비, 소방, 보안, 테러 분야의 논문을 원칙으로 한다. 단, 안보, 안전, 치안, 범죄, 경호, 경비, 소방, 보안, 테러분야와 밀접히 관련되는 분야이면서 영역에 속하지 않을 시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게재할 수 있다.
- ② 본 학회지에 게재할 수 있는 논문은 독창성을 갖는 것으로서 공식적으로 발행되는 타 논문집에 게재되지 않은 논문이어야 한다.
- ③ 학술세미나, 학술발표회, 각종 포럼, 인터넷 등에서 발표되었던 논문은 게재출처를 밝히고,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게재할 수 있다.

#### 제4조 【자격 및 접수】

- ① 본 학회지에 투고하고자 하는 자는 본 학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복수의 투고자 일 경우 투고자 모두 본 학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 ② 논문 투고 시 단독저자 1편, 공동저자 1편으로 총 2편으로 편수가 제한되며, 투고된 논문은 학회에 소속되며 연구자에게 반환되지 않는다.
- ③ 접수 마감일은 매회 동일하며 논문 투고 후 심사료를 납부한 날로 한다. 접수 마감일을 넘겨 투고한 논문은 다음호로 연기된다.
- ④ 온라인으로 논문 원본 파일을 논문게재신청서 및 저작권이양동의서와 함께 제출하면 접수대장에 기재하여 접수한다. 투고자의 소속이 외국 소재일 경우 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원고는 본 학회 “논문집필요령”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은 원고는 투고자에게 수정·보완을 위해 투고자에게 반려한다(단, 이 경우 반환된 논문이 다시 제출된 날을 논문 접수일로 한다).
- ⑥ 긴급논문투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는 심사과정을 거친다.

#### 제5조 【학회지 발행일】

- ① 학회지의 발행은 연2회 6월 30일, 12월 31일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특별호를 별도로 발간할 수 있다.

#### 제6조 【게재예정증명서】

논문게재예정증명서는 투고논문이 심사를 거쳐 게재가 확정된 후에 제출자의 요청에 한하여 발행한다.

#### 제7조 【인쇄와 발송】

위원장은 편집방향에 따라 절차가 완료되면 이를 즉시 회장에게 보고하고 인쇄 및 발송 절차를 밟는다.

#### 제8조 【저작권】

제출된 논문이 최종심사에 통과하여 학회지에 게재되면 학회가 그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갖는데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9조 【기 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관례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4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별첨 1]

## 한국국가안보 · 국민안전학회 논문심사 결과보고서

1. 논문제목:
2. 게재예정지: 한국국가안보 · 국민안전 제00호(2000년 0월 00일 발행예정)
3. 세부심사결과(해당란에 O표하고 점수란에 점수 기재)

평가기준	등급기준	매우 미흡	다소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점수
	점수	0 ~ 4	5 ~ 8	9 ~ 12	13~16	17~20	
① 연구목적의 적절성과 명료성							
② 연구 방법의 적절성							
③ 내용 전개의 논리성							
④ 연구 내용의 독창성							
⑤ 학문적 기여도와 유용성							
총점 [        /100 ] 점							

※ 각 평가기준별 ‘다소 미흡’ 이하가 2개 이상인 경우 게재불가

## 4. 종합판정(총점을 근거하여 판정)

구분 (점수)	게재 확정 (91-100)	수정후 게재 (81-90)	수정후 재심사 (71-80)	게재불가 (0 ~ 70)
해당란에 O표시				

## 5. 심사위원 인적 사항

- 소속/직위:
- 성명:
- 계좌번호: (        )은행 0000-000-00000 / 예금주 ○○○

한국국가안보 · 국민안전학회 편집위원회위원장 귀하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논문심사소견 및 수정의견

논문제목								
심사결과	게재 확정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사		게재 불가	
심사소견 및 수정의견								

## [별첨 2]

## 학회지 발간 절차 및 처리기간

(※ 총 처리 누적기간: 70일 이내)

절 차	처리기간	누적처리기간
원고심사배정		접수마감 후 7일 이내
↓		
심 사 의뢰	송부기간 5일	접수마감 후 14일 이내
↓		
심 사	심사기간 2주일	
↓		
심사결과접수	회송기간 5일	접수마감 후 30일 이내
↓		
게재여부결정	3일	접수마감 후 33일 이내
↓		
1차수정지시	7일	접수마감 후 40일 이내
↓		
수정원고접수	7일	접수마감 후 55일 이내
↓		
2차수정지시	3일	접수마감 후 60일 이내
↓		
수정원고접수	3일	접수마감 후 67일 이내

※ 2차 수정지시가 없는 경우 바로 발간절차 진행

## 논문집필요령

### I. 논문형식

#### 1. 논문의 틀

- 1) 원고는 제목, 저자, 목차(장만 표기), 국문요약(주제어 포함), 본문, 참고문헌, 영문요약(키워드 포함)의 순으로 구성한다.
- 2) 원고의 표지에는 논문제목(국문·영문), 저자이름(국문·영문), 저자의 소속 기관 및 직위, 주소, 연락처, E-mail 주소 등을 명기하여 첨부한다.
- 3) 원고 작성은 한글프로그램(1997버전 이후)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논문의 편집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 (1) 원고의 작성은 A4 용지를 사용하며, 폭: 184mm, 길이: 265mm, 용지방향: 좁게, 제책: 한쪽(1)으로 한다.
  - (2) 여백의 크기는 위: 35.0mm, 아래: 20.0mm, 왼쪽: 33.5mm, 오른쪽: 33.5mm, 머리말: 15.0mm, 꼬리말: 13.0mm, 제본: 0.0mm로 한다.
- 4) 국문 원고의 분량은 A4 용지 20매로 하며, 영문 원고는 국문 원고에 준한다. 20매를 원칙으로 하되, 25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5) 원고의 편집과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아래 논문의 요소별 편집에 따른다.

#### 2. 논문의 요소별 편집

- 1) 논문의 제목
  - (1) 글자체는 진한 고딕체(15.0pt)로 지면 가운데 작성한다.
  - (2) 논문제목의 부제를 달 경우에는 앞의 글자에 콜론을 붙여서 쓰되, 뒷글자와는 한 칸을 띄우고 사용한다.
- 2) 저자명과 소속
  - (1) 저자명은 제목 아래 고딕체(11.0pt)로 기술하며 지면의 오른쪽에 위치시킨다. 저자가 복수인 경우 이름간에 ‘·’ 표시를 하여 구분한다.

- (2) 저자명 뒤에는 ‘\*’ 표시를 하여 동일한 지면 하단에 저자의 소속의 각주 형태(신명조체, 9.0pt)로 제시한다. 저자가 복수인 경우 저자의 순서대로 ‘\*’ 표시(두 번째 저자명 뒤 ‘\*\*’ 표시, 세 번째 저자명 뒤 ‘\*\*\*’ 표시)를 한다.
  - (3) 저자가 복수인 경우 연구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한 제1저자를 가장 먼저 제시하며 그 역할의 중요도에 따라 차례대로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의 순).
- 3) 요약 및 주제어
- (1) 저자명에서 한 줄 간격을 두고 ‘국문초록’이라는 제목을 가운데 신명조체(13.0pt)로 작성하여 괄호([ ]) 안에 위치시킨다.
  - (2) 요약의 내용은 논문의 내용을 압축하여 신명조체(10.0pt)로 150단어(600자) 안팎의 길이로 작성한다.
  - (3) 국문초록의 첫머리에는 들여쓰기를 한다.
  - (4) 주제어는 고딕체(10.0pt)로 요약내용과 한 줄 간격을 띄워 작성한다.
  - (5) 국·영문 요약 주제어(Key Words)는 각각 5개 이상 작성한다.
- 4) 목차
- (1) 목차는 저자명 아래 위치시키며, 도표를 작성하여 기술한다.
  - (2) ‘목 차’라는 제목을 가운데 고딕체(11.0pt)로 작성한다.
  - (3) 목차의 내용은 로마 목차만을 신명조체(10.0pt)로 기술하며 들여쓰기를 한다.
- 5) 본문
- (1) 목차의 계층을 나타내는 기호체계는 I(고딕체, 14.0pt), 1(고딕체, 12.0pt), 1)(고딕체, 11.0pt), (1)(고딕체, 11.0pt), ①(고딕체, 11.0pt), 가)(고딕체, 11.0pt)의 순서를 따른다.
  - (2) 본문의 내용은 신명조체(10.0pt)로 작성하며 초록의 주요어로부터 페이지를 넘겨 기술하고 들여쓰기를 한다.
- 6) 참고문헌
- 참고문헌을 제시할 때는 ‘참 고 문 헌’이라는 제목을 문단 가운데 고딕체(14.0pt)로 제시하고 참고문헌 내용을 기술한다.
- 7) 영문 요약과 주제어
- (1) 참고문헌을 제시한 뒤에는 영문으로 ‘ABSTRACT’이라는 제목을 문단 가운데 신명조체(13.0pt)로 제시하고 영문 제목(휴먼명조체, 13pt, 진하

제), 저자명(고딕체, 10.0pt), 영문 요약 내용(신명조체, 10.0pt), 주제어(고딕체, 10.0pt)의 순으로 기술한다.

(2) 작성 요령은 국문 초록의 작성 요령과 같다.

8) 원고의 본문주, 참고문헌 등은 아래의 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9) 논문의 요소별 편집과 관련된 자세한 양식은 홈페이지에 게재된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 논문 양식’을 참고한다.

## II. 본문에서의 참고 및 인용

### 1. 일반 문헌의 경우

1) 단독 저자의 연구가 하나만 인용되었을 경우

- 국내 문헌의 경우 성명과 출판연도를 본문 내에 기입한다.

예) 홍길동(2014)은 국가안보란...

- 외국 이름의 경우 동양 저자의 경우에는 우리말식 음독을 쓰고 괄호 안에 원어를 표기하고, 서양 저자는 영어로 성만 표기하고 동양 저자의 이름이라도 영문으로 표기된 연구를 인용했을 때는 저자의 성만 표기한다.

예) 모리아마 타다시(寺山 正, 2012)은...

Moriyama(1999)는...

(1) 인용문헌을 괄호 안에 표기하기

- 저자의 이름이 본문 중에 나오지 않을 경우 문장 끝에 성명과 출판연도를 제시한다.

예) ...라고 주장하였다(홍길동, 2013).

...이기 때문이다(Samuel, 2013).

(2) 문헌의 부분 인용

- 저자명을 본문 중에 언급하지 않고 저자의 특정 자료 중 일부를 인용할 때 인용한 특정 자료와 출판 연도를 구분하기 위해 출판연도 뒤에 자료를 제시한다.

예) ...을 밝혀냈다(홍길동, 김길동, 2010: 표 1 참조).

...을 밝혀냈다(Adams, Smith, & Harrison, 1999: 표 1 참조).

- (3) 본문 중에 저자명과 출판연도가 모두 쓰였을 경우  
예) 1970년 Bruden은...
- (4) 한 단락에서 같은 연구가 반복된 인용된 경우 혼동을 일으키지 않는 한 같은 참고 문헌의 출판년도는 반복해서 표기할 필요가 없다.  
예) Sigmund(2009)은 ...라고 주장했다. 또한 Sigmund은 ...라고 하였다.
- 2) 여러 저자들이 수행한 연구를 인용하였을 경우
- (1) 저자 두 명이 함께 수행한 연구
- 두 저자명을 ‘와(과)’로 연결하여 두 저자명을 모두 제시
  - 본문 중에 저자명이 언급되지 않고 문장 끝 괄호 안으로 처리했을 때 한국문헌과 동양문헌의 저자명은 쉼표로 구분하고, 서양문헌의 경우 ‘&’를 사용한다.
- 예) 홍길동과 김길동(2011)는...  
Steven와 Trueman(1998)는...  
...라고 주장하였다(홍길동, 김길동, 2011; Steven & Trueman, 1995).
- (2) 셋 이상 여섯 명 미만의 저자가 수행한 연구
- 처음 인용할 때는 모든 연구자의 성명을 표시하되, 각 이름은 쉼표로 구분하고 서양문헌의 경우에는 마지막에 열거되는 저자명 앞에 ‘&’를 삽입한다.
  - 두 번째 인용부터는 첫 번째 저자명만 적고 공동 저자명은 생략하고 “등” 혹은 “외”로 표시한다.
- 예) [첫 인용]  
...을 분석한 연구에서는(김길동, 홍길동, 이길동, 2005)..  
Stevens, Green, Taylor와 Guanberg(2010) 등은...
- 예) [같은 연구일 경우, 두 번째 인용]  
김길동 등(2008)의 연구 결과...  
Stevens 등(2010)은...
- (3) 여섯 명 이상의 공동 저자의 문헌을 인용
- 처음 인용 때부터 첫 저자명만 쓰고 첫 저자명 다음에 “등” 혹은 “외”라고 표기한다.
  - 다만 6인 이상의 연구에 첫 번째 저자명이 동일한 다른 문헌이 인용되

어 서로 다른 문헌임을 구분해야 할 경우 두 문헌을 구별하는데 필요한 만큼까지 뒤에 따르는 저자명을 표기한 다음 “등” 혹은 “외”라고 표기한다.

예) 김길동, 홍길동 등(2008)의 주장처럼...

예) 최근의 연구(김길동, 홍길동 외, 2012)에서...

예) Kants 등(2009)의 연구에 의하면...

예) 최근의 연구(Kants et al., 2009)에 의하면...

3) 동명 저자에 의한 복수 연구물의 경우

- 동명 저자(들)의 서로 다른 연구가 본문에 포함될 경우 저자명 뒤 표기된 출판연도로 별개 연구임을 구별한다.

- 서양 문헌의 경우 혼동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저자의 성 앞에 머리글자를 기입할 수 있다.

예) 김길동(1998)과 홍길동 외(2000)의 연구에서...

예) 김길동 등(2000)과 홍길동 등(2002)의 연구에서...

예) C. S. Louis(2011)와 G. A. Center(2009)의 연구에서...

4) 저자가 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 기관명을 저자명으로 취급하고 완전한 기관명을 밝힌다.

- 기관이나 단체명을 축약어로 표기해도 누구나 알 수 있을 때에는 두 번째 인용부터 축약어로 표기해도 된다.

예) [본문에서 인용할 때]

최근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에 의하면...

외국의 연구(American Society for National Security, 2012)에 의하면...

예) [두번째 인용부터 축약어를 사용할 때]

형정원의(2010)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외국 연구(TIIC, 2014)에 의하면...

5) 저자가 없거나 익명인 경우

- 연구자가 없는 연구를 인용할 경우 저자명 대신 연구를 지칭할 수 있는 두세 단어(보통은 제목의 시작부분)를 저자명으로 취급한다.

예) “한국 국가안보의 태동”(익명, 1980)에서...

“Private Security”(anonymous, 1990)에서는...

예) ...라고 해석하였다(“한국 국가안보의 태동”(익명), 1980).

...라는 주장(“*National Security*”(anonymous), 1990)에서는...

- 판례나 법령과 같은 법률 자료도 저자가 없는 인용과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법령의 이름이나, 판례의 표기방식에 따라 표기하고 연도를 기록한다.

예) 국가안전보장회의법(법률 제12224호, 2014.01.10)에서...

#### 6) 개인 서신

- 편지나 메모, 전화, 전자우편이나 전자매체를 통한 대화가 인용의 출처일 경우를 말한다.
- 개인적 서신은 재사용될 수 있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문헌 목록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전자매체(electronic media)로부터 얻은 정보와 같이 재생 가능한 정보의 출처는 참고문헌 목록에 제시한다.

예) (홍길동 2012, 9, 13, 개인 서신)

(Taylor, 2007, 4, 22, personal communication)

## 2. 재인용, 번역서, 및 부분인용

### 1) 재인용

- 다른 연구의 인용 방법과 같으나, 본문에 인용할 때는 원전(저자명과 출판년도)과 재인용한 자료의 출처를 제시한다.
- 저자명이 본문에 제시될 경우 원전의 출판연도 뒤에 콜론을 한 후 재인용한 자료의 출처를 제시한다.

예) 홍길동(2008: 김길동, 2005에서 재인용)은...

...을 제시하였다(Steven, 2008: 김길동, 2007: 174에서 재인용).

...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Louis, 1977: Kants, 1976에서 재인용).

### 2) 번역서

- 원전의 저자명을 적고 십표를 한 후 원전의 출판연도와 번역서의 출판연도를 빗금(/)으로 구분하여 나란히 제시한다.

예) 국가안보 인식개선방법에 대하여 Kalman(1988/2011)은...

...라고 하였다(Kalman, 1988/2011).

### 3) 문헌의 특정 부분을 직접 인용한 경우

- 다른 문헌의 특정 부분을 그대로 삽입할 때는 인용 출처의 쪽수 혹은 장

(章)을 표시한다.

- 장(章)은 ‘장’(혹은 ‘chap.’)로 표기하고, 쪽수는 연도 다음 콜론(:) 표시를 하고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 학술지 권수는 축약어 Vol.로 표기하고 권수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다만, 원전 제목 속에 로마 숫자로 사용된 경우 그대로 사용한다.

예) (홍길동, 2012: 2장)

(김길동, 2009: 15)

(한국국가안보 · 국민안전학회지 Vol. 4: 44-52)

(Kai, 2012: chap. 4)

(Lion & Rush, 1996: 234)

### 3. 한 괄호 안에 두 편 이상의 연구를 인용했을 경우의 표기 순서

#### 1) 동일 저자의 연구

- 출판연도 순으로 오래된 것부터 배열한다. 이 때 저자명은 한번만 기입하고 출판연도만 기입하면 된다.
- 출판연도까지 동일한 경우 제목의 가나다라 순서로(영문의 경우 알파벳 순서) 출판연도 뒤에 소문자 a, b, c를 붙여 구분한다.

예) 선행 연구들(홍길동, 2005, 2011)에서…

선행 연구들(Paker & Rowl, 1998, 2001)에서…

최근 연구(홍길동, 2008a, 2008b)에서는…

#### 2) 동일인이 아닌 경우

- 저자명의 가나다라 순(영문은 알파벳 순)으로 쓰고 연구와 연구 사이에 세미콜론을 찍어 구분한다.
- 다른 연구에도 포함되어 있으나 한 연구에서 주로 인용을 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나타내고자 할 때 맨 앞에 주된 문헌을 인용하고 “또한”이란 용어로 부수적인 문헌을 가나다(영문은 알파벳) 순으로 배열한다.

예) 여러 연구(홍길동, 2011; 김길동, 2012)에서는…

여러 연구자(Rawl, 2011; Steven, 2008; Troy, 2010)들은…

…라고 주장하였다(Hans, 2005; 또한 Harryson, 2008; John, 2010)

3) 국내와 동서양 문헌이 모두 포함된 경우

- 국내문헌, 동양문헌(국가명의 알파벳 순), 서양문헌의 저자순으로 나열한다.

### III. 참고문헌

#### 1. 참고 문헌 제시 순서

- 참고문헌의 제시 순서는 표기 언어를 기준으로 한국어 출판물을 먼저 제시하고 외국 출판물을 제시한다.
- 외국 출판물은 동양 문헌(알파벳 순) 다음 서양 문헌 순서로 제시한다.

#### 2. 참고 문헌 표기

- 참고문헌 목록에는 제일 먼저 저자명을 적고 한 칸 띄우고, 괄호 안에 출판연도를 쓴 후 마침표를 한다. 저서의 경우는 한 칸 띄운 다음 책이름(고딕체, 영문은 이탤릭체)을 적고 마침표를 하고서 출판 장소와 출판사를 콜론으로 구분하여 적는다.
- 학술지 논문의 경우 저자명과 출판연도, 연구제목, 학술지명, 게재권(호), 쪽수를 적는다. 학술지명과 게재권(호)는 중고딕체(영문은 이탤릭체)로 적는다.
- 참고문헌이 두 줄 이상이 되는 경우, 두 번째 줄부터는 네 칸 들여쓰기를 한다.  
예) 홍길동 (2014). 국가안보론. 서울: 진영사.

Paul, M. D., & Kal, C. A. (1999). *Introduction to National security*, New York : West Publishing.

김길동 (2010). 안전관리사 역할에 대한 인식조사. 한국국가안보 · 국민안전학회지.

Michael, D. R., & Jinhong, Z. (1999). The determinanats of job satisfaction among united states air force security police. *Review of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19(3), 5-18.

#### 1) 저자명

##### (1) 일반적인 표기 순서

- 국내문헌은 완전한 성명으로 성과 이름을 띄어 쓰지 않는다(외자 이름

도 동일). 외국문헌의 경우, 동양문헌은 원어 그대로 표기하며 서양문헌은 연구자의 성을 적고 십표를 한 다음 첫 글자만 대문자로 적고 생략 표시의 마침표를 찍는다.

- 국내문헌은 가나다 순서대로 제시하고, 같은 자음일 경우, 모음 순서를 비교하고 모음도 같은 경우 받침의 자음 순(국어사전 항목 순)으로 제시한다. 글자가 먼저 끝나는 경우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취급하여 글자가 계속되는 것보다 앞에 둔다.
- 영어문헌의 경우 첫 저자 성의 알파벳 순서대로 제시하고 저자명에 포함된 글자 하나의 알파벳 순서를 비교하여 순서를 매긴다.

(2) 맨 앞에 제시되는 저자명이 같은 경우

- 동일한 저자명의 연구는 단독 연구이건 공동 연구이건 출판연도순으로 출판연도가 빠른 것을 앞에 배열한다.
- 맨 앞 저자의 단독 연구와 공동 연구가 모두 참고 문헌 목록에 포함될 경우, 단독 연구자 성명이 짧기 때문에 공동 연구보다 앞에 배열된다.

(3) 출판 연도까지 동일한 저자의 연구

- 제목의 가나다(영어의 알파벳) 순으로 배열한다. 단 A나 The와 같은 관사는 제외시키고 제목의 알파벳을 비교한다.
- 소문자 a, b, c 등을 표기하고 순서대로 제시한다.

예) 홍길동 (2009a), 국가안보...

홍길동 (2009b), 국민안전...

예) Steve, G. T. (1988a). Origins...

Steve, G. T. (1988b). Risk...

(4) 단체나 기관명의 연구

- 연구 단체나 기관명의 가나다(영문은 알파벳) 순으로 배열하되 기관이나 단체의 완전한 이름을 쓴다.

예)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2014, 편).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 60년사. 서울: 백산출판사.

(5) 익명의 연구나 저자가 없는 경우

- 본문에서 인용한 연구 제목의 두세 단어를 저자명과 같이 취급하여 그에 해당하는 가나다(영문은 알파벳) 순으로 제시하고 괄호 안에 익

명(영문 Anonymous)이라고 표기한 후 심표를 찍고 출판연도를 적는다.

- 저자가 없는 경우도 연구의 제목을 저자명으로 취급하여 그에 해당하는 가나다(영문은 알파벳) 순으로 제시한다.

예) 국가안보의 태동은 (익명, 1955). 안보의 태동. 서울: 백산출판사.

예) National Security (Anonymous, 1955), *Introduction to security*, Boston: Butterworth.

## 2) 출판연도

- 저자명 바로 다음에 한 칸 띄우고 괄호를 쳐서 써넣고 괄호 뒤에는 마침표를 찍는다.

(1) 미출판 된 연구가 인쇄 중일 경우는 괄호 안에 “인쇄중”이라고 표기하고 해당 저자의 맨 마지막 연구로 취급한다.

(2) 현재 심사 중이어서 출판이 확실치 않는 경우 괄호 안에 “심사중”이라고 표기하고 심사 중인 정기 간행물명을 밝힌다.

예) 김길동 (심사중). 국민안전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국가안보 · 국민안전학회지.

(3) 발표 자료 등으로 만들어졌으나 출판되지 않는 경우 괄호 안에 “미간행”이라고 표기하고, 학술대회 등의 발표 자료라면 학술발표 년, 월, 일을 기입하고 심표를 한 후 미간행임을 표기한다.

예) 김길동 (2010, 5, 3, 미간행). 국가안보 · 국민안전 서비스의 발전 방안. 한국국가안보 · 국민안전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서울: 프레스센터.

## 3) 원전의 서지 사항

- 동양과 국내의 학술지명이나 저서명은 중고딕체로, 서양 문헌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 영문 제목이나 부제는 시작 단어의 첫 알파벳만을 대문자로 쓴다.

- 참고자료가 책과 같은 통상적인 출처에서 나오지 않았을 경우 이러한 내용을 제목 옆에 대괄호([ ])를 하고 써 준다.

예) [CD-ROM], [On-Line} 등

## (1) 정기 간행물

## ① 정기 간행물

- 정기 간행물은 간행물의 완전한 이름과 권수를 중고딕체로 쓰고 본문 인용 때의 표기 방식과 달리, 권수 앞에 “Vol.”이란 글씨를 쓰지 않고 아라비아 숫자로 권수를 적는다. 그리고 권수 번호에 바로 이어서 괄호 안에 호수를 적고 이어서 쪽수를 아라비아 숫자로 적는다.

## ② 대학의 논문집

- 대학의 논문집의 경우 기관지명이 유사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발행기관을 명시한다.

예) 김길동 (2013). 안전서비스의 효율적 목표달성에 관한 연구. 안전연구, 5(1), 56-87. 안전대학교 일반대학논문집.

## ③ 신문 기사의 인용

- 사설이나 일반 기자가 쓴 기사는 신문명을 저자명으로 취급하고, 발행일의 연, 월, 일을 괄호로 묶어 쓰고, 기사의 제목과 게재면을 표시한다.

예) 안전일보 (2009, 3, 1). 안전 관리자의 책임. 5면.

- 독자 혹은 특정인의 기고라면, 이 기고자의 이름을 저자로 취급하여, 일반학술지에 실린 문헌과 같은 방식으로 기재한다. 익명의 기고일 경우는 기사의 제목 두세 단어로 기사 작성자명을 대신한다.

예) 홍길동 (2009, 3, 1). 민간경비원의 책임. 경비일보, 5면.

## ④ 잡지 같은 정기 간행물

예) 김길동 (2014, 겨울). 범죄의 수사구성, 수사연구, 55-98.

## (2) 저서를 포함한 비정기 간행물

## ① 책, 보고서, 학위논문, 안내서(brochures), 요강(要綱), 시청각 매체 등을 포함해서 정기 간행물이 아닌 자료

예) 이길동 (2010). 민간경비론. 서울: 진영사.

## ② 논문 하나가 단행본으로 묶여진 긴 논문(monographs)의 경우

예) 저자명. (연도). 논문 제목. 논문집명 권(호), 전 권이 아닌 경우 쪽수 (연속 간행물인 경우는 일련번호).

## ③ 학위 논문

예) 김길동 (2014). 경호경비 산업의 발전 방안.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④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학술 발표회 발표 논문

예) 김길동 (2014). 국가안보 인식의 개선 방안.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초록집.

김길동(2014). 국가안보 인식의 개선 방안.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하계심포지움 “국가안보의 의미”.

- ⑤ 미간행 발표 자료

예) 홍길동 (2014).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편집위원회 결산 보고.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연차 총회, 12월 22일. 경기대학교 대강당.

- (3) 편집서나 저서에 포함된 단일 논문의 인용

- 인용한 장(章의) 저자명 다음에 출판 연도를 괄호 안에 적고 마침표를 찍고 장의 제목을 적는다. 그리고 전체 책을 엮은 편집자의 성명을 적고 한 칸 띄고 편집일 경우 ‘편’ 저서일 경우 ‘저’(영어는 편집자명 앞에 “In”을 넣어 시작하고 괄호 안에 ED./편집자가 복수일 경우 Eds.)라고 표시한 후 저서명(중고딕체)을 적고 괄호 안에 해당 쪽수를 적어 넣는다.

예) 한상희 (2006). 경찰과거청산의 올바른 방향. 최응렬 (편). 경찰개혁론 (pp. 5-15). 서울: 법문사.

- ⑥ 역서와 번역서의 경우

예) 원저자명 (번역서 출판년도). 번역서명(중고딕체, 영문은 이탤릭체) (역자명 역/편역). 출판지: 출판사. (원전의 출판년도).

예) Durkheim, E. (2008). 에밀 뒤르켐의 자살론 (황보종우 역). 파주: 청아출판사. (원전은 1897에 출판).

- ⑦ 초록 문헌의 경우

예) 김길동(2014). 국가안보 인식의 개선 방안.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하계심포지움 “국가안보의 의미”.

- ⑧ 재인용한 자료들의 제시

- 본문에서와 달리 참고 문헌 목록에는 재인용 문헌만을 제시한다.

- ⑨ 논문, 책, 영화, 비디오, TV프로그램 등의 논평 문헌 표기

예) 논평가 성명 (출판연도). 제목 [자료가 기술하고 있는 원자료의 형태

와 제목]. 자료가 실린 서명, 권(호), 페이지.

※ 논평 문헌이 아니라 매체를 직접 인용한 경우

예) 감독 및 제작자의 이름 (역할) (년도). 제목. [원자료 형태] 방영지역  
(비디오 경우 출시회사 주소지): 방송사명(비디오 경우 제작사명).

예) 김철민, 조현탁 (감독) (2010). 대물. [TV 연속극] 서울: SBS TV.

(4) 전자 매체 등 인터넷 간행물의 표기

- 인용한 내용의 출처가 마이크로 필름이나 시디롬, 온라인 등의 매체일 경우 그 출처 형태와 출처 정보를 표시한다.

예)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main/main.html>,  
2014년 12월 22일 검색)

(5) 출판 장소와 출판사

- 저서의 경우 출판 사항에 출판 도시명과 출판사명을 적는다.
- 출판지가 잘 알려진 도시가 아니거나 다른 곳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 도시명 다음에 십표를 하고 국가명(미국은 주(州)명을 공식화된 약자로)을 적는다.
- 출판사명은 알아볼 수 있을 만큼만 간단하게 적고 associations, corporations, university press 등은 적되 Publishers, Co., Inc., 등의 불필요한 용어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면 빼다. 그러나 Books와 Press와 같은 고유 명사는 그대로 쓴다.
- 원전의 출판 도시가 하나 이상일 경우 맨 앞에 나와 있는 출판지나 출판사의 본사가 있는 출판 도시를 적는다.

#### IV. 서 평

1. 서평은 기획서평과 일반서평으로 구분하여 전자는 편집위원회가 기획하고 후자는 저자 의뢰 혹은 평자 기고로 이루어진다. 저자 의뢰의 경우 서평을 위한 저서의 제출이 이루어진 후 편집위원회에서 평자를 추천받아 서평을 의뢰한다.
2. 기획서평은 연구서에 대한 비평적 소개를 넘어 연구주제, 참고문헌, 각주 등 논문의 특징을 온전히 갖춘다. 분량은 200자 원고지 80매 이상으로, 심사(可조

만 판정)는 2인의 편집위원이 한다.

3. 일반서평은 연구서의 내용 요약, 기여 평가 등 비평적 소개로 참고문헌, 각주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 분량은 1권당 200자 원고지 20매 이내로, 심사(可否만 판정)는 2인의 편집위원이 한다.
4. 서평은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년도, 페이지, 가격, ISBN을 포함한다.

## V. 기 타

### 1. 외래용어 및 외국어

- 외래용어의 경우 첫 번에 한하여 한글 역어를 적고 괄호 안에 원어명을 부기한다. 통용되는 역어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사용하고 통일된 역어가 존재하지 않는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 기준에 따라 현지의 발음대로 표기한다.
- 외국 인명과 논문 제목은 원어명은 그대로 표기한다.

### 2. 표와 그림

- 표와 그림의 제목은 각각 논문 전편을 통해서 일련번호를 부여하며(예, 표 1, 그림 1), 표 제목(고딕체, 10pt)은 표 위쪽 가운데에 위치시키고 그림 제목(고딕체, 10pt)은 그림 아래쪽 가운데에 위치시킨다.
- 표의 설명주는 “주: 1), 2), 3)”으로 시작하고(※주: ( )은 점유율), 자료 출처는 아래 부분에 밝힌다(※ 자료: Duncan, 1981: 349의 재구성).
- 표에 대한 통계적 유의도는 \* $p < .05$ , \*\* $p < .01$ , \*\*\* $p < .001$ 과 같이 표기한다.
- 표 작성에서 줄긋기는 가로줄만을 사용하며 세로 테두리선을 쓰지 않는다. 가장 바깥 가로 선은 굵은 선을 쓰고 안쪽 가로선은 가는 선을 사용한다.
- 그림에서는 x축과 y축과 곡선·면적 등으로 표현된 각 부분의 명칭을 반드시 붙여 주어야 한다.
- 원고 작성의 편의상 표와 그림은 본문에 그 위치만 표시하고 별지에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다.

3. 저자의 논문이나 저술을 가리킬 때에는 ‘줄고’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반드시 이름을 밝혀 적는다.
4. 한국국가안보 · 국민안전학회 논문집필요령은 미국심리학회 출판 지침서 (APA) 및 한국심리학회 학술논문 작성 및 출판 지침을 참고로 작성되었으며, 본 논문집필요령에 없는 내용은 미국심리학회 출판 지침서(APA)에 따른다.

## 한국국가안보 · 국민안전학회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14. 12. 22. 제정  
2019. 8. 2. 개정

### 제1조 【목 적】

본 규정은 한국국가안보 · 국민안전학회 이하 ‘본회’라 칭함) 회칙 제4조의 2호에 규정된 ‘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을 위한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구 성】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15인 내외로 구성한다.

### 제3조 【편집위원의 선임 및 임기】

- ① 편집위원장은 본회의 편집이사로 하며, 이사회에서 추대하여 선임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 ②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회 의 동의를 거쳐 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 ③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④ 외국의 저명한 학자를 편집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제4조 【편집위원의 자격】

- ① 편집위원은 전문대학의 관련학과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 부교수 이상의 자나 대학의 관련학과에 재직 중인 전임강사 이상의 자로 한다. 단 상임이사회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인정되는 자를 편집위원으로 임명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할 수 있다.
- ② 편집위원은 국내 대학의 공식적인 연구논문집, 연구기관의 공식적 연구지, 학

회의 연구지 등 권위를 인정받는 연구지(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에 1년을 기준으로 3편 이상의 게재 실적이 있는 자로 한다.

- ③ 기타 이사회는 편집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관련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인정할 수 있고,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 중 편집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단 이때에도 전항의 논문게재 실적이 있어야 한다.

### 제5조 【업 무】

- ①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발간에 관한 다음의 업무를 담당하며, 편집위원장은 ‘학회지 발간규정’에 따라 편집위원회 운영 및 학회지 발간 업무를 집행한다.
-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 적부의 결정
  - 논문심사위원의 선정과 심사의뢰
  - 2차 심사(수정후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에 대한 수정여부의 확인)
  - 게재가로 심사된 논문의 편집
  - 기타 논문편집에 관련된 사항

### 제6조 【논문심사위원의 선임】

- ① 논문심사위원의 자격은 안보, 안전, 치안, 범죄, 경호, 경비, 소방, 보안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 한다.
- ② 편집위원들이 익명으로 된 각 투고논문에 대해 3명의 심사위원을 추천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 3인은 편집위원장이 최종 결정한다.

### 제7조 【논문심사 의뢰】

편집위원장은 선정된 심사위원에게 논문심사의뢰서, 심사대상 논문 1편, 논문심사의견서 등을 우송한다.

### 제8조 【논문심사】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에 대한 심사를 1차와 2차로 나누어 진행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① 1차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투고 논문에 대한 학술지 적격 여부를 판정한 후, 심사 적합한 것으로 선정된 논문에 대하여 편 당 3인의 심사위원들이 선임되

어 비공개로 이루어진다.

-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논문의 심사를 담당할 3인의 심사위원을 배정하고, 심사위원이 결정된 후 1주일 이내에 투고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투고된 논문은 심사의뢰에 앞서 저자의 신원을 나타내는 모든 정보를 삭제한다.
- 심사위원은 심사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반송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이 심사 위촉 후 2주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1차 독촉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심사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해촉된 심사위원은 논문을 즉시 본 학회 편집위원회로 반송하여야 한다.
- 각 심사위원은 심사위원 평가서에 실증논문과 개관논문 또는 이론논문을 구분하여, 7개 심사기준별로 7점 척도에서 평가하며, 총점에 따라서 심사결과를 ‘수정없이 게재’, ‘부분 수정 후 게재’, ‘대폭 수정 및 재심사 후 게재’, ‘추가적 경험적 연구 첨가 및 재심사후 게재’, ‘게재불가’로 판정하며,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를 각 논문의 저자에게 통보하여, 필요시 논문수정제의 요구서를 첨부하여 논문의 수정을 요청한다.

- ② 2차 심사는 ‘부분 수정 후 게재’ 또는 ‘대폭 수정 및 재심사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이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그 논문의 게재여부를 심의한다. 이를 위하여,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심사결과에 대한 답변서를 요청한다.
- ③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심사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는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 ④ 저자가 논문의 수정을 요청받고 특별한 사유 없이 2개월 이내에 수정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저자가 논문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⑤ 본 학회는 편집위원회가 게재 여부를 결정한 후, 10일 이내에 이를 저자에게 통보한다.

**제9조 【논문 심사료】**

심사에 회부된 논문에 대해서는 편당 60,000원의 심사료를 부과한다.

**제10조 【논문게재료】**

본 학회의 학술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 학술지 20쪽까지는 쪽수에 관계없이 연구비 지원이 없는 경우 편당 20만원, 연구비 지원이 있는 경우 편당 25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20쪽을 초과한 논문에 대해서는 21쪽부터 한 쪽당 1만원을 초과한 분량만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학술지의 구성 및 편집】**

- ① 학술지 내에 본 학술지의 편집위원 명단과 각 권호의 심사위원 명단을 표기한다.
- ② 국문논문은 국문제목, 저자 및 소속, 국문요약, 국문 주요어, 본문, 참고문헌, 원고접수일/수정원고접수일/게재결정일, 영문초록, 영문 주요어, 부록의 순서로 구성한다.
- ③ 영문논문은 영문제목, 저자 및 소속, 영문초록, 영문 주요어, 본문, 참고문헌, 원고접수일/수정원고접수일/게재결정일, 국문요약, 국문 주요어, 부록의 순서로 구성한다.
- ④ 공동논문의 경우, 제 1저자(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는 저자 명단의 가장 앞에 표기하며, 공동 저자(들)의 경우는 저자 명단에서 제 1저자 다음에 논문에 대한 기여도의 순서대로 표기한다.
- ⑤ 공동논문의 경우, 저자주에 제 1저자(주저자 또는 교신저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 ⑥ 학회지 논문의 게재순서는 해당 권호의 심사용 원고를 제출한 순서에 따른다.

**제12조 【저작권】**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한국국가안보 · 국민안전학회」에 자동적으로 귀속된다.

**제13조 【게재예정증명서】**

본 학회는 게재가 확정되고 최종 수정본이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게재예정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저자의 요청에 따라서 게재예정증명서가 발급된 논문은 다른 학회지에 심사요청을 할 수 없다.

**제14조 【심사결과의 보안】**

논문심사와 관련된 정보는 편집위원회이외의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

**제15조 【기타】**

본 학회지의 투고논문 작성 세칙 또는 미국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가 발간한 출판지침(Publication Manual) 최근판을 참조한다. 그 외에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16조 【운 영】**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편집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부편집이사를 둘 수 있다.

**제17조 【내규개정】**

내규의 개정은 이사회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제18조 【시행일】**

이 내규는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19조 【경과규정】**

이 내규 시행당시의 편집위원의 임기는 다음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연구윤리 규정

2014. 12. 22 제정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의 학술지인 본 학회지는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하여 논문기고자들에게 이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이 연구윤리규정은 1장 연구윤리, 2장 연구진실성심사로 나뉜다.

## 제1장 연구윤리

### 제1조 【학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연구에 종사하는 학자는 학문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가지며, 그에 따른 다음과 같은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 ① 사상, 종교, 나이, 성별 및 사회적 계층과 문화가 다른 집단의 학문적 업적에 대하여 편견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
- ② 자신의 연구에 대한 비판에 개방적이고, 자신의 지식에 대하여 끊임없이 회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 ③ 자신의 주장을 반박하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발견하면, 자신의 오류를 수정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 ④ 새로운 연구 문제, 사고 체계 및 접근법에 대하여 편견 없이 검토하여야 한다.

### 제2조 【기관의 승인】

연구수행 시 기관의 승인이 요구될 때, 심리학자는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연구계획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승인을 얻는다. 또한 승인된 연구계획안대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3조 【연구참여자에 대한 책임】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는 연구참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가진다.

- ① 연구참여자의 인격,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개인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 ② 연구참여자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연구참여자에게 심리적, 신체적 손상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예상하지 못한 고통의 반응을 연구참여자가 보일 경우 연구를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 제4조 【연구 참여에 대한 서면동의】

- ① 연구 참여는 자의의지로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해당 학자는 연구참여자로부터 연구 참여에 대한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서면동의를 참여자의 서명을 확보한 경우를 말한다. 동의를 얻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알려주고, 이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연구참여자가 영아, 유아, 또는 독립된 판단을 할 수 없는 기타의 경우 법적인 보호자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는다.
  - 연구의 목적, 예상되는 기간 및 절차
  - 연구 참여를 거부하거나 중간에 그만둘 수 있는 권리
  - 연구 참여를 거부하거나 그만두었을 때 예상되는 결과
  - 참여 자발성에 영향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적 위험, 고통 또는 해로운 영향
  -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득
  - 비밀 보장의 한계
  - 참여에 대한 보상
  - 연구 및 연구참여자의 권리에 대한 의문이 있을 때는 편집위원회로 문의한다.
- ② 실험 처치가 포함된 개입(intervention) 연구를 수행하는 심리학자는 연구 시작부터 참여자에게 다음 사항을 분명하게 알려준다.
  - 실험 처치의 본질
  - 통제집단에게 이용할 수 있거나 또는 이용할 수 없게 될 서비스

- 처치집단 또는 통제집단에서의 할당 방법
- 개인이 연구에 참여하고 싶지 않거나, 연구가 이미 시작된 후 그만두고 싶어 할 경우 이용 가능한 처치 대안
-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이나 금전적인 대가

### 제5조 【연구를 위한 음성 및 영상 기록에 대한 동의】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는 자료 수집을 위하여 연구참여자의 음성이나 영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록하기 전에 연구참여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① 연구의 내용이 공공장소에서 자연관찰하는 것이거나, 그 기록이 개인의 정체를 밝히거나 해를 끼치는 데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을 경우
- ② 연구 설계에 속이기가 포함되어 있어서, 기록 후에 기록 사용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

### 제6조 【내담자/환자, 학생 등 연구자에게 의존적인 참여자】

- ①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가 내담자/환자, 학생 등 자신에게 의존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해당 학자는 이들이 참여를 거부하거나 그만둘 경우에 가지게 될 해로운 결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 조치를 한다.
- ② 연구 참여가 수강 과목의 필수사항이거나 추가 학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경우, 수강학생에게 다른 대안적 활동을 제공하여 학생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 제7조 【연구참여에 대한 서면동의 면제】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는 다음 경우에 연구참여자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 ① 연구가 고통을 주거나 해를 끼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교육 장면에서 수행되는 교육 실무, 교과과정 또는 교실 운영 방법에 대한 연구

- 연구참여자의 반응 노출이 참여자들을 형사상 또는 민사상 책임의 위험에 놓이지 않게 하거나, 재정 상태, 고용가능성 또는 평판에 손상을 입히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되는 익명의 질문지, 자연관찰 또는 자료수집 연구
  - 조직 장면에서 수행되는 직업이나 조직 효율성에 관련된 요인들에 대한 연구로, 참여자의 고용 가능성에 위험이 되지 않고, 비밀이 보장되는 경우
- ② 국가의 법률 또는 기관의 규칙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
- ③ 위 1.항의 경우에도 참여를 거부하거나 중간에 그만둘 수 있음을 참여자들에게 알림으로써, 연구 불참여의 의사결정 기회를 부여한 후에 연구를 시작한다.

#### 제8조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

- ①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는 연구 참여에 대해 적절한 정도의 보상을 한다. 그러나 연구 참여를 강요하게 될 정도로 지나치게 부적절한 금전적 또는 기타의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다.
- ②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시, 해당 학자는 그 서비스의 본질뿐만 아니라, 위험, 의무, 한계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 제9조 【연구에서 속이기】

- ①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는 속이기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연구에서 예상되는 과학적, 교육적, 혹은 응용 가치에 의해서 정당한 사유가 되고, 또한 속임수를 쓰지 않는 효과적인 대안적 절차들이 가능하지 않다고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속임수가 포함된 연구를 수행하지 않는다.
- ②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는 연구에 참여할 사람들에게 신체적 통증이나 심한 정서적 고통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정보를 알려주고 속이지 않는다.
- ③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는 실험에 포함된 속임수를 가능한 빨리, 가급적이면 연구 참여가 끝났을 때, 아니면 늦어도 자료수집이 완료되는 시점을 넘지 않는 기간에 구두,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설명함으로써, 참여자들에게 자신의 실험자료를 철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제10조 【연구참여자에 대한 사후설명(debriefing)】**

- ①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는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본질, 결과 및 결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과학적 가치와 인간적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는 한 연구참여자들이 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②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는 연구절차가 참여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 ③ 사후설명 정보의 제공은 구두,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 【동물의 인도적인 보호와 사용】**

한국국가안보 · 국민안전학 연구에서 동물실험은 불가피할 수 있다. 그러나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의 기본 의무는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므로 동물을 대상으로 연구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야 한다.

- ① 연구를 위해 동물실험 이외의 대안적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 신중히 생각하고, 대안이 없을 경우에만 동물을 대상으로 연구한다.
- ② 동물실험은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만 수행되어야 하며, 실험 방법, 사용하는 동물의 종, 동물의 수가 적절한지에 대해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 ③ 현행 법률과 규정에 따라서 그리고 전문적 기준에 따라서 동물을 확보하고, 돌보고, 사용하며, 처리한다.
- ④ 동물 피험자의 고통, 통증 및 상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⑤ 대안적인 절차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만, 그리고 그 목적이 과학적, 교육적 또는 응용 가치에 의해 정당화될 때에만 동물을 통증, 스트레스, 혹은 박탈 상황에 노출하는 절차를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 【연구결과 보고】**

- ①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는 자료를 조작하지 않는다.
- ②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는 연구대상 개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자료는 익명화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③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는 출판된 자신의 자료에서 중대한

오류를 발견하면, 정정, 취소, 정오표 등 적절한 출판수단을 사용하여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 제13조 【연구부정행위】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주요부정행위(위조·변조·표절·이중출판)와 부적절행위를 말한다.

- ① 주요부정행위 : 주요부정행위는 위조, 변조, 표절, 이중출판을 포함한다.
  -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자료(data)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이다.
  - “변조”라 함은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data)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이다.
  - “왜곡”이라 함은 학문의 발전보다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고의적으로 연구자료(data)의 일부를 과장하거나 축소하여 진실하지 않은 결론에 도달하게 하는 행위이다. 연구자료(data)가 정확하더라도, 연구자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고의적으로 연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는 주요부정행위이다.
  - “표절”이라 함은 이미 발표되거나 출간된 타인의 연구 내용결과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 없이 그대로 사용하거나, 다른 형태로 변화시켜 사용하는 경우이다. 이는 사용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된다.
  - 이미 발표되거나 출간된 타인의 연구 결과 중 핵심 개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 없이 본인의 연구 개념처럼 발표·출간한 경우 표절에 해당한다. 이는 사용언어, 문장, 표현이 다른 경우에도 해당된다.
  - 통상적으로 타인 논문에서 연속적으로 두 문장 이상을 인용 없이 동일하게 발췌·사용하는 경우 표절이다. 이는 사용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된다.
  - 타인이 기 발표한 연구 내용을 발췌하여 사용할 때에는 따옴표를 사용하여 인용하여야 한다. 단, 학술지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다.
  - 기 발표된 타인의 연구 결과가 이미 교과서 또는 공개적 출간물에 게재된 아이디어, 사실, 공식, 기타 정보로서 일반적 지식으로 통용되는 경우 인용하지 않고 논문에 사용할 수 있다.
  - 이중출판 : 국내외 출판을 막론하고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는 이전에 출판된 연구결과 (출판 예정이나 출판 심사 중인 자료 포함)를 새로운 결과인 것처럼 출판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연구자료(data)나 결과를 사용하여 출판하고자할 때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심사 요청 시에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중출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연구자 본인의 동일한 연구 결과를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출간하는 경우, 이중출판으로 주요부정행위이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자료가 같고 대부분의 문장이 같은 경우도 이중출판에 해당할 수 있다. 학위논문을 학술지논문으로 출판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학술지논문으로 발표된 연구결과들을 모아서 저서로 출간하는 경우는 이중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이 경우에도 이미 발표된 결과들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학술지에 실었던 논문내용을 대중서, 교양잡지 등에 쉽게 풀어 쓴 것은 이중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 연구자는 투고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짧은 서간 형태(letter, brief communication 등)의 논문을 출간할 수가 있다. 짧은 서간 논문을 출간한 후 긴 논문을 추가 출간하는 경우나, 연구자료를 추가하거나, 해석이 추가되거나, 자세한 연구 수행과정 정보 등이 추가되는 경우는 이중출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이미 출판된 논문이나 책의 일부가 원저자의 승인 하에 다른 편저자에 의해 선택되고 편집되어 선집(anthology)의 형태로 출판되거나 학술지의 특집호로 게재되는 경우 이중출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동일한 연구 결과를 다른 언어로 다른 독자에게 소개할 때 원 논문을 인용할 경우는 이중출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동일한 연구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투고하는 것은 이중출판으로 간주한다. 단, 다른 언어의 학술지에서 그 논문을 인지하고 그 편집장으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 해당 언어로 번역하여 투고하는 경우는 이중출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② 부적절행위 : 주요부정행위처럼 직접 책임이 있는 심각한 행위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책임있는 연구수행을 방해하거나 위해하는 행위이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의 각 호와 같다.

-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 ·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그렇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단순히 어떤 지위나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 기재되는 것은 연구부적절행위이다.
- 조사방해 행위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연구비 부당사용 및 연구결과 과장홍보
- 주요부정행위 교사 · 강요 : 타인에게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 ·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 주요연구부정행위로 인한 결과의 직접 인용 : 과거에 발생한 주요부정행위의 결과를 직접 인용하여 연구의 내용을 구성할 경우 부적절행위에 해당된다. 단, 학회에서는 이러한 주요부정행위 논문이나 출판에 대해 회원들에게 충분히 공지하여야 한다.

#### 제14조 【출판 업적】

- ①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는 자신이 실제로 수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 ② 용어정의
  - 주저자(책임저자)는 주연구자, 연구그룹장(팀장) 또는 실험실 책임자 등이 된다. 주저자의 역할은 논문에 포함된 모든 자료를 확인하며 연구결과물의 정당성에 대해 책임을 지는 일 그리고 논문원고 준비동안에 공저자간의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도 맡는다. 주저자는 제1저자, 공동저자, 또는 교신저자가 될 수 있고,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저자명 기재의 순서를 정하기 위하여 저자들간 합의를 도출한다.
  - 제1저자는 저자순서에서 제일 처음에 위치한 연구자로서 자료/정보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결과를 해석, 원고의 초안을 작성한자로 규정한다. 주저자가 제1저자가 될 수도 있다.
  - 교신저자는 투고저자라고도 하며 학술지에 논문을 출판하기 위하여 원고를

제출하는 저자로 논문투고, 심사자와 교신역할을 하며, 연구물의 첫장 각주에 교신저자의 연락처를 제시한다. 논문의 교신저자는 저자들간 합의에 따라 주저자, 제1저자, 또는 공동연구자가 할 수 있으며 학위논문에 기초한 경우 학생 또는 논문지도교수가 할 수 있다.

- 교신저자가 주저자가 아닌 경우에는 연구물의 첫장 각주에 주저자의 연락처도 제시해야 한다.
- 공동저자는 연구의 계획, 개념확립, 수행, 결과분석, 및 연구결과 작성 과정에 서 중요한 연구정보를 상의하고 결론에 도달하는데 기여한 자를 말한다.

- ③ 출판물에서 저자로 기재되는 경우는 학술적 · 전문적 기여가 있을 때에 한정된다.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하는 것으로 한다.
- ④ 학술적 · 전문적 기여라 함은 실제로 글을 쓰거나 연구에 대한 상당한 기여를 의미한다. 상당한 기여는 가설이나 연구문제의 설정, 실험의 설계, 통계 분석의 구조화 및 실시, 그리고 결과해석을 포함하는 주요부분의 집필을 포함한다.
- ⑤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학생의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논문을 실질적 토대로 한 여러 명의 공동 저술인 논문에서는 학생이 제1저자가 된다. 단, 학위논문을 대폭수정하거나 추가 경험자료를 수집하여 보완한 경우, 그리고 기타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할 때는 그렇지 아니하다.
- ⑥ 학위논문의 축약본이나 일부를 출판할 경우 그러한 사항을 논문 첫 쪽의 각주에 명시한다.

## 제15조 【자료보관 및 재검증을 위한 공유】

### ① (보관)

- 수집된 원자료를 매체(디스켓, CD, USB 등)에 기록하고 보관하는 주 책임은 주저자에게 있다. 매체에 기록된 자료를 기록자료라고 한다.
- 기록자료를 포함하여 연구결과의 결론도출에 근거가 된 자료를 근거자료라고 한다. 근거자료의 보관은 동료 연구자 또는 학계의 다른 연구자에 의한 검증을 허용하기 위하여, 출판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연구결과가 발표된 후, 다른 연구자가 재분석을 통해 발표된 결과를 재검증하

기 위한 목적으로 근거자료를 요청하면, 다음 각 호에 의하지 않는 한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는 근거자료를 제공한다.

- 연구참여자에 대한 비밀유지(confidentiality)가 어려운 경우
- 소유한 근거자료에 대한 법적 권리가 자료 공개를 금하는 경우
- 재검증의 필요가 없음을 편집위원회에 소명하여 인정된 경우

③ 전항에 의해 근거자료를 제공받은 심리학자는 오로지 그 목적으로만 근거자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다른 목적으로 근거자료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근거자료를 요청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제공하지 않으면 연구부적절행위로 간주되고 연구진실성심사의 대상이 된다.

## 제16조 【심사】

투고논문, 학술발표원고, 연구계획서를 심사하는 심리학자는 제출자와 제출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 저자의 저작권을 존중한다.

## 【참고자료】

과학기술부 훈령 236호 (2007. 2. 8).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심리학자 윤리규정 (2003. 8 제정, 2004. 8 수정)의 3장 “연구관련 윤리”.

APA 심리학자 윤리규정 (2002 제정)의 8장 “연구 및 출판”.

프린스턴대학교 학부생을 위한 출판규정 (2006-2007).

서울대학교 연구지침 (2008. 7. 30).

과기총뉴스레터 (2008. 8.5). “올바른 논문저자 표기와 연구윤리”.

연구윤리정보센터 “좋은연구” 웹사이트 (<http://좋은연구.kr>, 또는

<http://www.grp.or.kr>). (2008. 8.15) “연구활동의 스펙트럼”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2006. 6.16. 규칙 제1563호)

연세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2007. 1. 2 제정).

이화여자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2007. 3. 19 제정).

## 제2장 연구 진실성 심사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과 처리를 위한 심사·판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 【정의】

- ① “제보자”라 함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편집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 ②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편집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 ③ “예비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본 편집위원회가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말한다.
- ④ “본 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⑤ “판정”이라 함은 본 조사를 완결하고, 결과에 대한 처리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에 기고하는 모든 저자들 및 관련 연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 【적용절차】

- ① 제보 또는 혐의가 접수 된지 15일 이내에 편집위원장은 예비조사를 위해서 연구진실성예비조사위원회(이하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예비조사 결과로 본조사의 필요가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편집위원장은 연구진실성 본조사위원회(이하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 ③ 본조사위원회로부터 본조사완결보고서를 접수하면 편집위원장은 1주일 이내에 판정사항을 관계자 및 해당기관에 알린다.
- ④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 제5조 【예비조사위원회】

- ①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 ② (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회의)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회의는 심의안건에 따라 가능한 경우 전자우편 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 【연구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 ① 제보자는 편집위원회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연구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보자의 신분에 대한 비밀보장은 철저히 한다.
- ③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④ 편집위원회에서 인지한 혐의도 접수절차를 거쳐서 처리한다.

**제7조 【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 ① 예비조사는 제보 · 인지의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예비조사 결과보고서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완료한다.
-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제보내용이 본 학회지의 윤리규정 제1부 13조에서 정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 제보일이 연구 부정행위 발생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 제보일이 연구 부정행위 발생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난 경우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본 학회지에 기고하였으면 조사대상이 된다.

**제8조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①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 ②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 부정행위 혐의
- ③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④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9조 【예비조사 결정】**

예비조사에서 본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서 통보한다. 단, 익명 제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제10조 【본 조사 착수 및 기간】**

- ① 예비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 본 조사는 조사시작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본조사위원회는 본 조사 결과보고서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임무를 완료한다.

#### 제11조 【본 조사위원회의 구성】

- ① 본조사위원회는 한국국가안보 · 국민안전학회 윤리위원회와 공조하여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연구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포함한다.
- 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 ① 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본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출석요구와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3조 【예비조사 또는 본 조사에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 ② 연구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판정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관련 위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른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 제14조 【본 조사에서 제척·기피 및 회피】

- ① 위원이 당해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사에서 제척된다.
- ② 본조사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 ③ 본조사위원에게 조사수행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보자 및 피조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위원을 기피할 수 없다.
- ④ 본조사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 제15조 【본 조사에서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 제16조 【본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 ① 본조사위원회는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내용 등을 토대로 본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 ② 본 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보 내용
  -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물
  - 해당 연구물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 관련 증거 및 증인
  -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 판정 또는 조치 필요사항
  - 조사위원 명단 및 서명

### 제17조 【판정 및 조치】

- ① 본조사결과의 판정 및 조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연구 부정행위 해당논문은 학술지 논문 목록에서 삭제되고, 해당저자(들)은 1~3년간 한국심리학회 산하 학술지에 투고를 금지한다. 또한 학회 회원 자격 여부(회원자격 박탈, 회원자격 정지, 자격(면허) 상실, 자격(면허) 정지)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다.
- ③ 판정사항은 제보자, 한국국가안보 · 국민안전학회 산하 학술지 편집위원장, 기고자, 기고자의 소속연구기관에 통보한다.

### 제18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편집위원회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② 본 조사 결과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19조 【제재】

표절이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표절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를 가한다.

- ① 학회 홈페이지에 실린 논문 삭제 및 표절 사실 공시
- ② 한국국가안보 · 국민안전학회지의 투고 및 학회 세미나 등의 발표 및 토론자로 5년 이하의 참여금지
- ③ 연구부정행위자의 소속기관에 연구부정행위 사실 통보
- ④ 기타 본 학회의 윤리위원회가 정하는 제재사항

### 제20조 【시행세칙】

편집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표절 규정

2014. 12. 22. 제정

### 제1조 【정 의】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에서 발행하는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을 심사함에 있어,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및 연구결과나 이미 발표한 자신의 연구결과를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2조 【유 형】

다음의 두 가지 형태를 표절의 대표적 행위로 규정한다.

- ①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 등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활용하는 경우
- ② 출처를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상당히 많은 문구와 아이디어 등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

### 제3조 【심사주체】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편집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표절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한 표절여부의 확정과 제재내용의 확정은 윤리위원회가 담당한다.

### 제4조 【제 재】

표절이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표절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를 가한다.

- ① 학회 홈페이지에 실린 논문 삭제 및 표절 사실 공시
- ②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의 투고 및 학회 세미나 등의 발표 및 토론자로 5년 이하의 참여금지
- ③ 연구부정행위자의 소속기관에 연구부정행위 사실 통보
- ④ 기타 본 학회의 윤리위원회가 정하는 제재사항

## 논문투고 일정

순서	전반기	후반기
원고접수마감일 / 발행예정일	4월 30일 / 6월 30일	10월 31일 / 12월 31일

### 1. 논문투고 규정에 관한 안내

#### 1) 논문투고 규정에 관한 안내

- 위에 명기된 접수 마감일은 매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접수마감일을 넘겨 투고한 논문은 다음호로 연기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라며, 마감일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투고된 논문은 학회에 소속되며, 연구자에게 반환되지 않습니다.
- 작성규정 : 학회지 편집양식 A4 용지 20매 기준 (별쇄본 및 심사료 포함)
- 논문투고시 단독저자-1편, 공동저자-1편으로 총 2편으로 편수제한
- 투고요령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저자명을 표기할 때 저자가 다수인 경우 한국연구재단에서 권장하고 있는 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의 순으로 명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2. 논문투고 방법안내

온라인 논문투고 : knspsa2014@gmail.com 또는 홈페이지(<http://www.knssa.com>)

### 3. 온라인 논문투고 후 문의

담당자 : 이대권 (010-8873-9975/knspsa2014@gmail.com)

##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장항배 (중앙대)				
편집위원	문준섭 (가톨릭관동대)	김도우 (경남대)	김양훈 (극동대)	김태훈 (성신여대)	윤민우 (가천대)
	이창배 (울산대)	강 욱 (경찰대)	김민지 (숙명여대)	이환수 (단국대)	

##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 제11호

인쇄일	2020년 12월 28일
발행일	2020년 12월 31일
발행인	박준석
편집인	장항배
발행처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449]-[713] 경기도 용인시 처안구 삼가동 용인대학교로134 용인대학교 무도대학 5층 박준석교수 연구실 전화 (031) 8020-2633 FAX (031) 8020-2882 E-mail knspsa2014@gmail.com Homepage <a href="http://www.knssa.com">http://www.knssa.com</a>
인쇄처	백산출판사
전 화	(02) 914-1621(代)
F A X	(031) 955-9911 edit@ibaeksan.kr      www.ibaeksan.kr

비매품

